

2012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National Survey on HIV/AIDS,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in the General Population, 2012



2012. 12



제 출 문

질병관리본부장

대한에이즈예방협회장 귀하

이 보고서를 “2012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과제의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15.

주관 연구 기관명: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이병관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최명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보조 연구원: 신경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

서동명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석사과정)

목 차

01 연구배경 및 목적 1

02 연구 개요 2

03 연구 방법 3

1. 일반인 대상 조사설계 3
2. 내용분석 절차 6

04 연구 결과 8

1.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 8
2. 미디어 커버리지 내용분석 결과 105

05 결론 및 논의 118

연구 배경 및 목적

2011년 말 추산, 전 세계적으로 3,400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된 가운데,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져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UNAIDS, 2012),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까지 총 8,544명이 감염되었으며, 치료 제를 투여 받는 환자가 2011년 추산 8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2012. 12. 6.).

HIV/AIDS는 이제 조속한 예방 및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극복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관리의 차원을 넘어 일반인들의 성 인지와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HIV 감염의 확률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02년을 시작으로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성 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해를 거듭하며 보다 타당하고 신뢰도 있는 조사 결과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총 7년여에 걸친 행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성 관련 지식, 태도, 행동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조사 방법의 변화를 통해 보다 적합한 방법론적인 접근법 개발이 시도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전의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가능한 효과적인 평가 지표 및 조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처음으로 시도된 에이즈 낙인 척도의 재검증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일반인 대상 인식 조사 결과와 더불어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에이즈 관련 키워드의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 및 성 행태조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에이즈에 대한 일반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에이즈에 대한 연상, 지식을 살펴보고 이전 연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검토함으로써 에이즈에 대한 인식 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에이즈에 대한 주요 연상 단어들과 2010년 이후 보도된 에이즈 관련 기사의 내용 분석을 비교해 봄으로써 미디어 보도의 프레임이 일반인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 2010년 새롭게 개발된 에이즈에 대한 낙인 인식 지표를 재검증 함으로써 해당 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조사결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낙인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일반인들의 성 행태 및 에이즈 검사 현황을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어떻게 행동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에이즈에 대한 인식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미디어 및 공익광고 노출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UNAIDS Global Report에서 제시되는 각국의 성 행태 지표와 국내 지표의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일반인 대상 설문 조사 설계

▪ 모집단 정의

본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5개 시/도(제주도 제외)의 만 15세 이상 59세 이하의 주민등록인구로, 행정안전부 공시 통계자료의 2011년 12월 말 기준 만 15~59세 성인 남녀 34,527,014명이다(부록 1. 성·연령·지역별 모집단 현황 참조).

▪ 표본 크기와 표집 오차

본 조사의 전체 유효 표본은 모집단 수의 0.0029%인 1,000명 이었으며(부록 2. 성·연령·지역별 표본 할당 참조), 본 조사의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무선표집을 가정한 최대 표집오차는 ± 3.10 이다.

〈표 1〉 모집단과 표본자료의 분포

지역	모집단	표본	비율
서울특별시	7,323,411	223	0.0030%
부산광역시	2,472,066	73	0.0030%
대구광역시	1,748,688	50	0.0029%
인천광역시	2,001,624	59	0.0029%
광주광역시	1,004,576	25	0.0025%
대전광역시	1,063,827	28	0.0026%
울산광역시	819,865	20	0.0024%
경기도	8,372,972	256	0.0031%
강원도	1,005,775	26	0.0026%
충청북도	1,038,188	26	0.0025%
충청남도	1,348,825	37	0.0027%
전라북도	1,191,519	32	0.0027%

지역	모집단	표본	비율
전라남도	1,165,983	33	0.0028%
경상북도	1,746,011	49	0.0028%
경상남도	2,223,684	63	0.0028%
계	34,527,014	1,000	0.0029%

▪ 표본 추출 방법

표집 방법은 전국(제주 제외)의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층화다단계 집락비례할당추출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지점에서는 할당추출방식으로 개별면접을 진행하였다.

1) 지역별·성별·연령별 층화

전국 15개 시도별 만 15세~59세 인구구성비를 기준으로 표본수를 할당하였으며, 표집틀(sampling frame)은 2011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행정안전부 발표)를 활용하였다.

2) 1단계 집락추출: 시/군/구 추출

PPS(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방식으로 조사대상 시/군/구를 추출하였으며, 집락추출방식을 적용하여 최종조사 지점 당 평균 10표본 배분을 기준으로 실사 지점 수를 100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추출된 시군구(100지점)를 전국 15개 시도별¹⁾로 각각 몇 지점씩 추출할 것인가는 각 시도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할당 하였다.

3) 2단계 집락추출: 읍/면/동 추출

1단계 집락추출과 동일한 PPS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읍/면/동 내에서 추출하였으며, 평균 10표본 할당을 기준으로 하여 100지점을 선정하였다.

4) 3단계 최종 응답자 선정

추출된 읍/면/동 사무소(통/리 기준)를 조사 시작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성, 연령별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한 할당 추출방식으로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 면접원 관리 및 표본 대체

면접원에 의한 조사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면접원 선발, 교육, 실사, 진행·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응답거절자의 경우 동일 성별·연령대의 대체 응답자를 찾아 면접을 진행하였다.

1) 면접원 선발

면접원은 본 연구의 조사방법인 개별방문면접조사 경험을 기준으로 최소 3년이 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건강관련 조사 유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2) 면접원 교육

면접원 교육은 조사목적 및 취지, 응답자 선정 방법, 응답거부 시 대체표본 추출 방법, 면접 방법 등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돋는 이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1차로 실시하고, 면접원간 역할분담(role playing) 교육을 통해 실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처방법을 표준화하여 2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진행 과정에서 면접원 별 일일 조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조사 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점검·공유하였다.

3) 표본 대체 방법

면접원이 조사를 시작한 후 최초 접촉한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거절할 경우, 동일 성별·연령대의 대상자를 찾아 면접을 진행하였다.

▪ 조사 기간 및 응답률

본 조사의 기간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로 24일간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목표 표본수인 1,000명을 조사하기 위해 총 4,076명의 조사 대상자와 접촉하여,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하였고 3,076명이 응답 거절을 하였다. 따라서 응답률은 24.5%(1,000명/4,076명)로 나타났다.

2. 내용분석 절차

▪ 자료의 수집

에이즈에 관한 보도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포탈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를 바탕으로 기사를 검색하였다. 기사 검색 키워드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AIDS, HIV, HIV/AIDS 총 5개의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1) 분석 대상

검색 매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례 등 주요 일간지를 포함한 12개의 일간지와 KBS, MBC, SBS 등 공중파를 비롯해 MBN, YTN 등 케이블 방송 까지를 포함하는 22개의 방송매체, 경제 분야 45개 매체, 인터넷 신문 33개 매체, 스포츠/연예 분야 49개 매체, 지역지 35개, 매거진 47개, 그리고 의학지를 포함한 전문지 74개로 총 317개 매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내용분석 대상 매체

분류	분석대상	빈도
종합 일간지 등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례, 아시아투데이 등	12개
공중파 방송	KBS, MBC, SBS 등	5개
케이블 방송	YTN, MBN 등	17개
통신사	뉴시스, 연합 뉴스 등	5개
의학지	메디컬투데이, 코리아헬스로그, 메디파나뉴스, 데일리메디 등	74개
지역지	부산일보, 강원일보, 충남일보 등	35개
경제지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등	45개
인터넷 신문	노컷뉴스, 쿠키뉴스, 뉴스한국, 시티신문, 뉴스웨이 등	49개
기타	공감 코리아, 진보신당 소식지 등	33개
전체		317 개

2) 분석 기간

내용분석을 위한 보도 기사의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총 30개월 동안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키워드 간 충복을 제외하고 총 48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그 중에서 단순 언급, 보도 자료 원문 등 본 조사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들과 웹 페이지 상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링크가 되지 않는 기사,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국내 언론 기사 등을 제외하여 총 481개의 기사가 실제 내용분석에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2010년은 211건, 2011년은 204건, 2012년은 66건이 각각 분석에 활용되었다. 한편, 상·하 분기별로 구분하여 빈도를 살펴본 결과, 크게는 매해 200건 가량의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반기보다는 에이즈의 날이 포함된 하반기에 더욱 집중적으로 에이즈에 관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에이즈 관련 기사 연도별 빈도

(단위: 건, %)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전체
2010년	55(11.4)	156(32.5)	211(43.9)
2011년	42(8.7)	162(33.7)	204(42.4)
2012년	66(13.7)	-	66(13.7)
전체	163(33.6)	316(66.2)	481(100)

3) 자료의 코딩 및 분석

수집된 기사자료는 두 명의 대학원생에 의해 코딩되었으며, 코더들은 제시된 코딩 프레임에 따라 다수의 코딩 훈련세션을 거쳤다. 코딩훈련 동안 불일치한 항목에 대해 토론을 통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 전체 기사의 20%인 총 96개의 기사를 통해 신뢰도가 확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코딩 훈련을 실시하였고, 코더 간 일치도 분석 결과, 각 분석 항목에 대한 Cohen's Kappa 값의 평균이 0.9이상으로 나타나 적절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에이즈 감염인 접촉 경험

전국 15개 주요 시·도에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2012 일반인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남성 513명(51.3%), 여성 487명(48.7%)으로 전반적으로 고른 성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40대가 2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23.8%), 50대 이상(21.6%), 20대(19.3%), 10대(9.3%)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¹. 한편,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가 25.6%, 서울이 22.3%, 인천이 5.9%로 50%이상의 응답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부산(7.3%), 경남(6.3%), 대구(5.0%), 경북(4.9%) 등의 순서로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56.1%)의 응답자들이 대졸 이상(43.9%)의 응답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여부의 경우 기혼자가 66.4%, 미혼자가 32.0%로 나타나 기혼자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또는 별거중인 경우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의 가구 소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월 평균 300 ~ 400만원(33.7%), 400 ~ 500만원(34.6%)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 별로는 사무/기술직이 2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업주부(19.8%)와 학생(19.8%), 자영업(17.3%)의 비율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조사가 가구방문을 통한 대인면접 조사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의 종교 유무를 살펴본 결과,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이 53.4%로

¹ 1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본 조사가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임

종교가 있는 응답자(4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의 에이즈 감염인 접촉 여부와 관련해서는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0.5%에 불과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직접적으로 에이즈 감염인을 접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에이즈 감염인 접촉 경험

구분	사례수(명)	퍼센트(%)
전체	1000	100
성별	남	513
	여	487
연령대	10대	93
	20대	193
연령대	30대	238
	40대	260
	50대 이상	216
학력	고졸 이하	561
	대졸 이상	439
혼인여부	기혼	664
	미혼	320
	기타(이혼 또는 별거)	16
월 수입	100만원 미만	4
	100~200만원 미만	19
	200~300만원 미만	121
	300~400만원 미만	337
	400~500만원 미만	346
	500만원 이상	172
	응답거부	1
종교	유	465
	무	534
직업	응답거부	1
	전문/자유직	26
	사무/기술직	200
	경영/관리직	13
	판매/서비스직	135
	일용/작업직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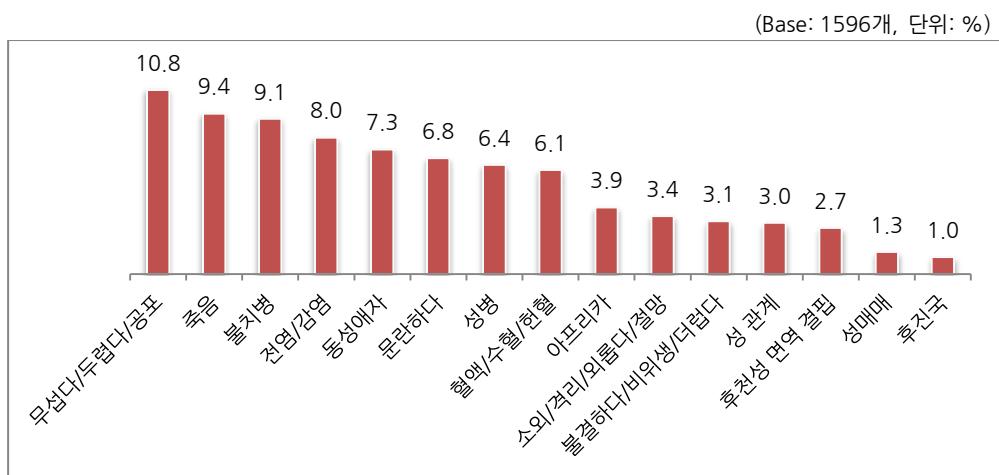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퍼센트(%)
생산/운수직	33	3.3
자영업	173	17.3
전업주부	198	19.8
학생	198	19.8
무직/은퇴자	6	0.6
기타	5	0.5
서울	223	22.3
부산	73	7.3
대구	50	5.0
인천	59	5.9
광주	25	2.5
대전	28	2.8
울산	20	2.0
거주지역		
경기	256	25.6
강원	26	2.6
충북	26	2.6
충남	37	3.7
전북	32	3.2
전남	33	3.3
경북	49	4.9
경남	63	6.3
에이즈 감염인 접촉여부		
있음	5	0.5
없음	995	99.5

2) 에이즈에 대한 연상 이미지

(1) 에이즈에 대한 연상 단어(2012년)

본 조사의 응답자들에게 ‘에이즈’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질문한 결과, ‘무섭다/두렵다/공포’와 같이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10.8%로 가장 많이 연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죽음(9.4%), 불치병(9.1%)과 같이 질병의 감염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이 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염/감염(8.0%), 동성애자(7.3%), 문란한 성생활/문란하다(6.8%), 성병(6.4%), 혈액/수혈/현혈(6.1%), 성 관계(3.0%), 면역 결핍/후천성 면역 결핍증(2.7%)과 같이 에이즈라는 질병의 특성과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연상이 뒤를 이어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인식 속에는 ‘에이즈’라는 질병의 감염 원인에 대한 인식 뿐 만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 ‘아프리카’, ‘후진국’, ‘원숭이’, ‘반점’과 에이즈 감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수치스럽다/창피하다/부끄럽다’, ‘불행하다/삶의 끝’, ‘비밀’과 같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불결하다 /비위생적이다/더럽다/불결한 성행위, 거부감이 든다, 유흥가/유흥업소, 직업여성/창녀/매춘과 같이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또한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결과임

<그림 1> 2012년 주요 에이즈 연상 단어

〈표 5〉 2012년 주요 에이즈 연상 단어

주요 연상 단어	빈도(건)	비율(%)
무섭다 / 두렵다 / 공포	172	10.8
죽음	150	9.4
불치병	145	9.1
전염 / 감염	127	8.0
동성애자	116	7.3
문란한 성 생활 / 문란하다	108	6.8
성병	102	6.4
헐액 / 수혈 / 헌혈	97	6.1
아프리카	63	3.9
소외 / 격리 / 외롭다 / 절망·좌절	54	3.4
불결하다 / 비위생적이다 / 더럽다 / 불결한 성행위	49	3.1
성 관계 / 성 관계로 인해 감염된다	48	3.0
면역 결핍 / 후천성 면역 결핍증	43	2.7
성매매	20	1.3
후진국	16	1.0
거부감 듣다	14	0.9
반점	14	0.9
질병 / 병	14	0.9
수치스럽다 / 창피하다 / 부끄럽다	11	0.7
불행하다 / 삶의 끝	11	0.7
원숭이	10	0.6
고통	9	0.6
비밀	8	0.5
유흥가/유흥업소	8	0.5
직업여성 / 창녀 / 매춘	8	0.5
기타	175	11.0
전체	1596	100

에이즈에 대해서 연상되는 단어에 사이에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어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언어 연결망 분석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구축되는 연결망을 통해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 기법을 말한다². 특히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 관계를 시각화함으로써 분석 결과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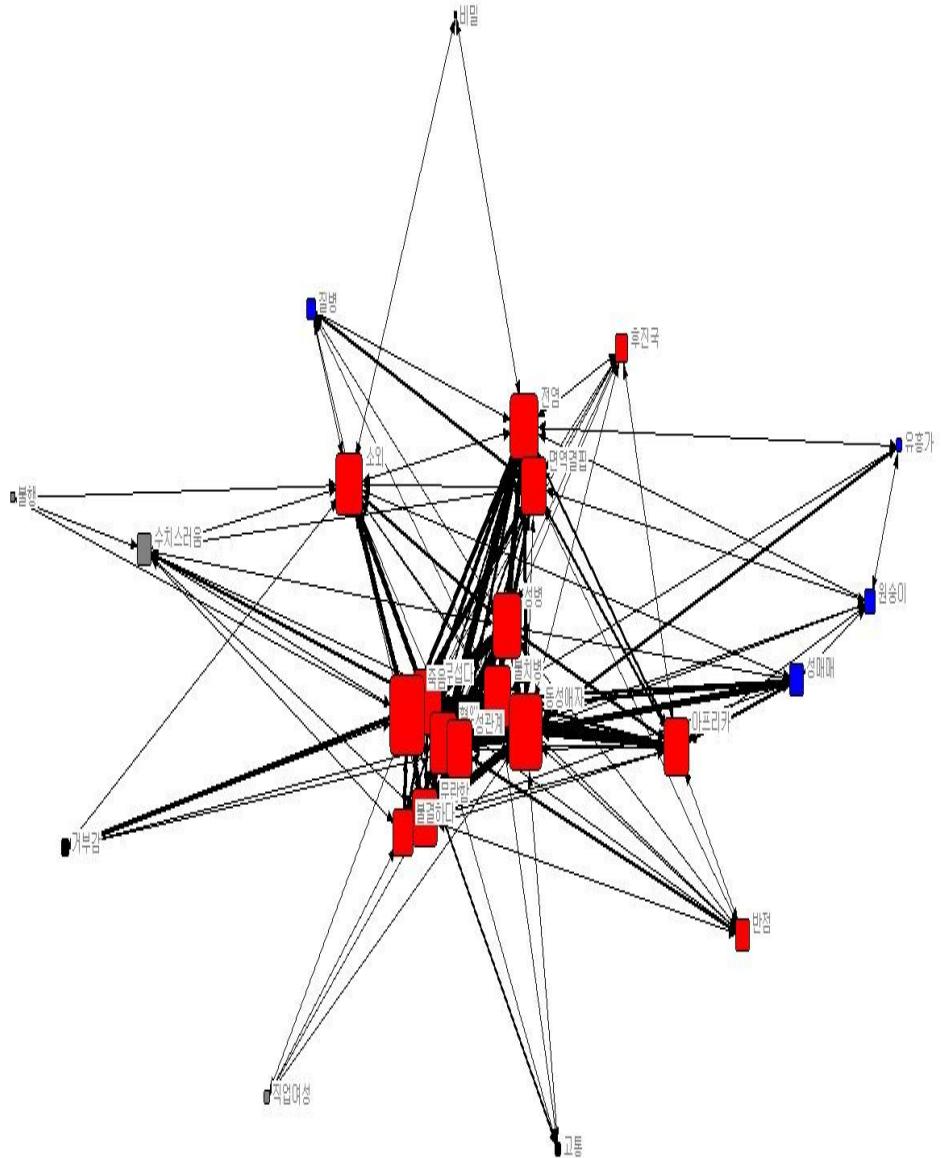
이러한 분석을 통해 특정 단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인식 체계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광고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논의할 때, ‘광고태도’, ‘구매의도’ 등의 단어는 함께 언급될 가능성은 높지만, ‘방송의 공영성’, ‘방송의 보편성’ 등과 함께 언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분석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 연결망 분석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사각형 모양 사이의 거리(혹은 위치)는 다른 개념과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중앙에 놓이며, 두 개념 사이에 관계가 강할수록 가깝게 위치한다. 따라서 동시출현빈도가 높은 개념일수록 중앙에 위치하며, 이것과 관련이 강할수록 가까이에 위치하게 된다. 둘째, 시각화되어 있는 사각형 모양의 크기는 각각의 개념 사이의 연결에 있어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해있느냐를 표현하고 있다. 즉, 사각형의 크기가 클수록 다른 개념들과 비교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셋째, 선의 굵기는 각 개념들 사이에 연결이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져있는지를 의미한다. 각 연결선 사이의 굵기가 굵을수록 각 개념들 사이의 연결이 강하게 이루어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각형 모양의 색깔은 각 개념들의 유사집단(cluster)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색깔로 표현된 개념은 서로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5>에서 제시된 25개의 주요 연상 단어를 대상으로 언어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에이즈에 대해서 연상되는 단어 사이의 관계는 중앙에 위치한 ‘성관계, 혈액, 죽음, 무섭다, 불치병, 동성애자, 성병, 불결하다, 문란함’ 등의 단어 사이의 연결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에이즈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연상하는 사람은 동성애자, 불치병, 죽음, 무섭다 등의 단어들을 동시에 언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죽음, 성관계, 문란함, 불결하다, 불치병, 동성애자, 성병 등의 단어들 사이의 연결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단어들은 에이즈와 관련해

² Popping, R.(2000).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Sage.

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에이즈 연상 단어에 대한 연결망 분석

(2) 에이즈에 대한 연상 단어(2008년~2012년)

에이즈에 대한 주요 연상 단어의 추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된 에이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연상 단어들의 범주를 구분하여 각각의 응답 비율을 비교·검토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먼저, 에이즈에 대한 ‘공포’(30.8%)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전 연도와 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성’(18.1%)과 관련하여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조사 결과에서는 ‘불결/부도덕’(15.4%)과 같은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질병’(12.8%)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불결/부도덕’(13.6%)과 관련된 내용 보다 더 높은 비율로 연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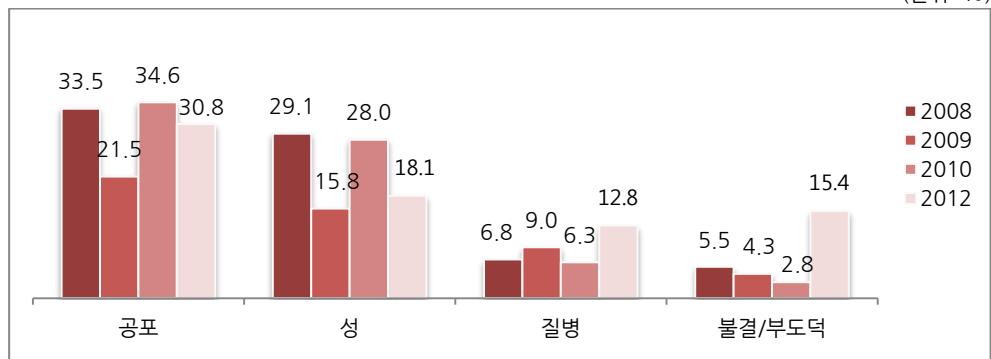
그 외에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연민’(3.6%)을 나타내는 단어 또한 이전 연도에 비해서 높게 연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즈 감염이 죄악이 된다는 연상의 비율은 0.6%로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이즈도 치료가 가능하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과 관련된 단어들의 경우 0.9%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불결/부도덕’과 관련된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점, 이전 연도의 연상 단어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에이즈 감염인의 부정적인 삶’(1.3%)과 관련된 단어들이 2012년 조사에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에이즈 감염인의 삶에 대한 모습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다소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단순히 우리 사회 내에서 에이즈 감염인을 거부하는 차별 보다 에이즈 감염인,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긍정적인 의미의 ‘연민’이 아닌 부정적 측면에서의 ‘연민’의 감정 또한 자리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0년 조사 결과에서는 에이즈 ‘예방’(4.4%)과 관련된 연상이 이전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12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에이즈 캠페인이 ‘예방’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에이즈 감염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에 더욱 집중한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6> 에이즈 연상단어 변화 추이(2008년~2012년)

표상	연상단어	2008	2009	2010	2012
공포	죽음/사망, 불치병, 무섭다, 두렵다, 공포, 불안하다,	33.5	21.5	34.6	30.8
성	성병, 성관계, 동성애자	29.1	15.8	28.0	18.1
질병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붉은 반점, 부스럼, 피부병	6.8	9.0	6.3	12.8
불결/ 부도덕	문란한 성관계, 불결하다, 창녀, 불쾌하다, 격리, 수치심, 부끄럽다, 거부감, 비난, 소외	5.5	4.3	2.8	15.4
감염 경로	수혈, 아프리카, 바이러스, 원숭이, 주사기, 매춘, 사창가, 유흥가	4.5	1.8	6.7	13.6
죄악	죄인, 좋지 않다, 신의 저주, 20 세기 형벌,	0.8	1.8	0.9	0.6
예방	콘돔, 예방관리 부족, 피임/조심, 위생, 보건소에서 관리, 병원	1.0	0.6	4.4	0.4
연민	불쌍하다, 연약하다, 힘들다/걱정 된다. 비참하다, 외롭다, 절망/좌절	0.4	0.4	0.4	3.6
치료	일상 생활이 가능/ 치료가능, 치료약 개발, 누구나 걸릴 수 있음	0.2	0.3	0.2	0.9
부정적 삶	수명이 짧다, 수혈거부, 살이 빠짐, 삶을 포기함, 빈곤/가난, 가족의 불행, 자유롭지 못함	-	-	-	1.3

(단위: %)



<그림 3> 에이즈 연상단어 변화 추이(2008년~2012년)

3) 에이즈에 대한 지식

(1) 에이즈 지식 수준

이번 2012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결과, 일반인 응답자들은 ‘에이즈 감염인과 악수를 하는 것 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86.8%),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에이즈 감염인일 수 있다’(87.4%), ‘성관계를 할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86.3%), ‘에이즈 감염인과 포옹을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85.9%),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한 명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80.8%) 등 의 문항에서 높은 지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기에 물리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의 경우 43.4%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오답률 또한 38.5%를 나타내며 상당부분 잘못 인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과 키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의 경우도 61.1%의 응답자가 정답을, 25.5%의 응답자들이 오답을 답함에 따라 오답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에이즈는 제대로 치료하면 2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의 경우 정답률이 60.5%, 오답률이 15.1%, 모르겠음이 24.4%로 나타나 에이즈의 치료 효과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에이즈 지식관련 문항별 정답률

(Base: 1,000명)

문 항 ³	정답	빈도(%)		
		정답	오답	모르겠음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에이즈 감염인 일 수 있다	O	874 87.4	68 6.8	58 5.8
에이즈는 제대로 치료하면 2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O	605 60.5	151 15.1	244 24.4
성관계를 할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O	863 86.3	83 8.3	54 5.4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한 명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O	808 80.8	136 13.6	56 5.6
에이즈 감염인과 키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X	611 61.1	255 25.5	134 13.4
에이즈 감염인과 변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X	687 68.7	156 15.6	157 15.7
에이즈 감염인과 약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X	868 86.8	61 6.1	71 7.1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X	726 72.6	134 13.4	140 14.0
모기에 물리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X	434 43.4	385 38.5	181 18.1
에이즈 감염인과 포옹을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X	859 85.9	71 7.1	70 7.0
에이즈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한 아이도 감염될 수 있다	O	804 80.4	108 10.8	88 8.8

³ 건강한 고정 상대자 한 사람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건강해 보일 수 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에이즈 감염인을 문 모기에 물리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등 다섯 항목은 HIV감염에 관한 필수적인 사실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UNAIDS에서 권고하는 항목들이다.

다음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 11문항 중 응답자들이 몇 문항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답을 맞춘 문항 수에 따라 응답 빈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9문항을 맞춘 응답자들이 200명(2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0개(19.3%), 8개(15.4%)의 순서를 보였다. 11문항 중 절반 정도의 문항을 맞춘 이들이 전체의 9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11개의 문항을 모두 맞춘 응답자들은 12.3%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1개의 문항을 모두 맞추지 못한 응답자들은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UNAIDS에서 권고하는 에이즈에 관한 5개의 기초 지식 측정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살펴본 결과, 5문항을 모두 맞춘 이들은 271명(27.1%), 4문항을 맞춘 이들은 342명(34.2%), 3문항을 맞춘 이들은 246명(24.6%), 2문항 108명(10.8%), 1문항 28명(2.8%)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하나도 맞추지 못한 이들은 5명(0.5%)로 각각 나타났다.

〈표 8〉 에이즈에 대한 지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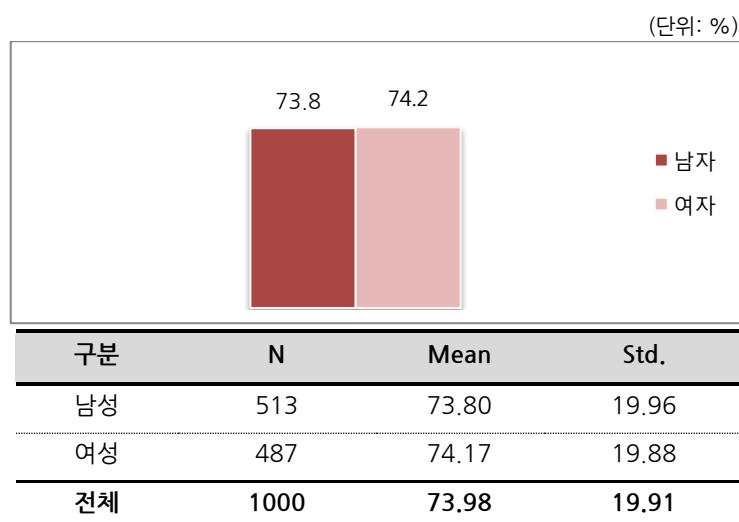
(Base: 1,000명)

지식문항 정답수	사례수(명)	퍼센트(%)
11	123	12.3
10	193	19.3
9	200	20.0
8	154	15.4
7	102	10.2
6	96	9.6
5	62	6.2
4	38	3.8
3	16	1.6
2	10	1.0
1	4	0.4
0	2	0.2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 지식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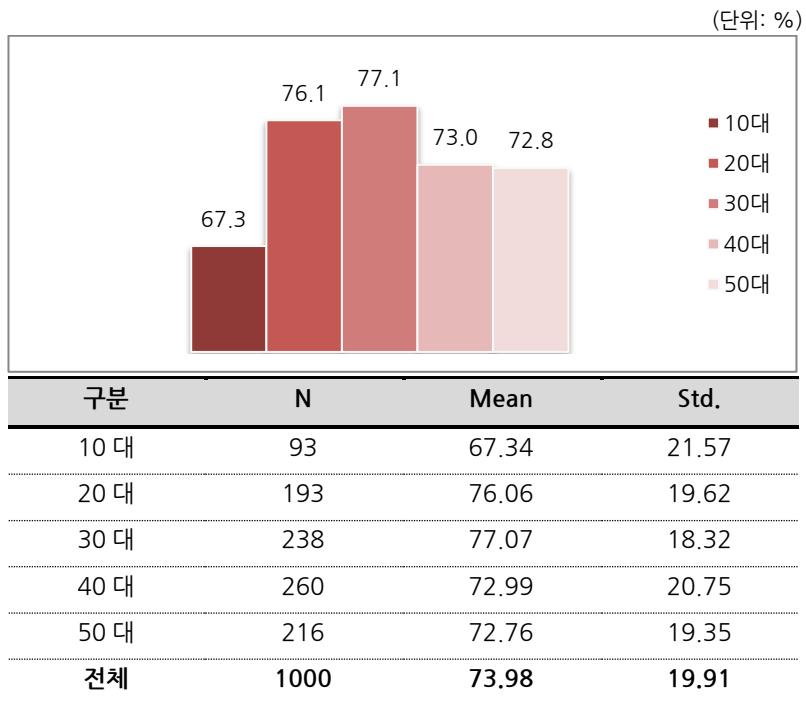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 지식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총 11개로 구성된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 측정 문항 각각에 대한 응답자들의 정답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표 9>와 같이 그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별로 정답인 경우는 1, 오답 및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는 0으로 변환하여 그 점수에 9.09점을 곱하여 총 11문항에 대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M=73.80$, $SD=19.96$)보다 여성($M=74.17$, $SD=19.88$)의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97$,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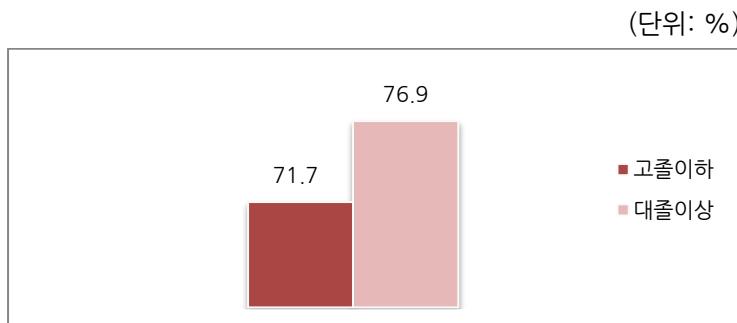
<그림 4>, <표 9> 성별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

다음으로, 연령대 별 에이즈 지식수준을 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지식수준이 점차 높아지다가 40대부터 50대에는 지식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983$, $p<.001$). 구체적으로 10대는 20대($p<.05$), 30대($p<.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표 10> 연령대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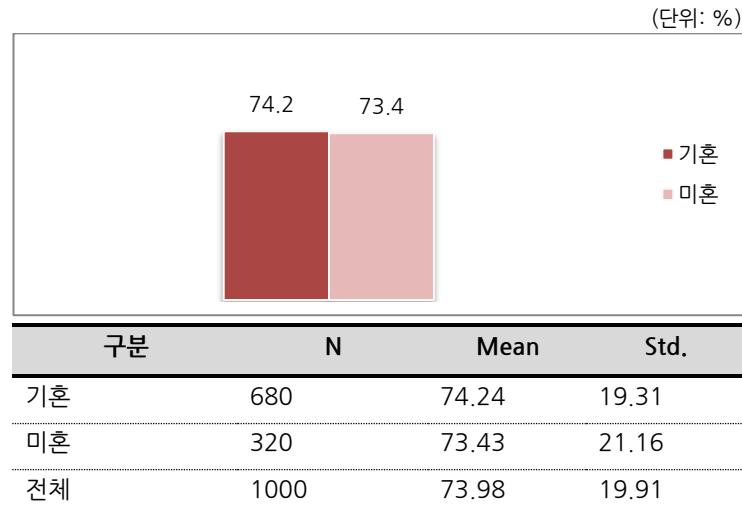
다음으로 학력수준에 따른 에이즈 지식수준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지식수준($M=76.88$, $SD=18.66$)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지식수준($M=71.71$, $SD=20.57$)보다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152$, $p<.001$).



구분	N	Mean	Std.
고졸 이하	561	71.71	20.57
대졸 이상	439	76.88	18.66
전체	1000	73.98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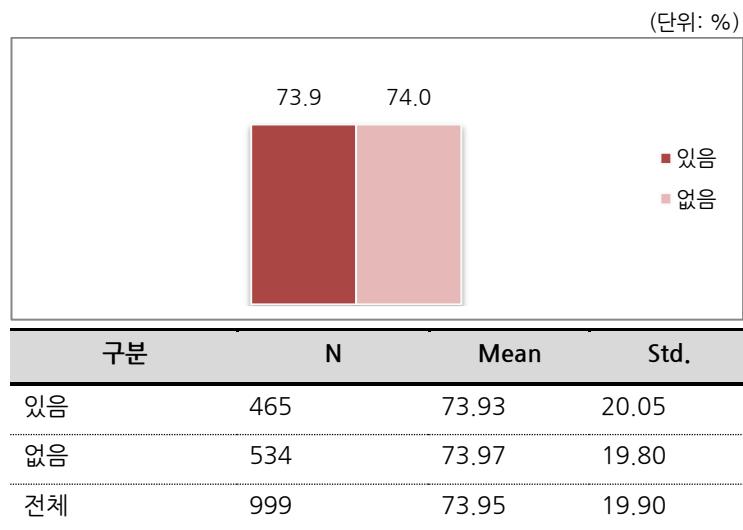
<그림 6>, <표 11> 학력수준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

다음으로 혼인여부에 따른 에이즈 지식수준을 살펴보면 기혼($M=74.24$, $SD=19.31$)과 미혼($M=73.43$, $SD=21.16$)의 지식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603$, $p>.05$)



<그림 7>, <표 12> 혼인여부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

마지막으로 종교유무에 따른 에이즈 지식수준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응답자($M=73.93$, $SD=20.05$)와 종교가 없는 응답자($M=73.97$, $SD=19.80$)의 지식수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038$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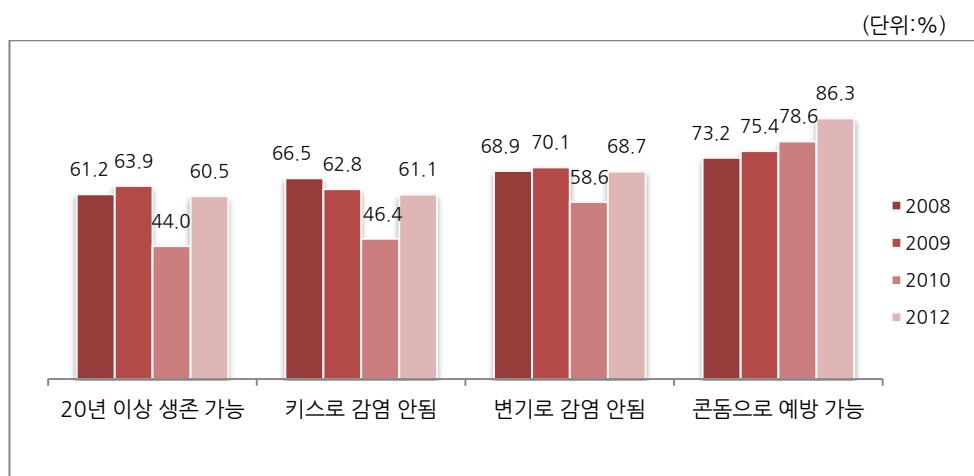


<그림 8>, <표 13> 종교유무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

(3)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의 변화(2008년~2012년)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존에 조사된 설문 문항 중 동일한 내용으로 측정된 4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지식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관계를 할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의 경우만 전년도 대비 지식 수준이 높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 2009 조사에서의 응답결과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년 이상 생존', '키스로 감염', '변기 사용으로 인한 감염'의 경우에는 모두 2010년 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 2009 조사에서의 응답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2008, 2009 년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인들의 '에이즈 예방법' 관련한 지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콘돔 사용에 따른 에이즈 예방'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과 관련된 지식의 경우 최근 실시된 '에이즈 바로 알기' 캠페인의 전개로 인해 2010년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나, 2008, 2009년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표 14〉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의 변화(2008년~2012년)

〈표 14〉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의 변화(2008년~2012년)

항목	(단위:%)			
	2008 (N=1,200)	2009 (N=1,200)	2010 (N=500)	2012 (N=1000)
에이즈는 제대로 치료하면 2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61.2	63.9	44.0	60.5
에이즈 감염인과 키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66.5	62.8	46.4	61.1
에이즈 감염인과 변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68.9	70.1	58.6	68.7
성관계를 할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73.2	75.4	78.6	86.3

(4) 국가별 에이즈에 대한 지식 관련 문항 정답률

국가별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묻는 UNAIDS 권고 질문들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국가별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함에 있어 UNAIDS에 보고되는 에이즈 현황 자료들을 통해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되나, UNAIDS에 보고되는 자료들이 대개 감시 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AIDS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수행된 조사 자료들을 통해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 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메이카와 한국이 각각 86.6%, 86.3%의 정답률을 보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모기에 물리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의 경우 영국이 72%로, 중국과 한국은 각각 44.5%, 43.4%로 나타났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의 경우 영국은 98%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 중국과 한국은 각각 78.8%와 72.6%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한 지식의 경우 선진국일수록 더욱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국가별 에이즈 지식 수준

(단위:%)

항목	영국 ⁴ (2010)	중국 ⁵ (2008)	자메이카 ⁶ (2012)	한국 (2012)
	1,944	6,382	1,800	1,000
성관계를 할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80.0	-	86.6	86.3
모기에 물리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72.0	44.5	14.3	43.4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98.0	78.8	8.9	72.6

⁴ HIV: Public Knowledge and Attitudes, 2010

⁵ AIDS-Related Knowledge, Attitudes, Behavior, and Practices: A Survey of 6 Chinese Cities

⁶ 2012 HIV/AID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Survey, Jameica

4) 에이즈에 대한 태도

(1) 에이즈에 대한 낙인

본 조사에서는 2010년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에서 실시되었던 '에이즈 낙인' 척도를 재검증 함으로써 해당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10년 조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역코딩 문항들의 워딩을 수정하되 문항의 맥락은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함으로써 2010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에이즈 낙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변인들의 측정 항목과 각 항목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6>과 같다.

먼저, 본 조사에서 측정한 각 구성변인들의 평균 점수는 사회적 낙인 ($M=3.78, SD=0.55$), 부정적 태도($M=3.58, SD=0.80$), 감염에 대한 두려움 ($M=3.56, SD=0.79$), 개인적 낙인($M=3.47, SD=0.78$)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에이즈 감염인을 평가함에 있어 자신의 견해가 아닌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 사회의 정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차별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에이즈 감염인을 거부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에이즈에 감염된다는 것이 개인의 잘못된 성 생활에서 기인된 것인 만큼 그들 스스로 그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즈 감염인과의 간단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다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에이즈에 대한 낙인 인식의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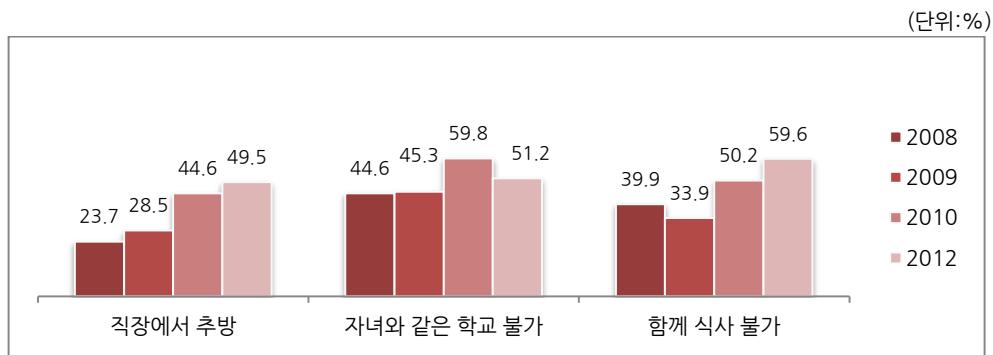
항목	N	Mean	Std.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	1000	3.56	0.79
에이즈 감염인과 포옹하는 것이 두렵다	1000	3.44	0.93
에이즈 감염인과 악수하는 것이 두렵다	1000	3.28	1.03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두렵다	1000	3.68	0.96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물잔을 사용하는 것이 두렵다	1000	3.90	0.91
에이즈 감염인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	1000	3.29	1.00
에이즈 감염인을 둘보는 것이 두렵다	1000	3.78	0.93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태도	1000	3.58	0.80
에이즈에 걸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형벌이다	1000	3.33	1.09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1000	3.32	1.06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감염되었다	1000	3.52	1.00
에이즈 감염인들은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1000	3.71	1.00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성매매를 통해 감염되었다	1000	3.78	0.92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원인이 된다	1000	3.79	0.92
개인적 낙인	1000	3.47	0.78
같은 동네에 에이즈 감염인이 있다면,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기 힘들 것이다	1000	3.55	0.89
자녀가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해당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	1000	3.39	0.93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직장에 다닐 경우, 회사에서 그 감염인을 해고시키길 원한다	1000	3.32	0.94
같은 병원, 같은 층에 에이즈 환자가 입원해있다면 그 병동에 원하지 않을 것이다	1000	3.52	0.99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1000	3.57	0.89
사회적 낙인	1000	3.78	0.55

항목	N	Mean	Std.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즈 감염인들이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1000	3.93	0.66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즈 감염인들이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1000	3.73	0.88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즈 감염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언어적 모욕이나 경멸을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1000	3.81	0.81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즈 감염인들과 같은 직장에 다닐 경우, 회사에서 그 감염인을 해고시키길 원할 것이다	1000	3.81	0.76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병원, 같은 층에 에이즈 환자가 입원해 있다면 그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것이다	1000	3.77	0.80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즈 감염인들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1000	3.53	0.87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해 할 것이다	1000	3.84	0.71

(2) 에이즈에 대한 낙인 인식의 변화(2008년~2012년)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의 에이즈에 대한 낙인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5년 동안 조사된 설문 문항 중 동일한 내용으로 측정된 3개의 문항을 토대로 낙인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12년 조사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이 같은 직장에 있다면, 사표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의 두 문항에서 2010년 보다 높은 낙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OO님의 자녀가 학생이라면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2012년 조사 결과,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2010년 조사 결과 대비 9.4% 높아진 59.6%의 응답자들이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200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낙인 인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해를 거듭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에이즈에 대한 낙인 인식의 변화(2008년~2012년)

(3) 에이즈 낙인 척도 검증

일반인들의 에이즈에 대한 낙인 인식을 측정하기에 앞서, 본 조사에서 제안하는 '에이즈 낙인'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구성 개념인 (1)감염에 대한 두려움, (2)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3)개인적 낙인, (4)사회적 낙인이 가진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 20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설정한 에이즈에 대한 낙인 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중적합도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GFI(Goodness of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활용하여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SRMR=.043, GFI=.864, TLI=.896, CFI=.907, RMSEA=.073).

〈표 17〉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평가

적합도 지수	허용수준	연구모형	연구자 판단
χ^2		1570.73	
df	-	246	-
p		.001	
CFI	.90 이상	.907	우수
TLI(NNFI)	.90 이상	.896	양호
SRMR	.08 이하	.043	우수
RMSEA	.08 이하	.073	양호

한편,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크롬바흐 알파 (Cronbach's Alpha)계수를 통해 각 변인들을 측정한 세부 항목들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각 변인들의 크롬바흐 알파 계수는 .82에서 .90까지로 적절하게 나타나 본 조사에서 설정 에이즈 낙인 구성 요인들의 신뢰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위와 같은 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낙인 측정 문항들이 4가지의 차원으로 구분이 되고, 또 각각의 차원들이 ‘낙인’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비교적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사에서 설정한 4가지 차원을 가지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낙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18〉 에이즈 낙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차원	항목	요인적재치1	표준오차	Cronbach's Alpha
요인1	감염에 대한 두려움1	.852	.049	.902
	감염에 대한 두려움2	.841	.054	
	감염에 대한 두려움3	.783	.051	
	감염에 대한 두려움4	.722	.048	
	감염에 대한 두려움5	.773	.052	
	감염에 대한 두려움6	.697		
요인2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1	.777		.888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2	.835	.037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3	.825	.035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4	.796	.035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5	.717	.033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6	.574	.034	
요인3	개인적 낙인 인식1	.791	.042	.896
	개인적 낙인 인식2	.821	.043	
	개인적 낙인 인식3	.816	.044	
	개인적 낙인 인식4	.810	.047	
요인4	개인적 낙인 인식5	.747		.824
	사회적 낙인 인식1	.603		
	사회적 낙인 인식2	.629	.087	
	사회적 낙인 인식3	.568	.078	
	사회적 낙인 인식4	.689	.077	
	사회적 낙인 인식5	.701	.082	
	사회적 낙인 인식6	.534	.083	
모형적합도	사회적 낙인 인식7	.743	.073	
		SRMR=.052, GFI=.864, TLI=.896, CFI=.907, RMSEA=.073		

¹ 표준화된 추정치임

(4) 에이즈 낙인 인덱스

본 조사 응답자들의 에이즈 낙인 수준을 평가하고 에이즈 낙인 인식 측정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 설정을 위해 에이즈 낙인을 구성하는 4개 차원을 각각 인덱스화 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앞서 실시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항목들의 표준화 계수들을 합산한 후 이를 1로 환산하여 표준화하였다. 그리고 각 하위항목 값에 가중치를 둔 후, 이들 점수를 <표 19>와 같이 합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덱스 값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의 인덱스 산출을 위해 해당 요인을 구성하는 6개 항목들의 표준화계수를 전부 더하여 총점(4.67)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그 총점을 1로 환산하여 이에 대한 각 항목의 가중치를 구하였다. 또한 각 항목의 점수들은 다시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하기 위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은 0으로, 2점(그렇지 않다)은 25로, 3점(보통이다)은 50으로, 4점(그렇다)은 75로, 5점(매우 그렇다)는 100으로 리코딩하는 작업을 거쳐 마지막으로 100점으로 환산한 6개의 항목들의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모두 더하여 감염에 대한 두려움의 최종 인덱스를 산출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3개의 변인들 또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인덱스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0>에 나타나 있다.

인덱스 산출을 통해 환산된 최종 낙인 점수를 살펴보면,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식이 가장 높은 것($M=69.52$, $SD=13.79$)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M=64.06$, $SD=20.04$),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M=63.70$, $SD=19.74$), 개인적 낙인($M=61.70$, $SD=19.48$)의 순서로 각각 나타났다. 각 낙인 차원 점수들의 전체 평균은 64.75점, 표준편차는 15.21로 나타났다.

〈표 19〉 에이즈 낙인을 구성하는 각 차원의 인덱스

차원	항목	표준화계수	표준화된 가중값	인덱스값 ¹
감염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1	0.85	0.18	(두려움1×0.18)
	두려움2	0.84	0.18	(두려움2×0.18)
	두려움3	0.78	0.17	(두려움3×0.17)
	두려움4	0.72	0.15	(두려움4×0.15)
	두려움5	0.77	0.17	(두려움5×0.17)
	두려움6	0.70	0.15	(두려움6×0.15)
총합		4.67	1.00	A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정1	0.78	0.17	(부정1×0.17)
	부정2	0.84	0.18	(부정2×0.18)
	부정3	0.83	0.18	(부정3×0.18)
	부정4	0.80	0.18	(부정4×0.18)
	부정5	0.72	0.16	(부정5×0.16)
	부정6	0.57	0.13	(부정6×0.13)
총합		4.52	1.00	B
개인적 낙인 인식	개인1	0.79	0.20	(개인1×0.20)
	개인2	0.82	0.21	(개인2×0.21)
	개인3	0.82	0.20	(개인3×0.20)
	개인4	0.81	0.20	(개인4×0.20)
	개인5	0.75	0.19	(개인5×0.19)
	총합	3.99	1.00	C
사회적 낙인 인식	사회1	0.60	0.13	(사회1×0.13)
	사회2	0.63	0.14	(사회2×0.14)
	사회3	0.57	0.13	(사회3×0.13)
	사회4	0.69	0.15	(사회4×0.15)
	사회5	0.70	0.16	(사회5×0.16)
	사회6	0.53	0.12	(사회6×0.12)
사회7		0.74	0.17	(사회7×0.17)
총합		4.47	1.00	D

¹ 인덱스 값을 산출하기 위한 식에 포함된 각 항목들은 5점 척도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1→0, 2→25, 3→50, 4→75, 5→100)

A: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인덱스 값 B: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인덱스 값

C: 개인적 낙인 인식 인덱스 값 D: 사회적 낙인 인식 인덱스 값

〈표 20〉 에이즈 낙인 최종 인덱스

항 목	평균(Mean)	표준편차(SD)
감염에 대한 두려움	63.70	19.74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64.06	20.24
개인적 낙인 인식	61.70	19.48
사회적 낙인 인식	69.52	13.79
전체	64.75	1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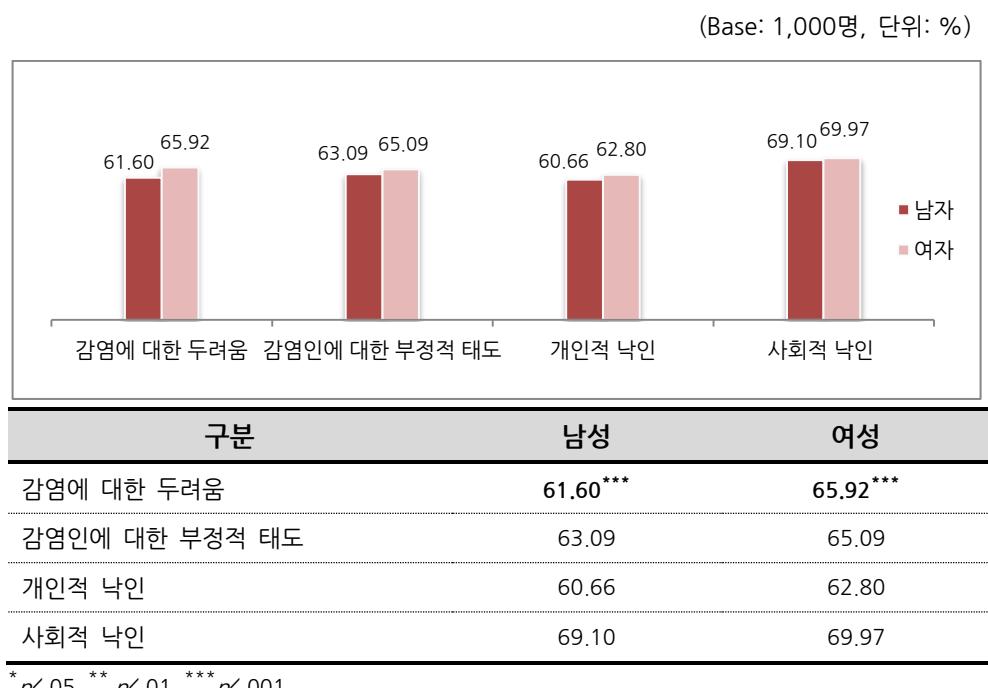
한편, 2010년의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에이즈 낙인 인식 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구체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낙인 인식 수준은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차원 별로 인식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일부 항목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2010년 보다 낮아진 반면(Mean Difference = -1.78, $p<.01$),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경우 2010년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Mean Difference = 2.81, $p<.001$), 사회적 낙인의 경우도 201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ean Difference = 1.46, $p<.001$). 그러나, 개인적 낙인의 경우는 2010년의 점수와 2012년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ean difference = -0.12, $p>.0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12년 현재 응답자들은 에이즈 감염인의 성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사회 내에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더욱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21〉 에이즈 낙인 최종 인덱스(2010년~2012년)

항 목	2010년	2012년
감염에 대한 두려움	65.49	63.70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61.26	64.06
개인적 낙인 인식	61.83	61.70
사회적 낙인 인식	68.06	69.52
전체	64.16	64.75

(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 낙인 인식

먼저, 성별에 따른 에이즈 낙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낙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남성(M=61.60)과 여성(M=65.92)간의 낙인 인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48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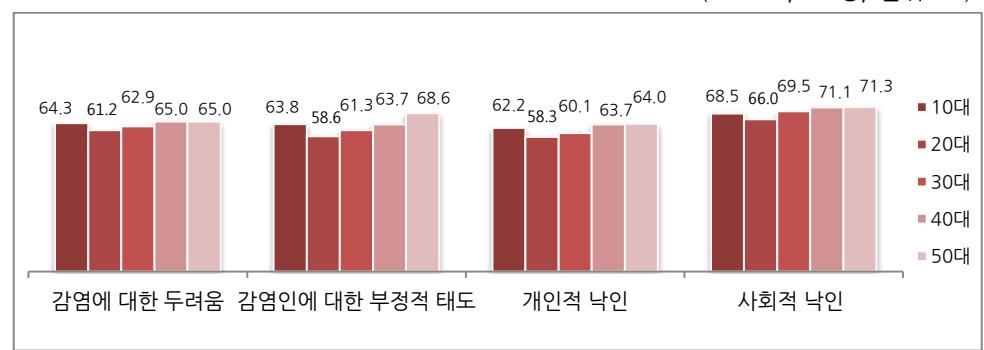
<그림 11>, <표 22> 성별에 따른 에이즈 낙인의 차이

다음으로, 연령대에 따른 에이즈 낙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20대부터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낙인 수준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3가지 요인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F=8.951$, $p<.001$)의 경우 20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가운데, Scheffe's post-hoc test 결과 20대와 40대($p<.001$), 20대와 50대

($p<.001$)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낙인의 경우 ($F=3.385$, $p<.05$)도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낮은 낙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 1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서로 각각 높은 낙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증 결과 각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낙인($F=5.151$, $p<.001$)의 경우 역시 20대가 가장 낮은 낙인 인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40대($p<.05$), 20대와 50대($p<.05$)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별 에이즈에 대한 낙인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대나 30대 보다도 10대의 에이즈에 대한 낙인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에 대한 지식이 체계화 되지 않은 10대들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낙인 인식 수준이 다른 젊은 층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Base: 1,00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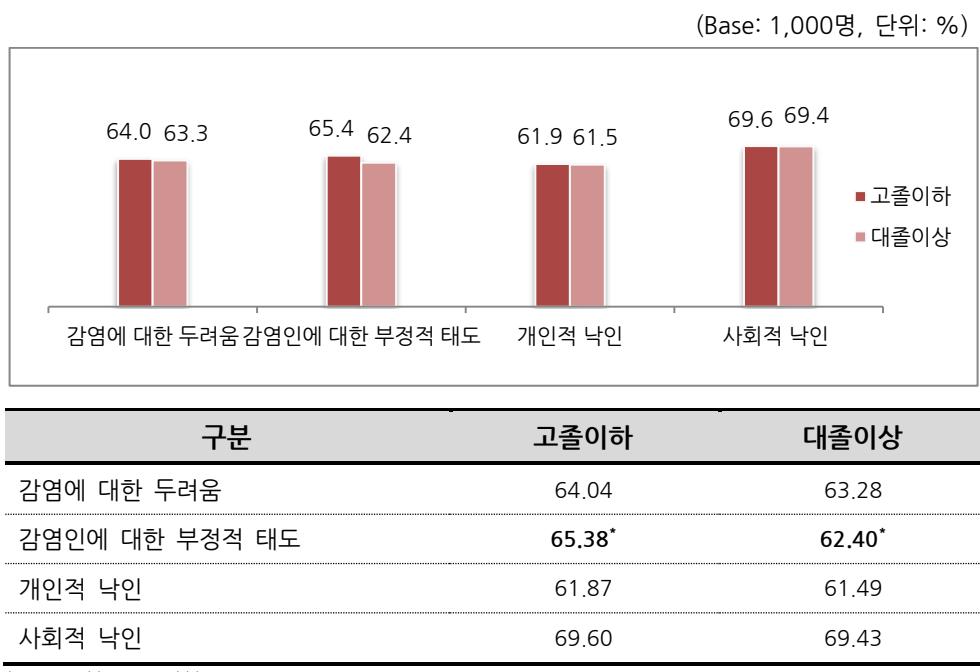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감염에 대한 두려움	64.31	61.24	62.93	64.99	64.96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63.83***	58.60***	61.31***	66.95***	68.62***
개인적 낙인	62.16**	58.28**	60.05**	63.70**	63.99**
사회적 낙인	68.51***	65.97***	69.46***	71.14***	71.25***

* $p<.05$, ** $p<.01$, *** $p<.001$

<그림 12>, <표 23> 연령대에 따른 에이즈 낙인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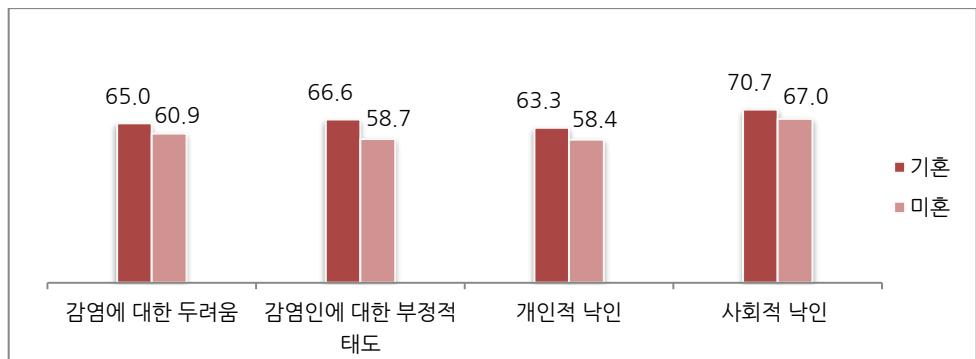
학력 수준에 따른 에이즈 낙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있어서만 학력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315$, $p<.05$). 구체적으로, 고졸 이하($M=65.38$)의 응답자들이 대졸 이상($M=62.40$)의 응답자들에 비해 더욱 에이즈 감염인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표 24> 학력에 따른 에이즈 낙인의 차이

혼인 여부에 따른 에이즈 낙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기혼자들의 낙인 수준이 미혼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t=-3.081$, $p<.01$),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t=-5.826$, $p<.001$), 개인적 낙인($t=-3.699$, $p<.001$), 사회적 낙인($t=-.081$,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e: 1,00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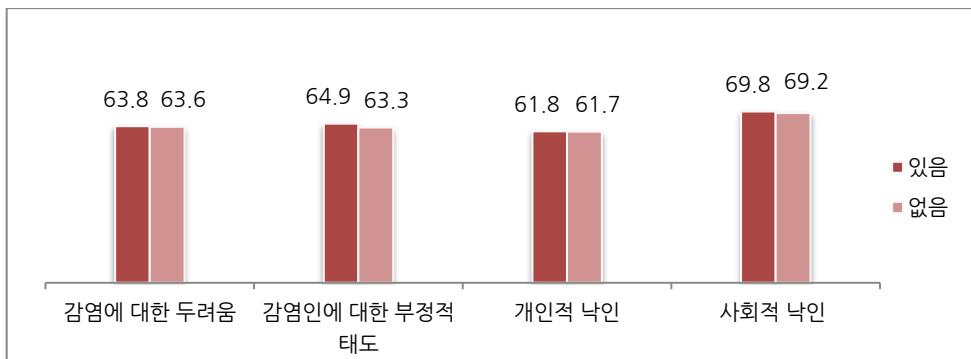
구분	기혼	미혼
감염에 대한 두려움	65.02**	60.91**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66.58***	58.72***
개인적 낙인	63.26***	58.40***
사회적 낙인	70.73***	66.9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4>, <표 25> 혼인여부에 따른 에이즈 낙인의 차이

마지막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에이즈 낙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t=-.180$, $p > .05$),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t=-1.235$, $p > .05$), 개인적 낙인($t=-.089$, $p > .05$), 사회적 낙인($t=-.672$, $p > .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e: 999명,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감염에 대한 두려움	63.82	63.59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64.92	63.33
개인적 낙인	61.76	61.65
사회적 낙인	69.83	69.24

<그림 15>, <표 26> 종교유무에 따른 에이즈 낙인의 차이

(6)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 및 감염 시 대처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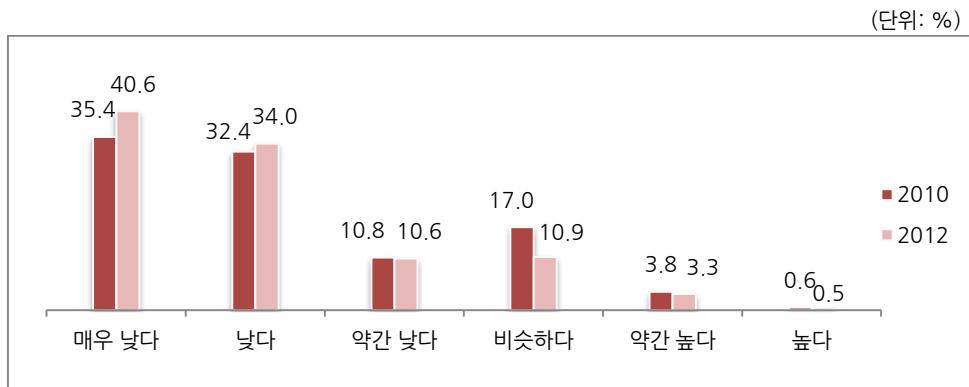
가. 에이즈 감염에 대한 낙관적 편견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 및 감염 후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림 16>의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매우 낫다'가 40.6%, '낫다'가 34.0%, '약간 낫다' 10.6%로, '비슷하다' 10.9%, '약간 높다' 3.3%, '높다' 0.5%, '매우 높다' 0.0%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중 85%이상이 에이즈 감염 개연성에 대해 스스로 낫게 평가하는 낙관적 편견(unrealistic optimism)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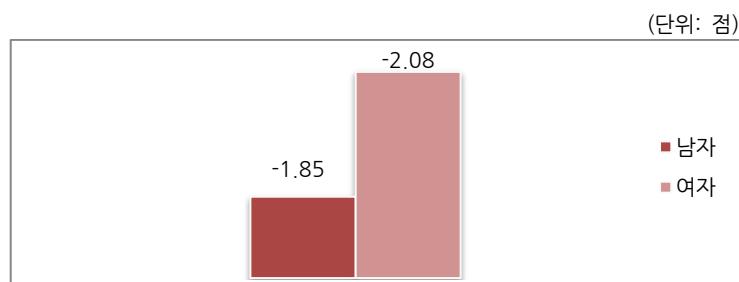
<그림 16>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

다음으로, 2010년 조사 결과와 2012년 조사 결과의 비교를 통해 일반인들의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 인식 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0년($M=-1.77$)에 비해 에이즈 감염이 대한 낙관적 편견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ean Difference = -.192, $p<.001$). 구체적으로, 자신의 에이즈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낫다'고 응답한 이들은 2010년 35.4%에서 2012년 40.6%로 증가하였으며, '낫다'고 응답한 이들은 2010년 32.4%에서 2012년 34.0%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에이즈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 '약간 낫다'고 응답한 이들은 2010년 10.8%였으나 2012년에는 10.6%로, '비슷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2010년 17.0%에서 2012년 10.9%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에이즈 감염에 대한 낙관적 편견(2010년~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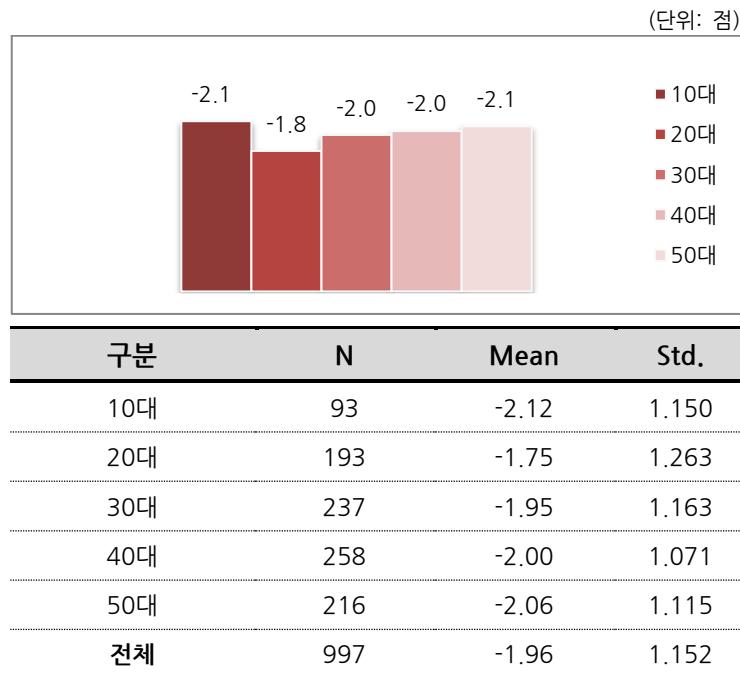
다음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에 대한 개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 〈표 27〉에서와 같이 성별, 연령대, 종교유무에 따른 개연성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에이즈 감염 확률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더 낮은 낙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t=-3.066$, $p=.002$).



구분	N	Mean	Std.
남성	511	-1.85	1.185
여성	486	-2.08	1.107
전체	997	-1.96	1.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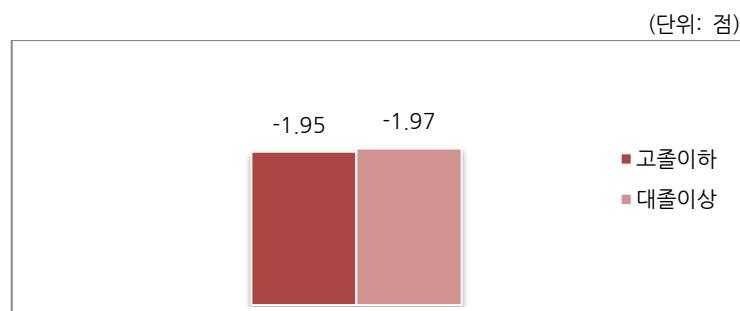
〈그림 18〉, 〈표 27〉 성별에 따른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 차이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1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의 낙관적 편견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M=-2.12$, $SD=1.150$), 그 외 다른 연령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낙관적 편견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F=2.475$, $p=.043$).



〈그림 19〉 〈표 28〉 연령대에 따른 낙관적 편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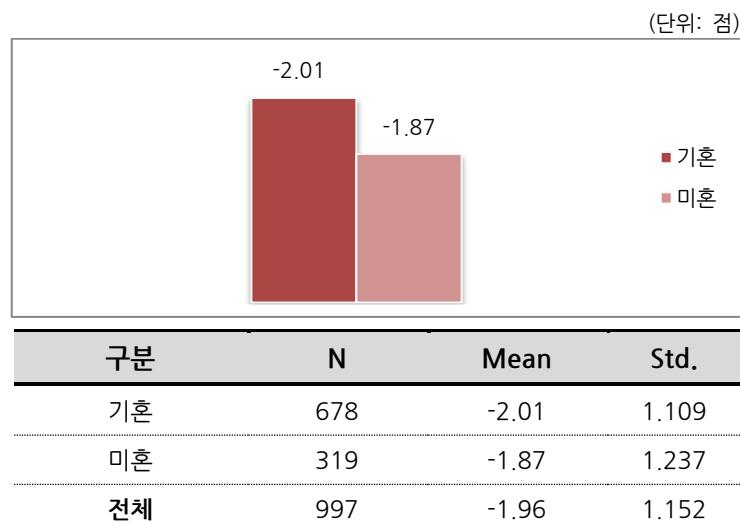
학력 수준에 따른 낙관적 편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응답자들($M=-1.97, SD=1.088$)이 고졸 이하 응답자들($M=-1.95, SD=1.2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낙관적 편견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수의 차이가 거의 미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58, p>.05$)



구분	N	Mean	Std.
고졸이하	560	-1.95	1.201
대졸이상	437	-1.97	1.088
전체	997	-1.96	1.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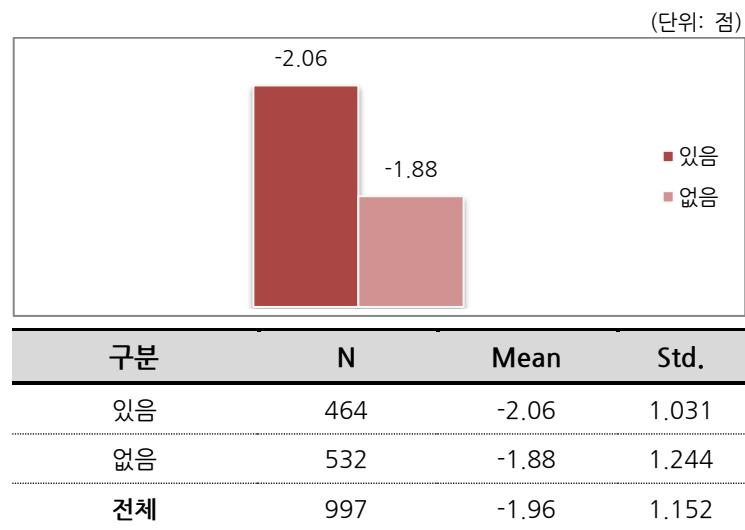
<그림 20> <표 29> 학력수준에 따른 낙관적 편견 차이

혼인 여부에 따른 낙관적 편견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혼($M=-2.01$, $SD=1.109$) 응답자들이 미혼($M=-1.87$, $SD=1.237$)인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낙관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760$, $p>.05$).



<그림 21>, <표 30> 혼인여부에 따른 낙관적 편견 차이

마지막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낙관적 편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교를 가진 응답자들이($M=-2.06$, $SD=1.031$)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M=-1.88$, $SD=1.2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낙관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525$,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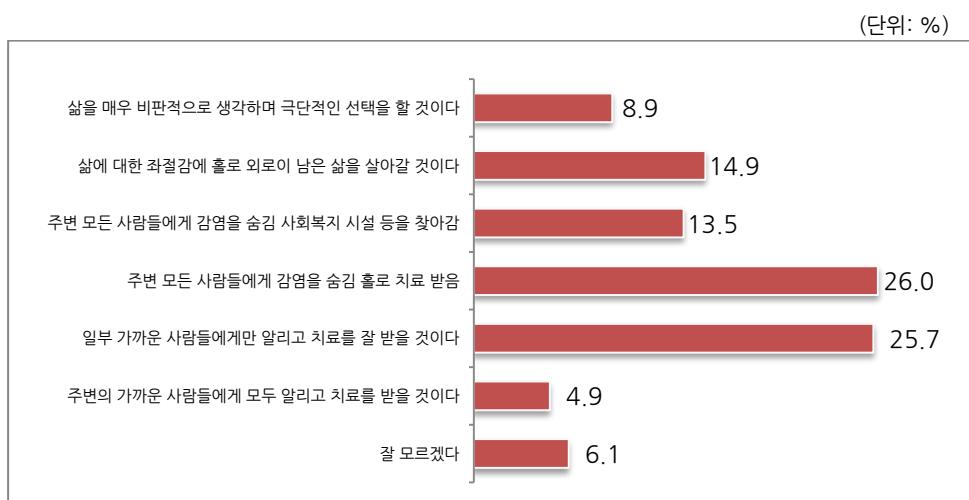


<그림 22>, <표 31> 종교유무에 따른 낙관적 편견 차이

나. 에이즈 감염 시 대처 행동

본 조사의 응답자들에게 만약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2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 사실을 숨기고 홀로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26.0%).' '일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치료를 잘 받을 것이다(25.7%).', '삶에 대한 좌절감에 사로잡혀 홀로 외로이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14.9%).',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을 숨기고 사회복지 시설 등을 찾아갈 것이다(13.5%).', '삶을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8.9%).', '잘 모르겠다(6.1%).',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고 치료를 받을 것이다(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조사의 응답자들 중 40%가량의 응답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염 사실을 숨기고 홀로 치료를 받거나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갈 것이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 가량은 자신의 삶을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 60%의 응답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때 감염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직 30%가량의 응답자들만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때 감염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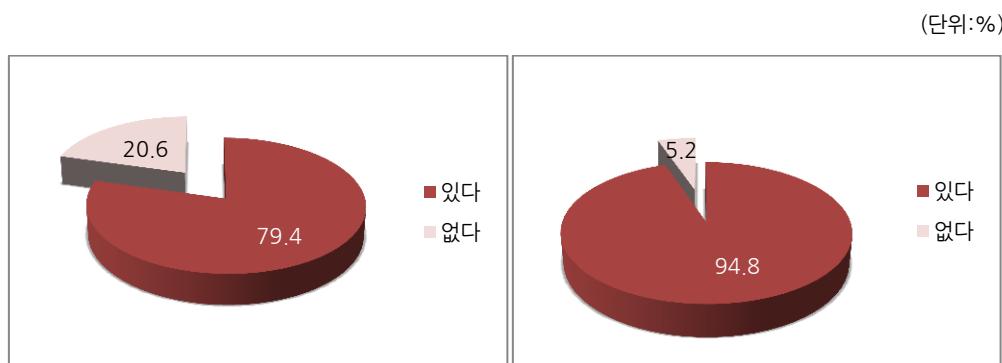


<그림 23> 에이즈 감염 시 대처 행동

5) 성 행태

(1) 성관계 경험

응답자들의 성 행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성 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률의 79.4%,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6%로 나타났다. 한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94.8%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처음 성경험 시기에 대해 알아본 결과, 평균 나이는 24.1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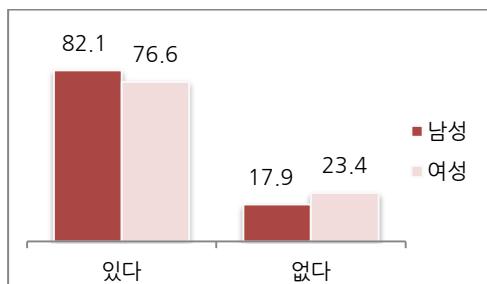


<그림 24> 성관계 경험 여부(N=1000)

<그림 25> 지난 1년간의 성관계 여부(N=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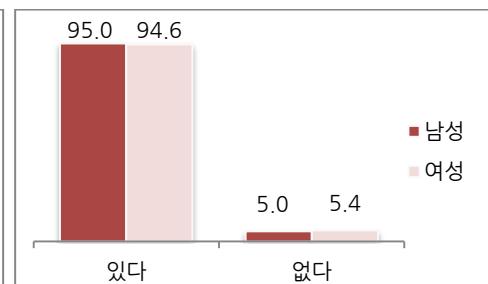
다음으로 성별, 연령대, 학력, 혼인여부, 그리고 종교여부에 따른 성관계 경험 여부를 살펴보았다. 성별의 경우, 남성의 82.1%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76.6%의 비율을 보인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 관계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최근 1년 이내에 성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95.0%가, 여성의 경우 94.6%가 각각 최근 1년 이내에 성 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Base: 남성=513, 여성=487, 단위: %)



<그림 26> 성별에 따른 성관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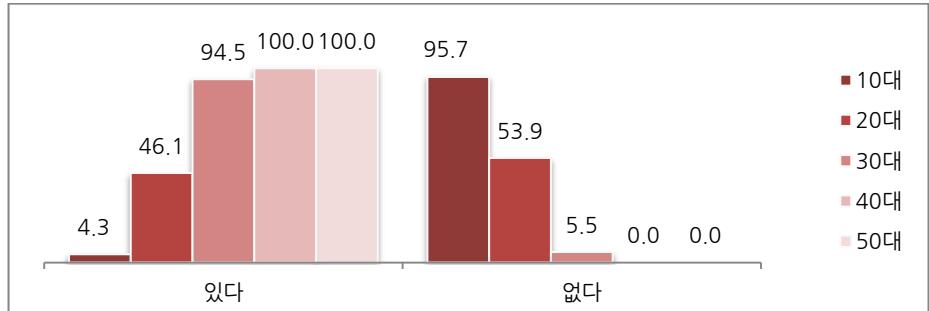
(Base: 남성=421, 여성=373, 단위: %)



<그림 27> 성별에 따른 최근 1년 성관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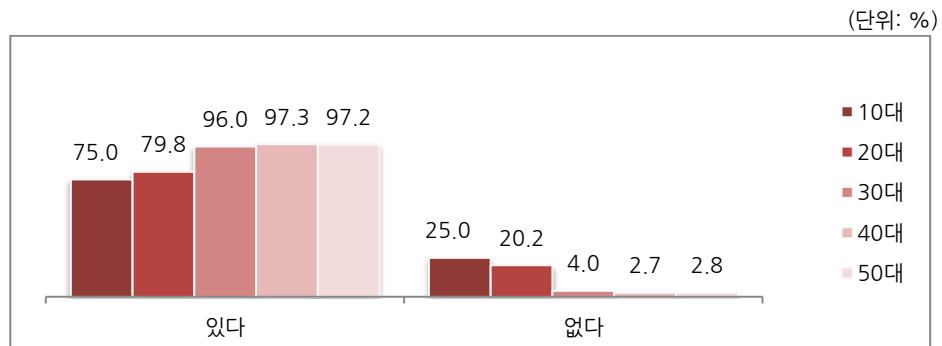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40대와 50대는 모든 응답자들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30대는 94.5%가, 20대는 46.1%가 각각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의 경우도 4.3%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e: 10대=93, 20대=193, 30대=238, 40대=260, 50대=2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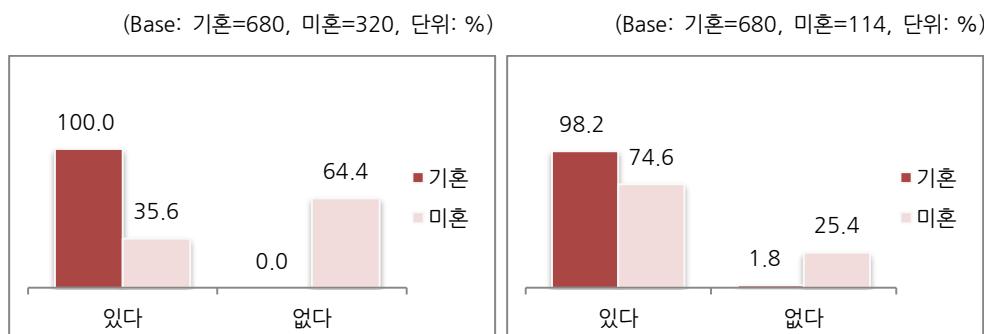
<그림 28> 연령대에 따른 성관계 경험 여부

한편, 성 관계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성 관계 경험 여부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29>과 같다. 구체적으로, 30대(96.0%)와 40대(97.3%)와 50대(97.2%)의 경우 95%이상이 최근 1년간 성 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대는 79.8%, 10대는 75.0%가 각각 최근 1년 이내에 성 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연령대에 따른 최근 1년간 성관계 경험 여부

혼인 여부에 따른 성 관계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기혼자들의 경우 모든 응답자들이 성 관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혼자들의 경우 35.6%가 성 관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관계 경험이 있는 이들 가운데 최근 1년 이내에 성 관계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기혼자의 경우 98.2%, 미혼자의 경우 74.6%로 각각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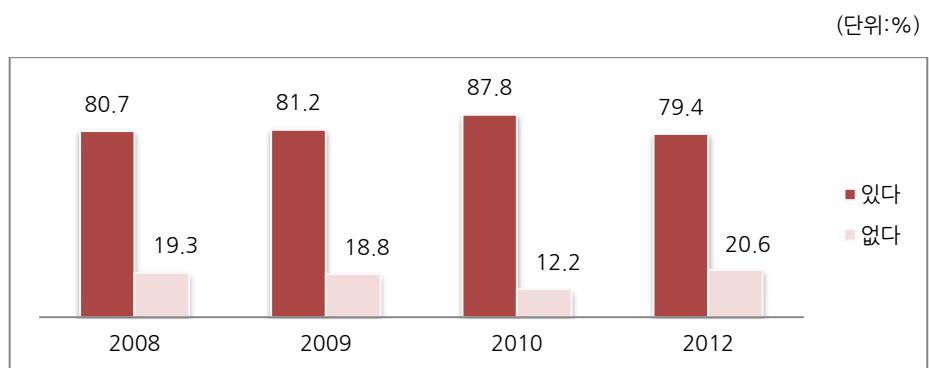


〈그림 30〉 혼인에 따른 성관계 경험

〈그림 31〉 혼인에 따른 최근 1년 성관계 경험

(2) 성관계 경험여부 변화 추이

성관계 경험여부에 대한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80.7%, 81.2%, 87.8%로 매년 증가하다 2012년에는 79.4%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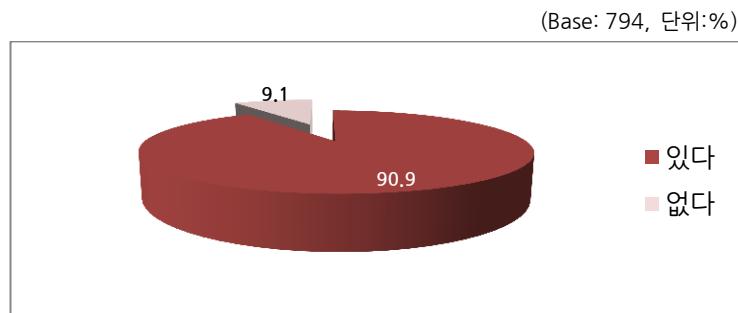


〈그림 32〉 성관계 경험자 비도 변화 추이(2008년~2012년)

(3) 성 행태

가.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성 행태

고정적인 성 상대자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90.9%,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1%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적인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각각 몇 명의 고정적 성 상대자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1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88명(95.3%)으로, 2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1명(4.3%)으로, 3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0.1%), 무응답이 2명(0.3%)로 각각 나타났으며, 고정적 성 상대자의 평균 수는 1.32명($SD=0.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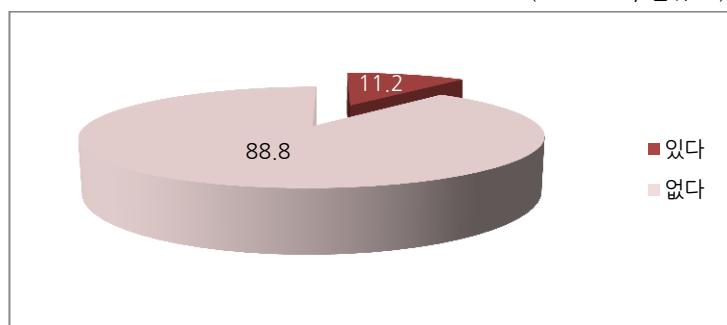


〈그림 33〉 고정적 성 상대자 유무

나.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성 행태

비고정적인 성 상대자와 최근 1년간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는 전체 응답자의 88.8%가 '없다'라고 하였고, 11.2%는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비고정적 성 상대자가 '있다'라고 응답한 89명을 대상으로 비고정적인 성상대자의 인원 수를 조사한 결과, 1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4.2%로 가장 많았다. 또한 2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7%, 3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5%, 4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4%, 5명과 6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1%로 나타났으며, 비고정 성 상대자 수의 평균은 1.45명($SD=0.954$)인 것으로 나타났다.

(Base: 79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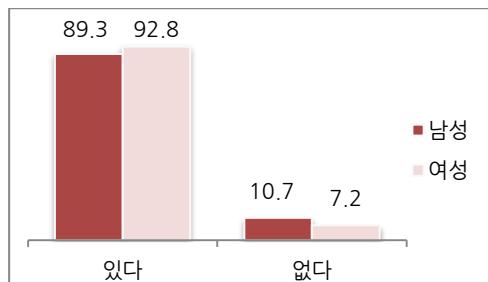


<그림 34> 비 고정적 성 상대자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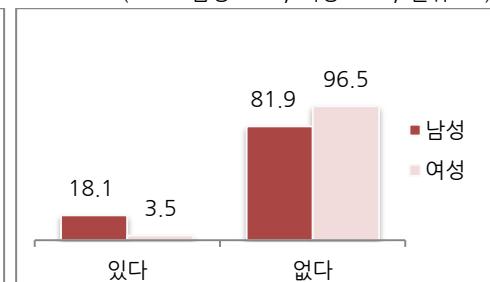
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성 행태

성별, 연령대, 학력, 혼인여부, 그리고 종교여부에 따른 성 상대자 특성 별 성관계 경험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의 경우, 고정 성 상대자가 ‘있다’라고 응답한 남성과 여성이 각각 89.3%, 92.8%로 각각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고정 성 상대자의 경우 남성이 18.1%, 여성이 3.5%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고정 성 상대자가 있는 경우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se: 남성=421, 여성=37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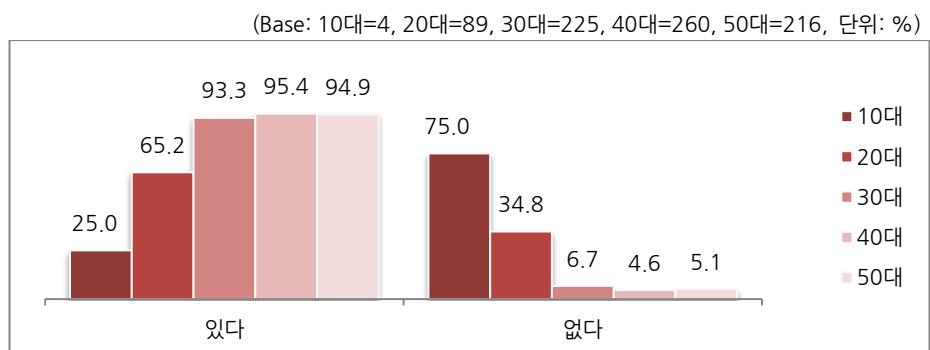


<그림 35> 성별에 따른 고정 상대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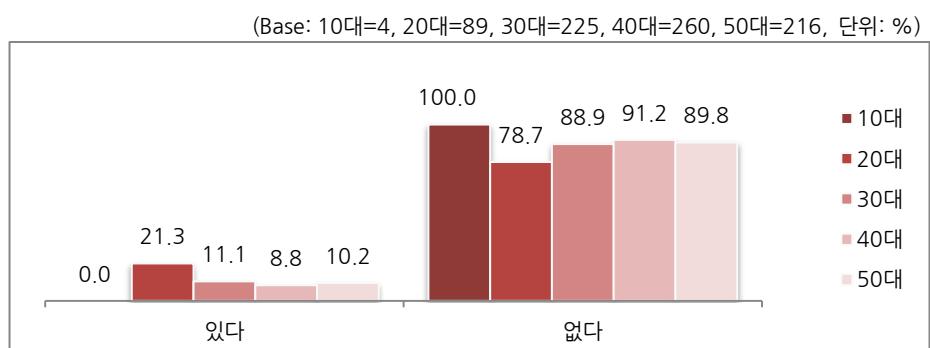
<그림 36> 성별에 따른 비고정 상대자 여부

다음으로, 연령대에 따라 고정 성 상대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30대의 경우 93.3%가, 40대의 경우 95.4%, 50대의 경우 94.9%가 각각 고정 성 상대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도 65.2%, 10대의 경우 25.0%가 각각 고정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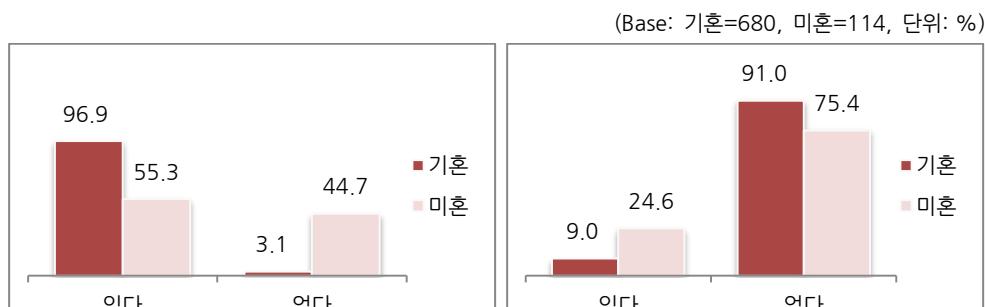
〈그림 37〉 연령대에 따른 고정 성 상대자 유무

연령대에 따라 비고정 성 상대자 존재 유무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대의 경우 21.3%의 응답자들이 비고정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30대의 11.1%가, 50대의 10.2%가, 40대의 8.8%가 각각 비고정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10대의 경우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고정 성 상대자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8〉 연령대에 따른 비고정 성 상대자 유무

마지막으로, 혼인 여부에 따른 성 행태를 살펴본 결과 기혼자의 경우 96.9%가 고정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자의 경우 55.3%가 고정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고정 성 상대자 유무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혼자의 경우 9.0%가, 미혼자의 경우 24.6%가 각각 비고정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자들이 기혼자들에 비해 비고정 성 상대자가 있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콘돔 사용 실태

가.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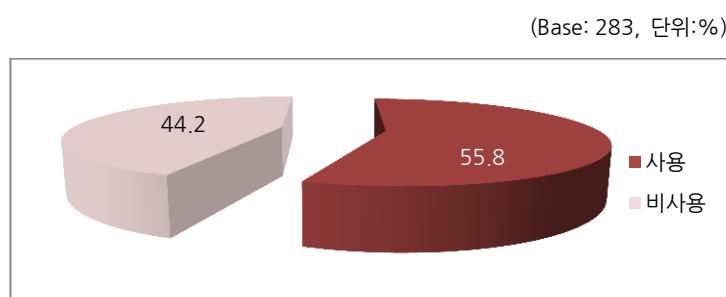
① 콘돔 사용 빈도

고정적인 성 상대자와 성관계 시 얼마나 자주 콘돔을 사용하였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끔 사용(13.4%)', '거의 사용하지 않음(12.0%)', '자주(6.8%)', '매번 사용(6.9%)'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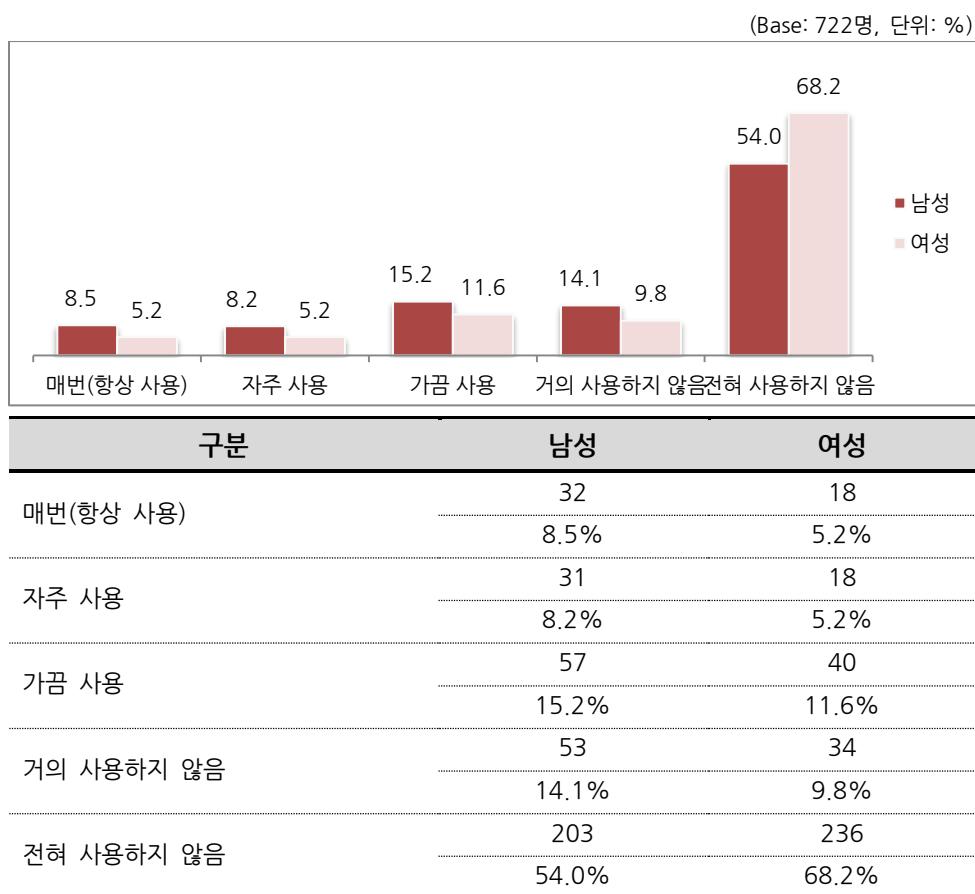
〈그림 41〉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

한편, 고정 성 상대자와 콘돔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39명을 제외한 283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의 성 관계 시 콘돔 사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55.8%의 응답자들이 사용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44.2%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고정 성 상대자와 최근 성 관계 시 콘돔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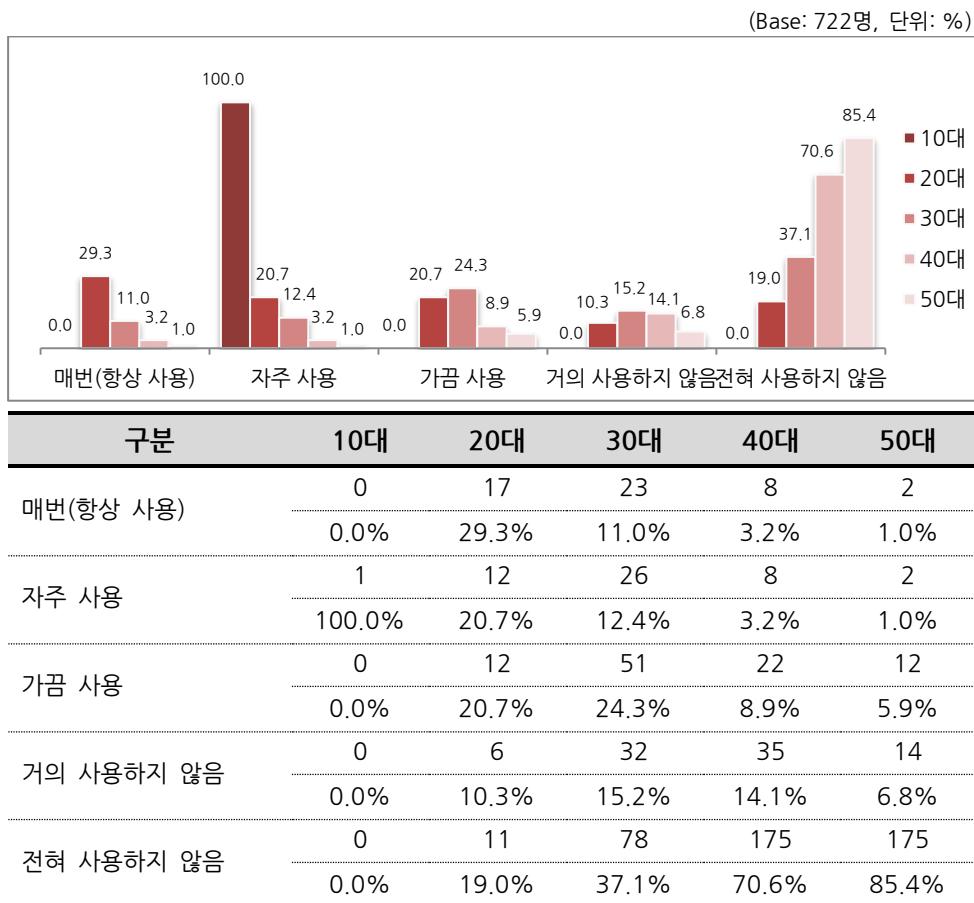
성별, 연령대, 혼인여부에 따른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지난 1년간 콘돔사용빈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혀 사용하지 않음’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68.2%)들이 남성(54.0%)에 비해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표 32> 성별에 따른 고정적 성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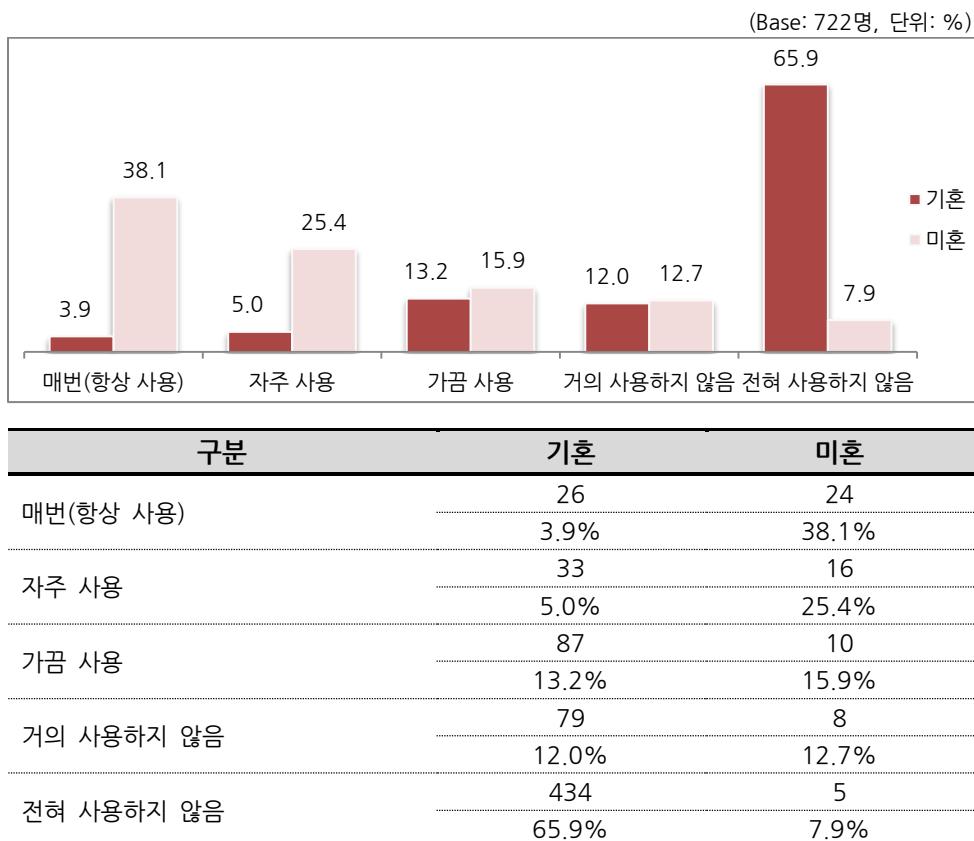
연령대에 따른 콘돔사용 빈도의 경우, 10대의 경우 ‘자주 사용’의 비율이 1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항상 사용’의 경우도 20대가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가 11.0%, 40대가 3.2%, 50대가

1.0%로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표 33> 연령대에 따른 고정적 성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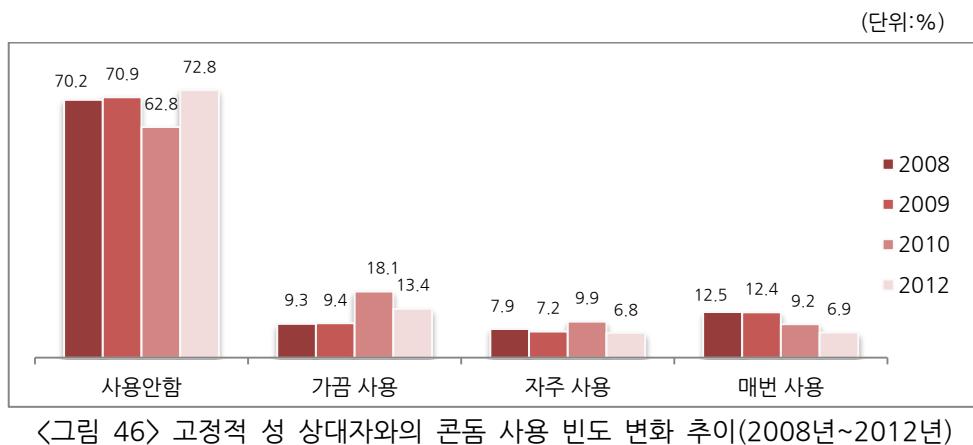
다음으로, 혼인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음'의 응답률이 65.9%로 가장 컸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매번 사용'이 38.1%로, '자주 사용'이 25.4%로 각각 기혼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표 34〉 혼인여부에 따른 고정적 성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

② 콘돔 사용 빈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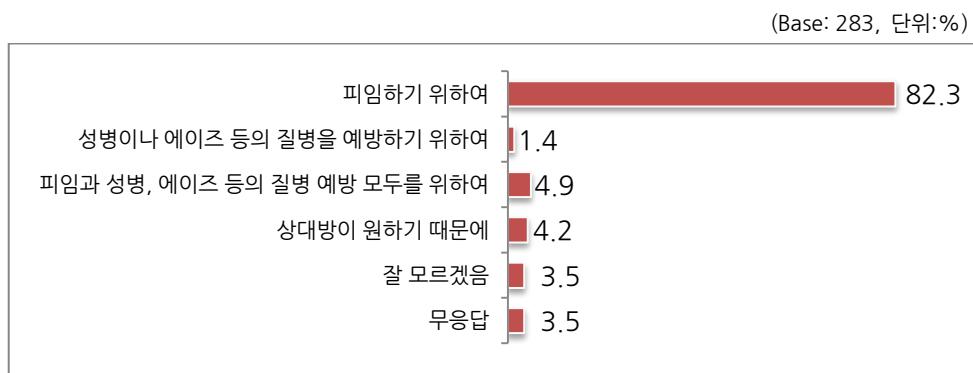
콘돔 사용 빈도에 대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 12.5%, 2009년 12.4%, 2010년 9.2%, 2012년 6.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가끔’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에는 9.3%였으나 2010년에는 18.1%로 약 2배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다소 하락한 것(13.4%)으로 나타났다. ‘사용안함’의 응답률은 2008년과 2009년에는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에는 62.8%로 매우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에는 4번의 조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72.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 변화 추이(2008년~2012년)

③ 콘돔 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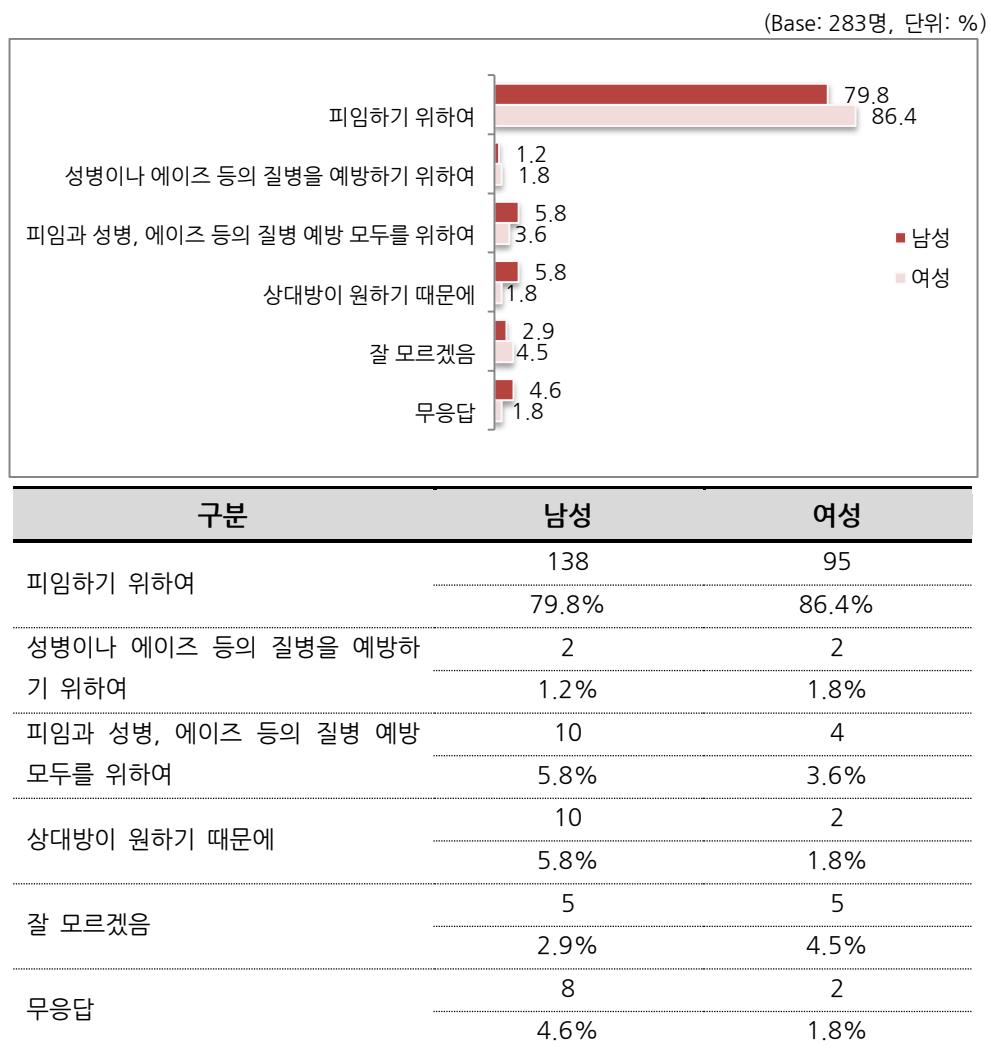
고정적인 성 상대자와 콘돔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임하기 위하여’가 8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다음으로는 ‘피임과 성병, 에이즈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가 5.3%, ‘상대방이 원하기 때문에’는 4.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콘돔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임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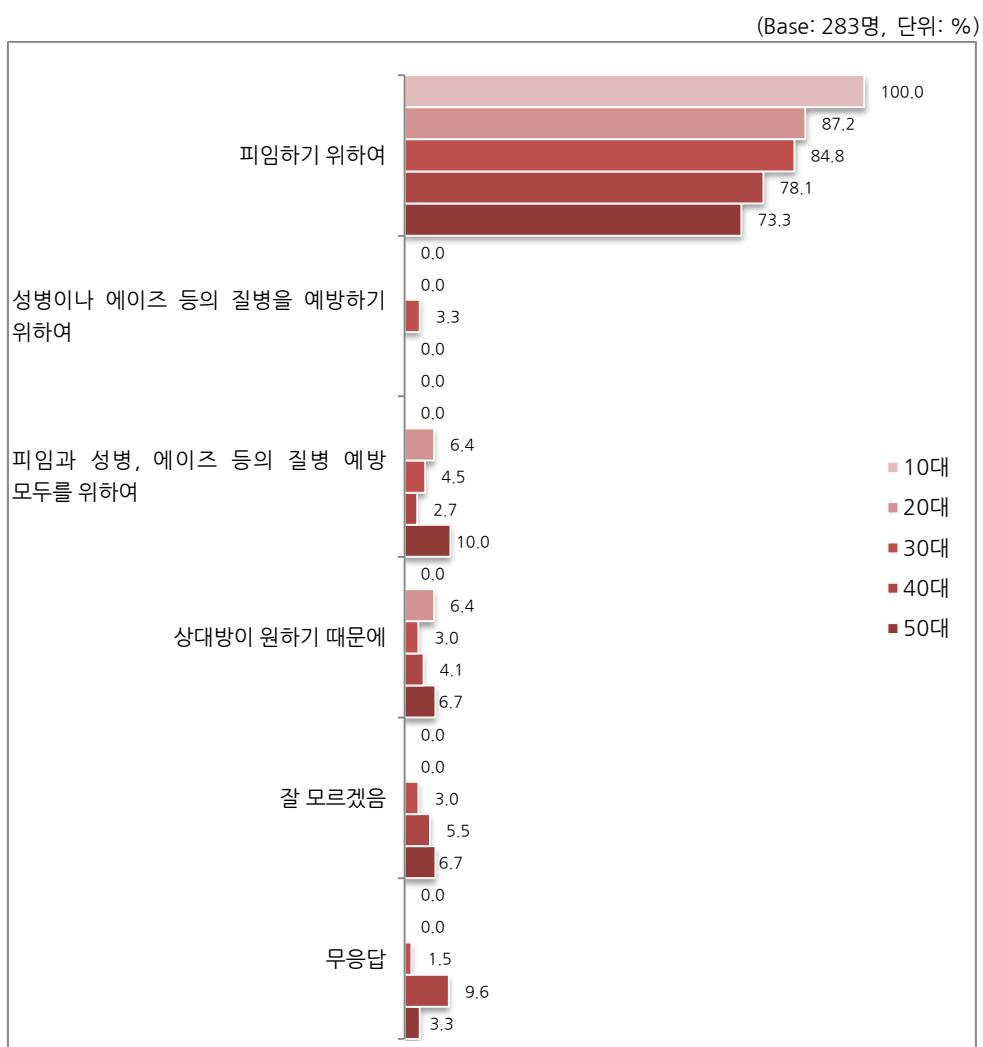
다음으로, 고정적인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콘돔 사용 목적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79.8%) 보다는 여성(86.4%)이 더 피임의 목적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는 '피임과 성병, 에이즈 등의 질병을 모두 예방하기 위해'가 5.8%, '상대방이 원하기 때문에'가 5.8%로 각각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는 3.6%, 1.8%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르겠다'의 경우 남성은 2.9%가 여성은 4.5%의 응답자가 응답하여 여성의 경우 콘돔 사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림 48〉, 〈표 35〉 성별에 따른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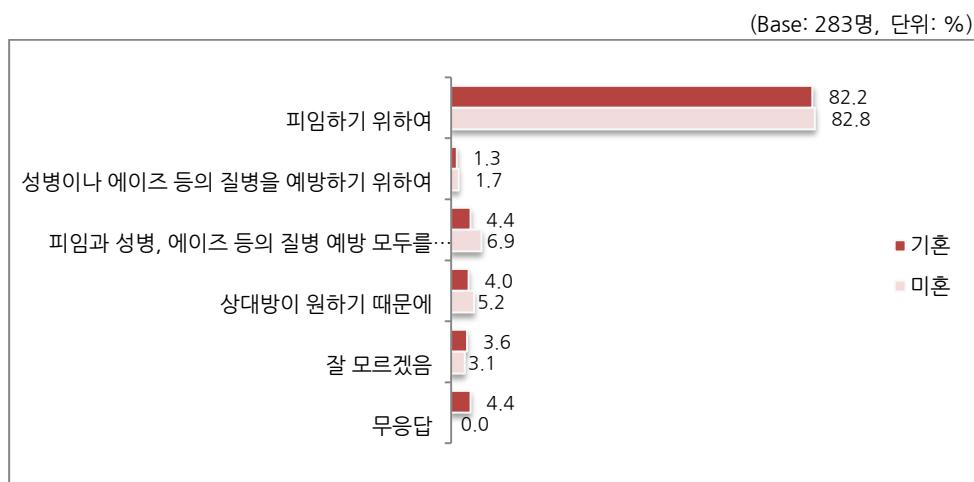
연령대 별로는 20대와 30대가 4·50대 보다는 상대적으로 피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성병 및 기타 질병 예방(3.0%)을 목적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이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대의 경우 피임과 성병, 에이즈 등의 질병 모두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10.0%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6.4%가 상대방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으로써 50대(6.7%)와 함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피임하기 위하여	1	41	112	57	22
	100.0%	87.2%	84.8%	78.1%	73.3%
성병이나 에이즈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0	0	4	0	0
	0.0%	0.0%	3.0%	0.0%	0.0%
피임과 성병, 에이즈 등의 질병 예방 모두를 위하여	0	3	6	2	3
	0.0%	6.4%	4.5%	2.7%	10.0%
상대방이 원하기 때문에	0	3	4	3	2
	0.0%	6.4%	3.0%	4.1%	6.7%
잘 모르겠음	0	0	4	4	2
	0.0%	0.0%	3.0%	5.5%	6.7%
무응답	0	0	2	7	1
	0.0%	0.0%	1.5%	9.6%	3.3%

〈그림 49〉, 〈표 36〉 연령대에 따른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

한편, 혼인여부에 따른 콘돔 사용 이유의 차이를 살펴보면,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기혼과 미혼 각각 82.2%, 82.8%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임과 성병 모두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미혼(6.9%)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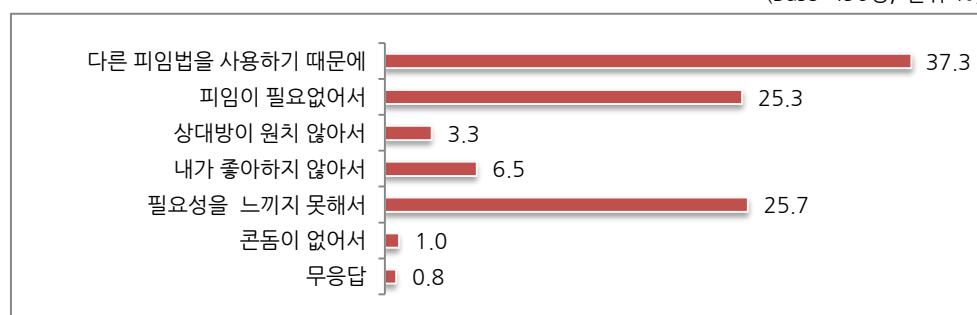
구분	기혼	미혼
피임하기 위하여	185	48
	82.2%	82.8%
성병이나 에이즈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3	1
	1.3%	1.7%
피임과 성병, 에이즈 등의 질병 예방 모두를 위하여	10	4
	4.4%	6.9%
상대방이 원하기 때문에	9	3
	4.0%	5.2%
잘 모르겠음	8	2
	3.6%	3.4%
무응답	10	0
	4.4%	0.0%

<그림 50>, <표 37> 혼인여부에 따른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

④ 콘돔 비사용 이유

고정적인 성 상대자와의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른 피임법 사용’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피임이 필요 없어서’가 각각 25.7%, 25.3%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가 6.5%, 상대방이 원치 않아서가 3.3%, 콘돔을 구하지 못해서가 1.0%로 각각 나타났다.

(Base: 49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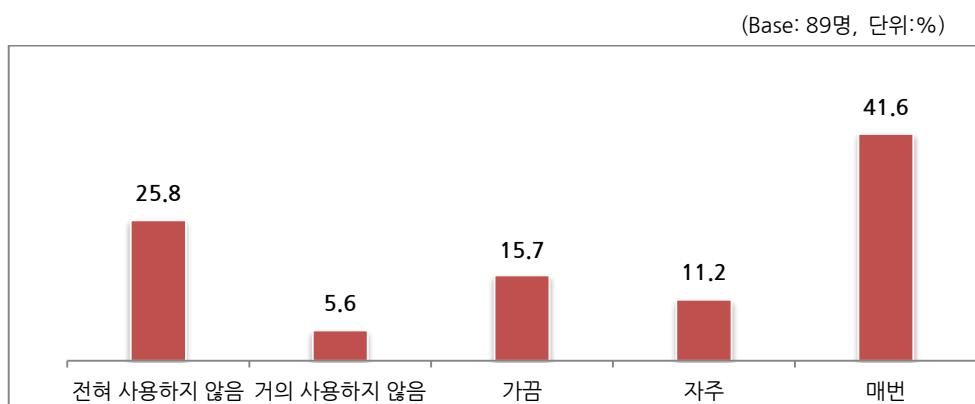
*중복응답 결과임

<그림 51>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미사용 이유

나.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① 콘돔 사용 빈도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 지난 1년간 콘돔 사용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번 콘돔을 사용하는 응답률은 41.6%로 나타났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6%였다. 한편, 가끔 사용한다의 경우 15.7%로, 자주 사용한다의 경우 11.2%로 나타나 비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성관계 시에는 비교적 높은 콘돔 사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

한편, 비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성 관계 시 성병이나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이 43.8%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이 30.3%로 각각 나타나 전체의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비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성관계 시에는 질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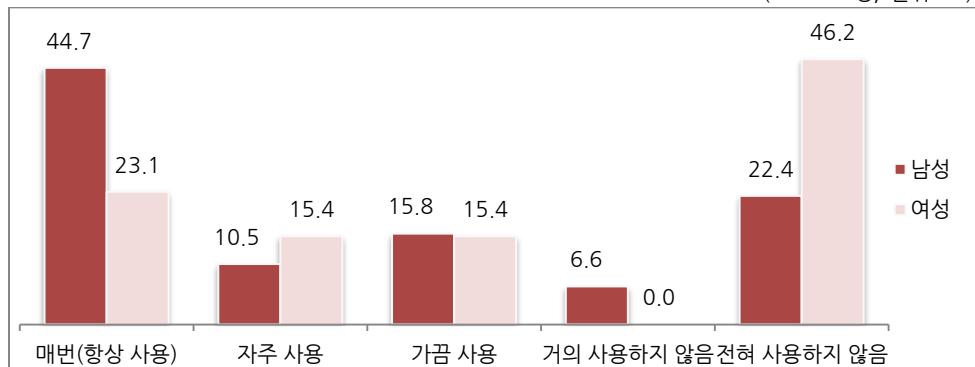
(Base: 89명, 단위: %)



<그림 53>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필요성

다음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고정적 성 상대자의 지난 1년간 콘돔 사용 빈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콘돔 사용의 빈도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남성의 경우,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 매번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고, ‘가끔’과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각각 15.8%, 22.4%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번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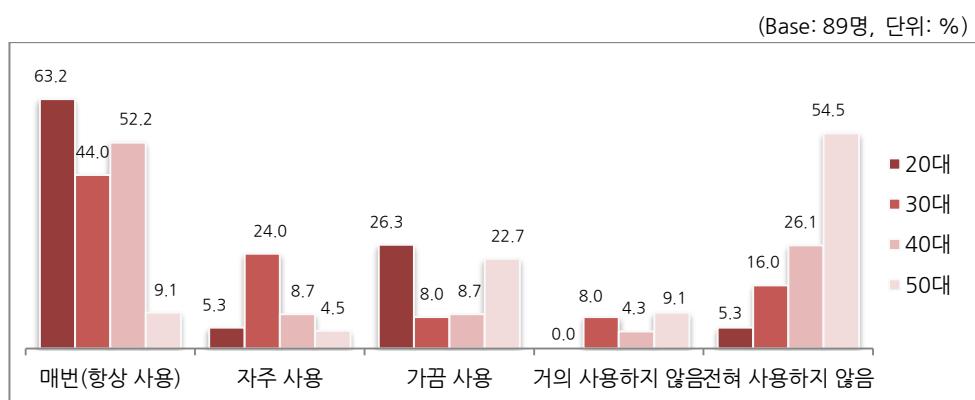
(Base: 89명,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매번(항상 사용)	34 44.7%	3 23.1%
자주 사용	8 10.5%	2 15.4%
가끔 사용	12 15.8%	2 15.4%
거의 사용하지 않음	5 6.6%	0 0.0%
전혀 사용하지 않음	17 22.4%	6 46.2%

<그림 54>, <표 38> 성별에 따른 비교정적 성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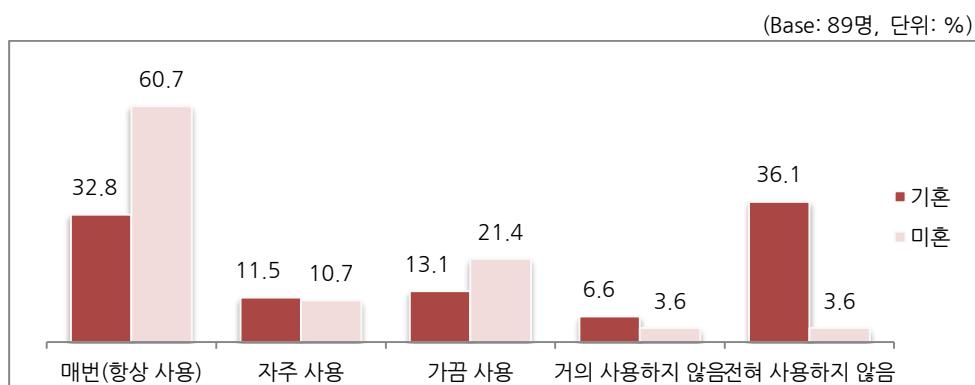
연령별로 살펴보면 ‘매번 사용한다’는 응답에는 20대가 6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52.2%)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혀 사용하지 않음’의 경우 50대가 54.5%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자주 사용’한다의 경우 30대가 24.0%로, ‘가끔 사용’의 경우 20대가 26.3%로 각각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매번(항상) 사용	-	12	11	12	2
	-	63.2%	44.0%	52.2%	9.1%
자주 사용	-	1	6	2	1
	-	5.3%	24.0%	8.7%	4.5%
가끔 사용	-	5	2	2	5
	-	26.3%	8.0%	8.7%	22.7%
거의 사용하지 않음	-	0	2	1	2
	-	0.0%	8.0%	4.3%	9.1%
전혀 사용하지 않음	-	1	4	6	12
	-	5.3%	16.0%	26.1%	54.5%

<그림 55>, <표 39> 연령대에 따른 비고정적 성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

마지막으로, 혼인 여부에 따른 비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매번 사용'의 경우 미혼자는 60.7%가, 기혼자는 32.8%로 나타난 반면, '전혀 사용하지 않음'의 경우 기혼자의 36.1%가, 미혼자의 3.6%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일수록 비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성 관계 시 콘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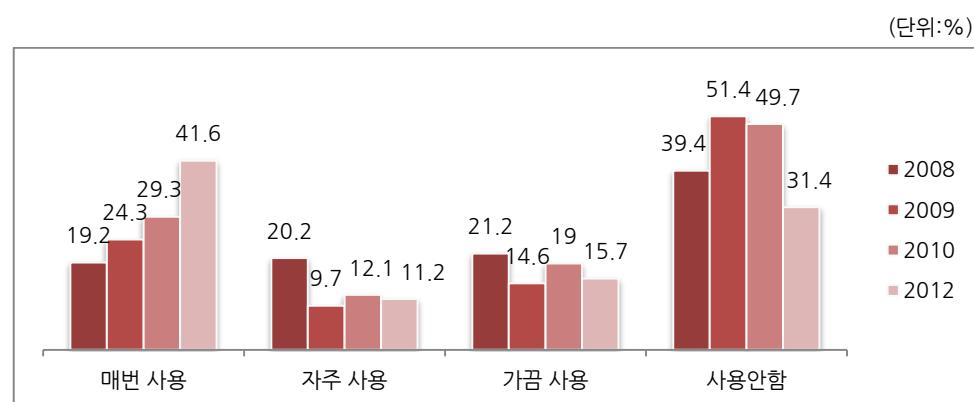


구분	기혼	미혼
매번(항상 사용)	20	17
	32.8%	60.7%
자주 사용	7	3
	11.5%	10.7%
가끔 사용	8	6
	13.1%	21.4%
거의 사용하지 않음	4	1
	6.6%	3.6%
전혀 사용하지 않음	22	1
	36.1%	3.6%

<그림 56>, <표 40> 혼인여부에 따른 비교정적 성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

② 콘돔 사용 빈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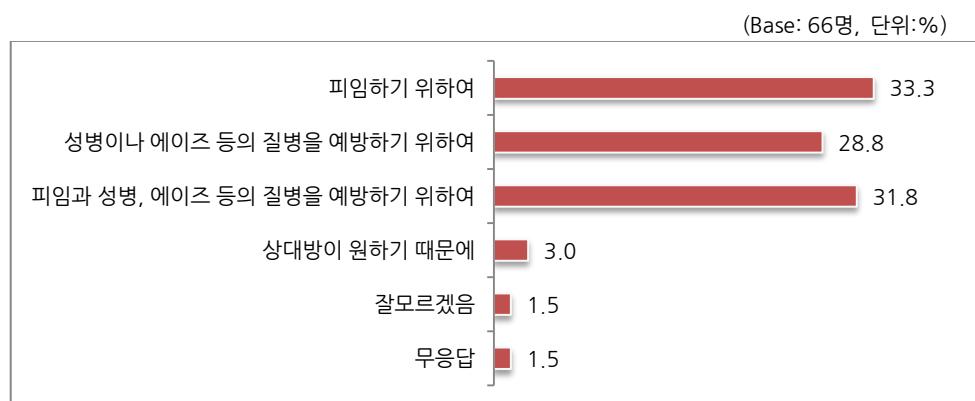
고정적인 성 상대자 이외 사람과의 콘돔 사용 빈도 변화를 2008년부터 2012년 까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번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 19.2%, 2009년 24.3%, 2010년 29.3%, 2012년에는 41.6%로 나타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안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9년 51.4%였던 반면, 2010년에는 39.7%로 2012년에는 31.4%로 크게 낮아져 4차례의 조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57> 비교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빈도(2008년~2012년)

③ 콘돔 사용 이유

고정적인 성 상대자 이외의 사람과 콘돔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피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임과 성병, 에이즈 등을 모두 예방하기 위해서가 31.8%로, 성병이나 에이즈 등의 질병만을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8.8%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상대방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3.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도 1.5%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58>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성병이나 에이즈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가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피임하기 위하여’와 ‘피임과 성병 및 기타 병 예방 모두’가 각각 30.5%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피임하기 위하여’에 5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피임과 성병, 에이즈 등의 질병 예방 모두를 위하여’가 42.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의 비고정적인 성 상대자와 콘돔을 사용 이유는 비슷한 성격을 보이지만 그 정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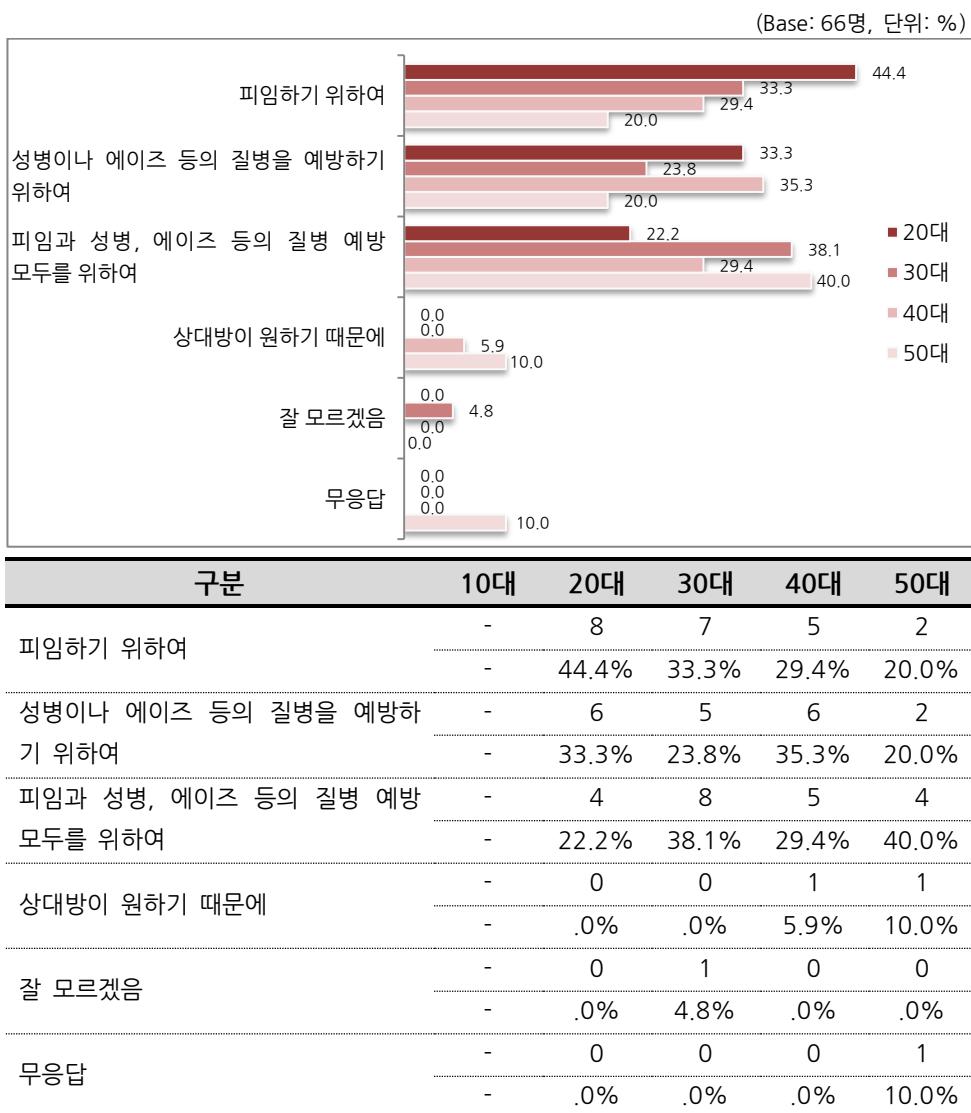
(Base: 66명,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피임하기 위하여	18	4
	30.5%	57.1%
성병이나 에이즈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19	0
	32.2%	0.0%
피임과 성병, 에이즈 등의 질병 예방 모두를 위하여	18	3
	30.5%	42.9%
상대방이 원하기 때문에	2	0
	3.4%	0.0%
잘 모르겠음	1	0
	1.7%	0.0%
무응답	1	0
	1.7%	0.0%

〈그림 59〉, 〈표 41〉 성별에 따른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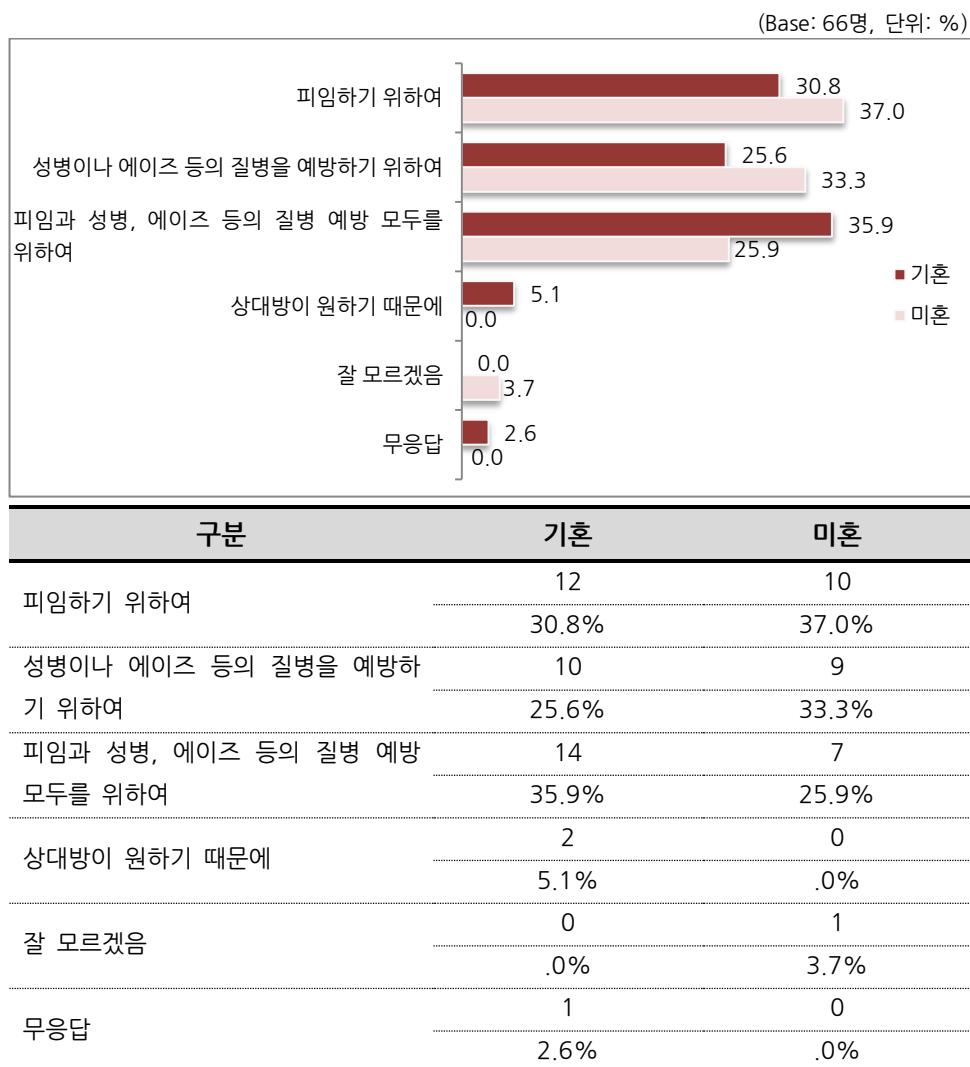
다음으로, 연령대에 따른 비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피임하기 위하여’의 경우 20대(44.4%)와 30대(33.3%)가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병이나 에이즈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의 경우 20대가 33.3%, 40대가 35.3%로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임과 성병, 에이즈 등의 질병 모두를 위하여’의 경우 50대가 40.0%, 30대가 38.1%로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0〉, 〈표 42〉 연령대에 따른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

마지막으로, 혼인 여부에 따른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피임하기 위하여’, 와 ‘성병이나 에이즈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에서 각각 미혼 응답자들이 37.0%, 33.3%로 기혼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임과 성병, 에이즈 등의 질병 예방 모두를 위하여’의 경우 기혼 응답자들이 35.9%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자들의 5.1%는 상대방이 원하기 때문에 비 고정적 성

상대자와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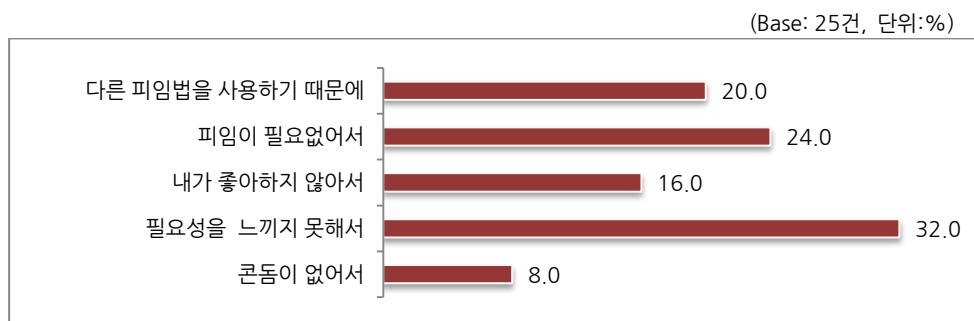


<그림 61>, <표 43> 혼인여부에 따른 비교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

③ 콘돔 비사용 이유

비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콘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2.0%로, 피임이 필요 없어서가 24.0%로,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20.0%로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 역시 16.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콘돔을 구하지 못해서가 8.0%로 각각 나타났다.



*중복응답 결과임

〈그림 62〉 비교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미사용 이유

(5) 성 상대자 및 성병진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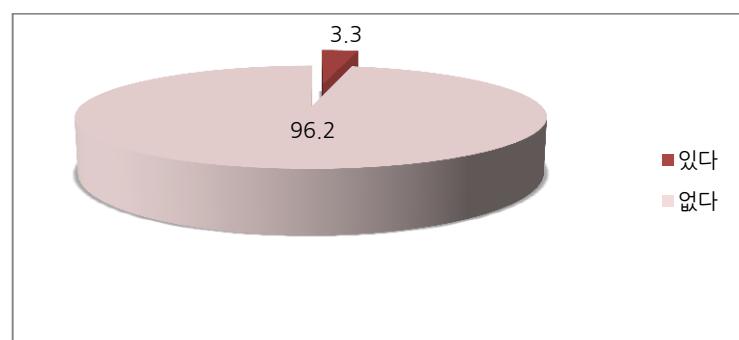
본 조사의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동성과의 성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들의 응답률은 99.4%로 나타났으며, 동성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0.3%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44〉 동성애 여부

구분	사례수(명)	퍼센트(%)
예	2	0.3
아니오	789	99.4
응답거절	3	0.4
전체	79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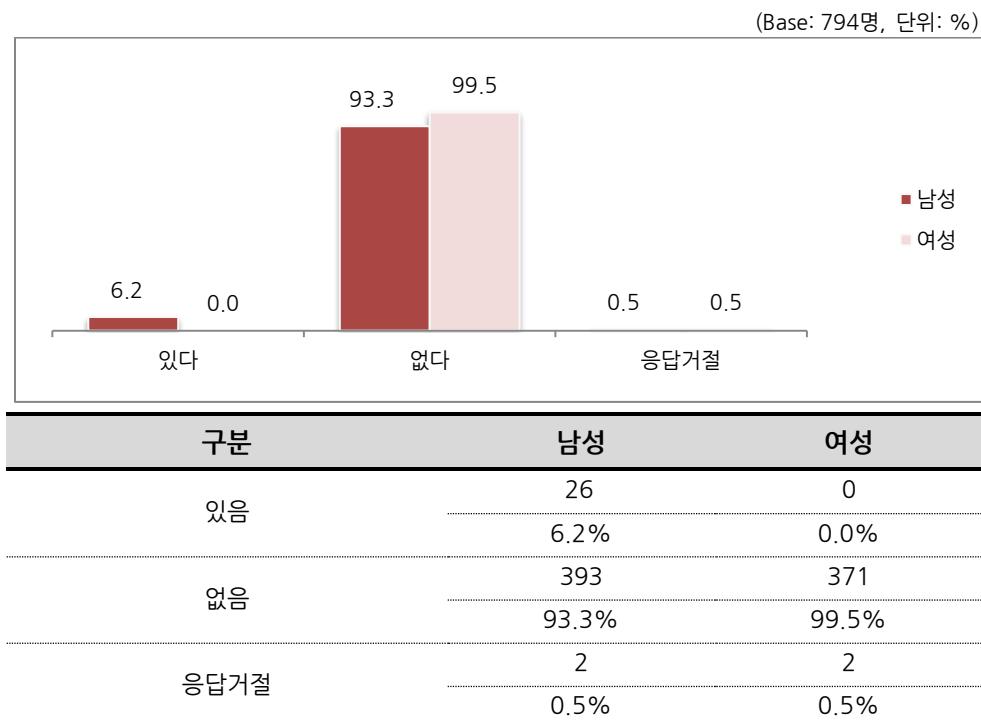
한편, 지난 6개월 간 성 매매를 통한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3.3%로,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96.2%로 각각 나타났다.

(Base: 794명, 단위:%)



〈그림 63〉 성 매매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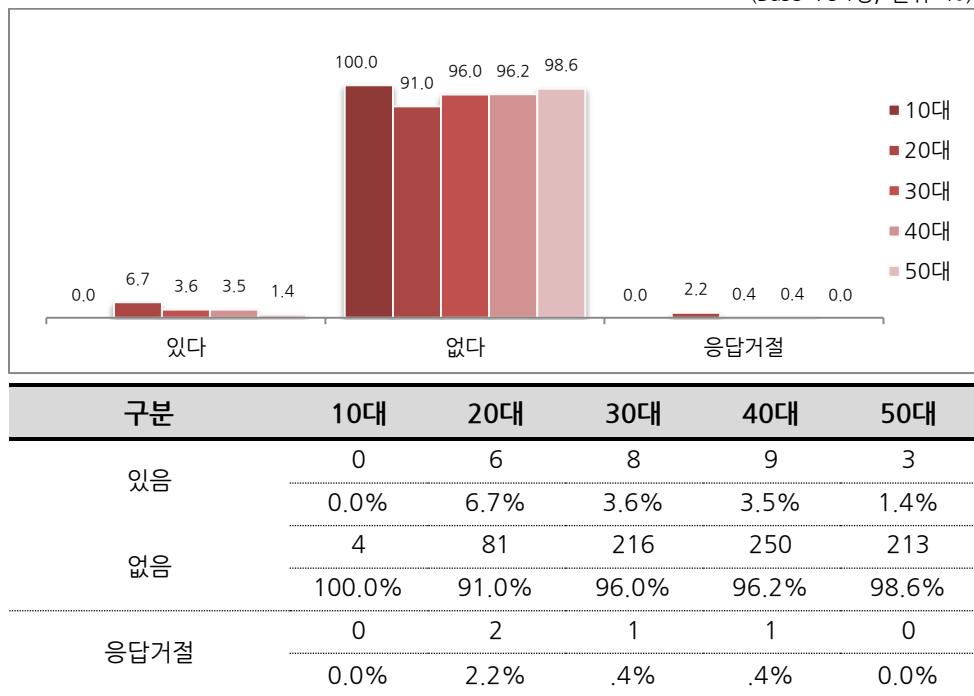
성별에 따라 성 매매 경험이 있는지 여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성 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6.2%의 응답자들이 성 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 〈표 45〉 성별에 따른 성 매매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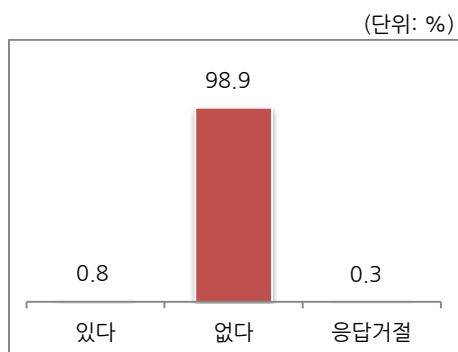
한편, 연령대에 따라서 성 매매 경험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 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10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6.7%가, 30대의 경우 3.6%, 40대의 경우 3.5%, 50대의 경우 1.4%로 각각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 매매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se: 794명, 단위: %)



<그림 65>, <표 46> 연령대에 따른 성 매매 경험 여부

한편, 지난 1년 동안 성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6명(0.8%)으로 나타났고, 성병 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 중 임질과 성기단순포진이 각각 2명(33.3%), 매독과 기타 성병이 각각 1명(16.7%)로 나타났다.



병명	사례수 (명)	퍼센트 (%)
매독	1	16.7
임질	2	33.3
성기단순포진	2	33.3
기타 성병	1	16.7
전체	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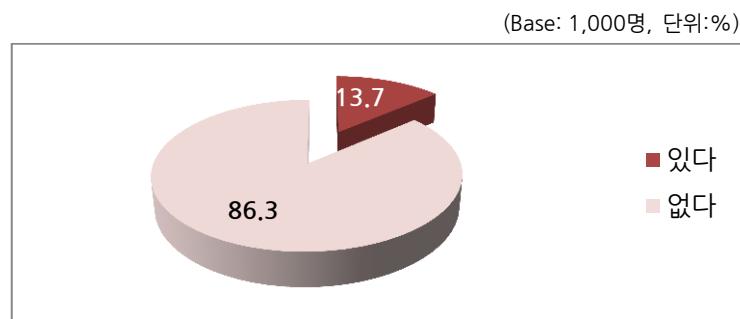
<그림 66> 지난 1년간 성병 진단 여부

<표 47> 지난 1년간 감염된 성병

6) 에이즈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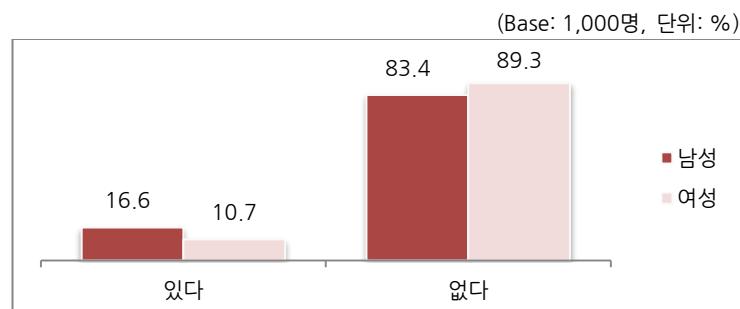
(1) 에이즈 검사 경험 여부

에이즈 검사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아래 <그림 67>과 같이 '없다(86.3%)'라는 응답이 '있다(13.7%)'라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67> 에이즈 검사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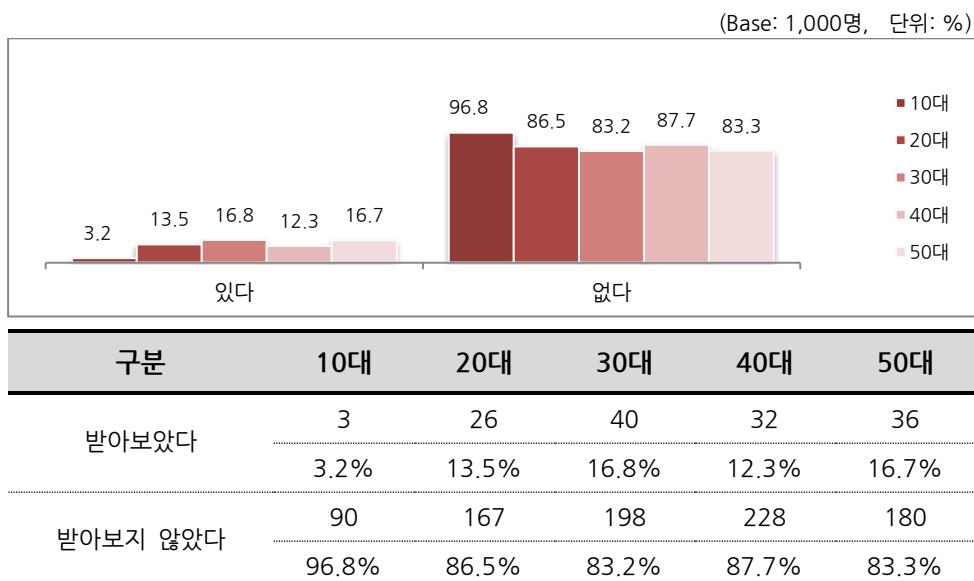
먼저, 에이즈 성별에 따른 에이즈 검사 유무를 분석한 결과, 에이즈 검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경우 남성이 16.6%, 여성이 10.7%로 각각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검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남성	여성
받아보았다	85	52
	16.6%	10.7%
받아보지 않았다	428	435
	83.4%	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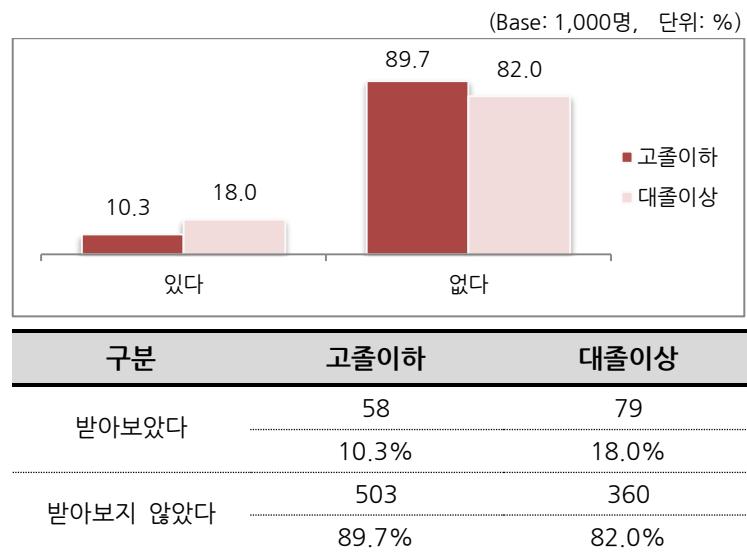
<그림 68>, <표 48> 성별에 따른 에이즈 검사 경험 여부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에이즈 검사여부를 살펴본 결과 검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0대가 1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50대(16.7%), 20대(13.5%), 40대(12.3%)의 순서로 각각 에이즈 검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대의 경우 3.2%의 응답자들이 에이즈 검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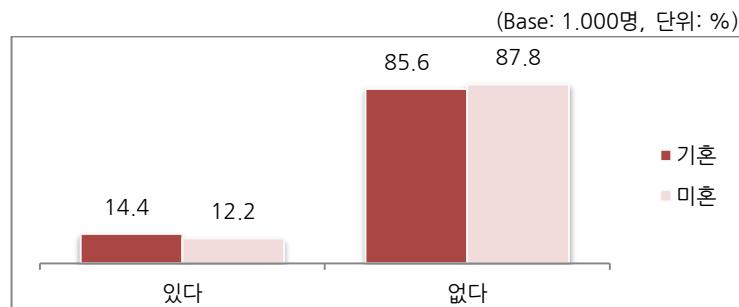
<그림 69>, <표 49> 연령대에 따른 에이즈 검사 경험 여부

학력 수준에 따른 에이즈 검사 경험 여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졸 이하의 응답자들 중 10.3%가, 대졸 이상 응답자들 중 18.0%가 각각 에이즈 검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은 이들의 에이즈 검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0>, <표 50> 학력수준에 따른 에이즈 검사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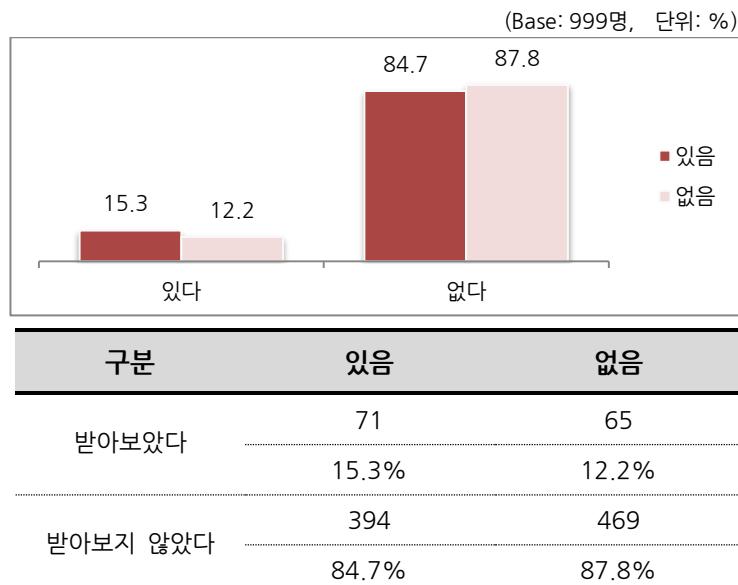
혼인 여부에 따른 에이즈 검사 여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혼자(14.4%)가 미혼(12.2%)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검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기혼	미혼
받아보았다	98 14.4%	39 12.2%
받아보지 않았다	582 85.6%	281 87.8%

<그림 71> <표 51> 혼인여부에 따른 에이즈 검사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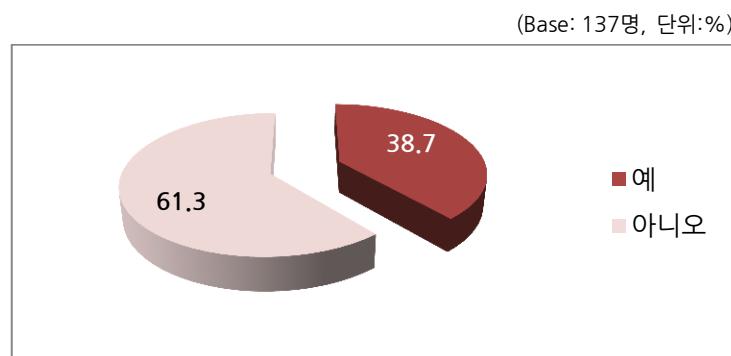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에이즈 검사 경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교를 가진 이들의 15.3%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이들의 12.2%가 각각 에이즈 검사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를 가진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에이즈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2> <표 52>, 종교유무에 따른 에이즈 검사 경험 여부

(2) 에이즈 검사 기간

다음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137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동안 에이즈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 <그림 7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 1년 이내에 에이즈 검사를 받은 비율이 38.7%로 나타난 반면, 에이즈 검사를 받은 지 1년 이상이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6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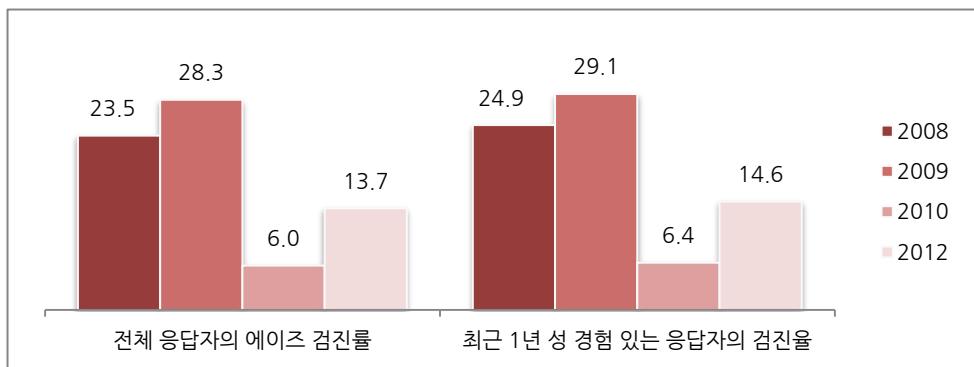


<그림 73> 1년 내 에이즈 검사 경험

(3) 연도 별 에이즈 검진율 비교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에이즈 검진율을 전체응답자 및 지난 1년 동안 성관계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8년과 2009년에는 모두 20%가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검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0년은 각각 6.0%, 6.4%로 가장 낮은 검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들의 경우 13.7%, 최근 1년 이내 성 관계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14.6%로 2010년에 비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Base: 전체 = 1,000명, 최근 성 경험 = 753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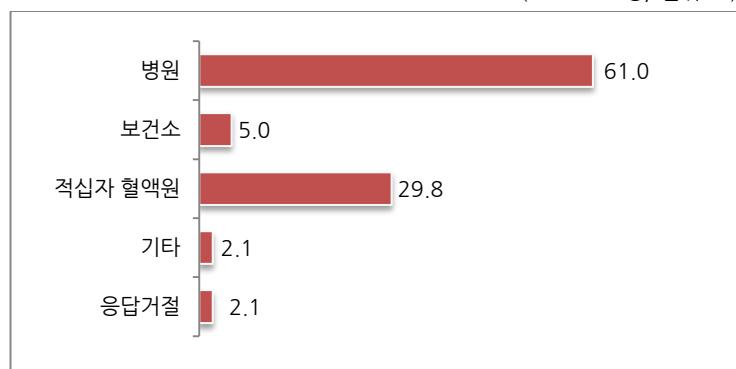


<그림 74> 연도별 에이즈 검진률 비교

(4) 에이즈 검사 장소

에이즈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 어느 장소에서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림 7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병원'이 6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적십자 혈액원'이 29.8%, '보건소'와 '기타'가 각각 5.0%,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Base: 141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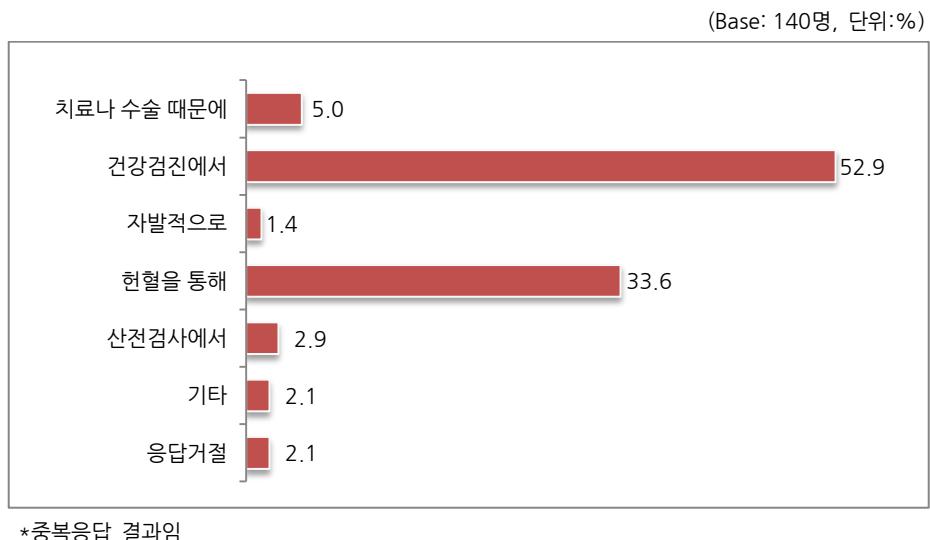


*중복응답 결과임

<그림 75> 에이즈 검사 장소

(5) 에이즈 검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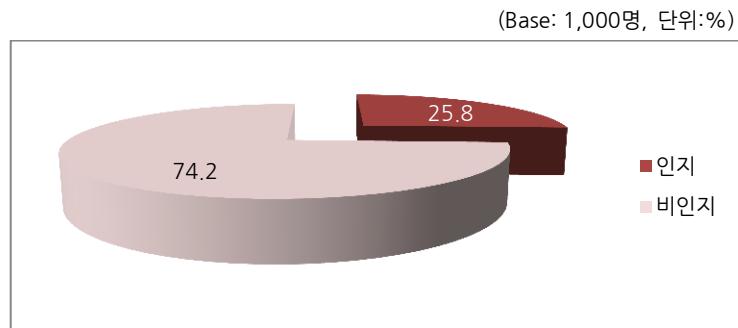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림 76>에 나타나 있듯이, ‘건강검진에서’가 5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현혈을 통해’가 33.6%, ‘치료나 수술 때문에’가 5.0%, ‘산전검사에서’와 ‘자발적으로’가 각각 2.9%,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에이즈 검사는 자발적이기보다는 개인의 특정목적과 상황 하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6> 에이즈 검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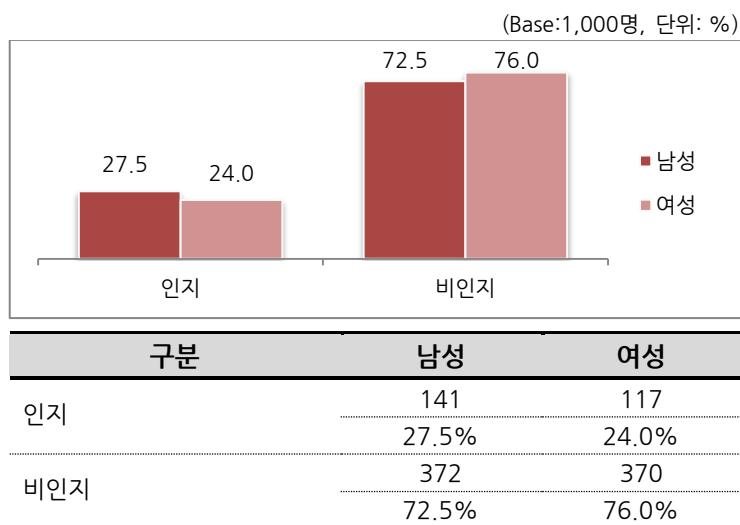
(6) 에이즈 익명검사 인지여부 및 검사 의향

에이즈 검사에 대한 익명검사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보건소나 에이즈 검진 상담소 등에서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5.8%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는 74.2%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일반인들의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인지율이 다소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7〉 에이즈 익명검사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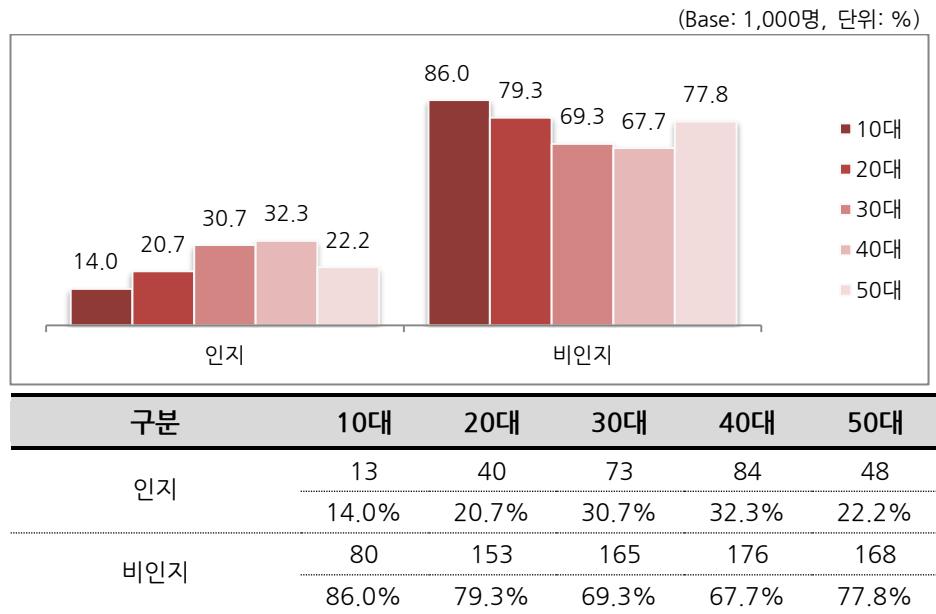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에이즈 익명 검사에 대한 인지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27.5%)이 여성(2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8〉, 〈표 53〉 성별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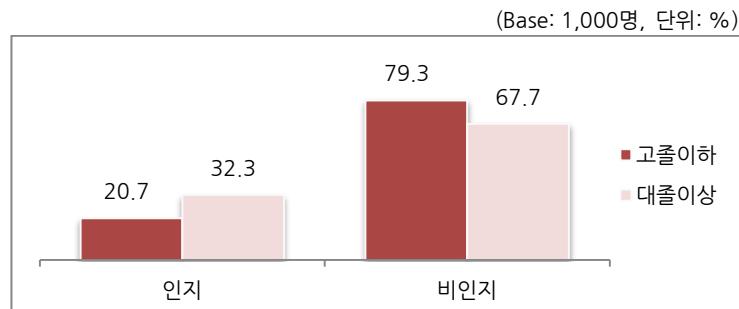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40대(32.3%)의 익명검사를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인지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의 경우는 22.2%에 그쳐 다소 낮은 인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대의 경우는 14.0%로 에이즈 익명 검사에 대해 가장 낮은 인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9〉, 〈표 54〉 연령대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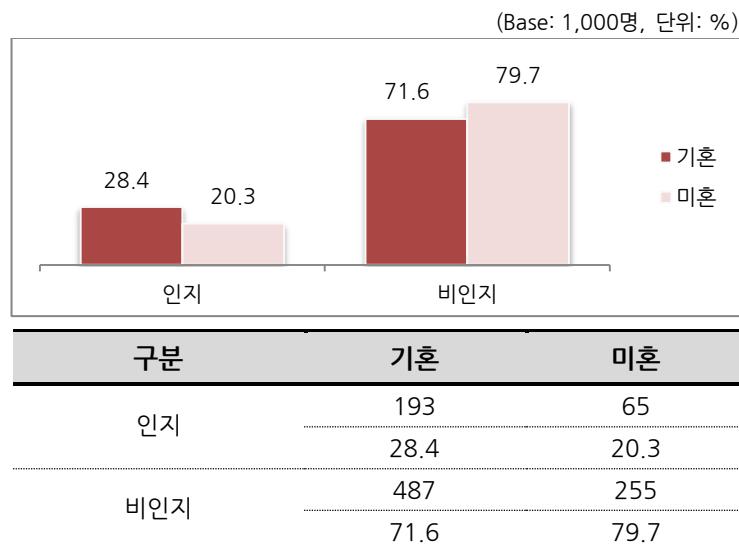
또한,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졸학력(20.7%)보다는 대졸(32.3%)학력자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에이즈 익명 검사에 대해 더욱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분	고졸이하	대졸이상
인지	116	142
	20.7%	32.3%
비인지	445	297
	79.3%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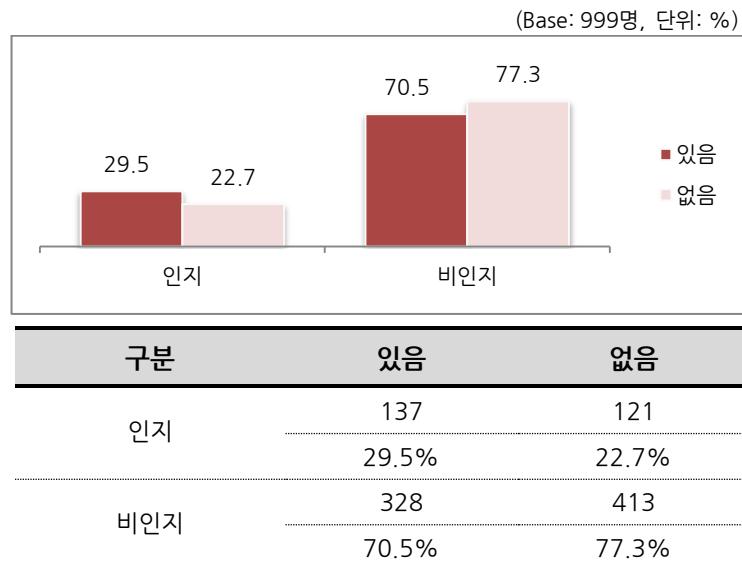
<그림 80>, <표 55> 학력수준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인지여부

혼인 여부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인지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혼자의 경우 28.4%가 인지를 하고 있는 반면, 미혼자들의 경우 20.3%만이 익명검사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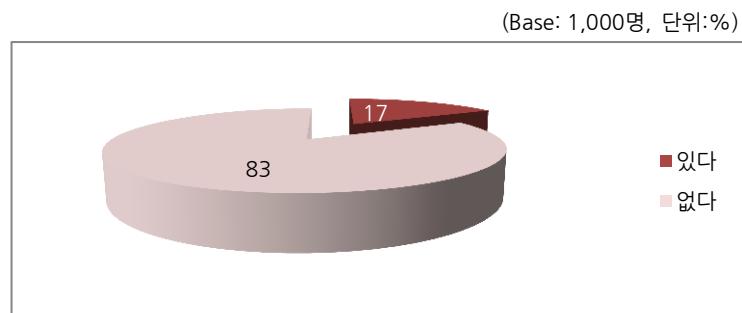
<그림 81>, <표 56> 혼인여부에 에이즈 익명검사 인지여부

마지막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인지여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22.7%)보다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29.5%)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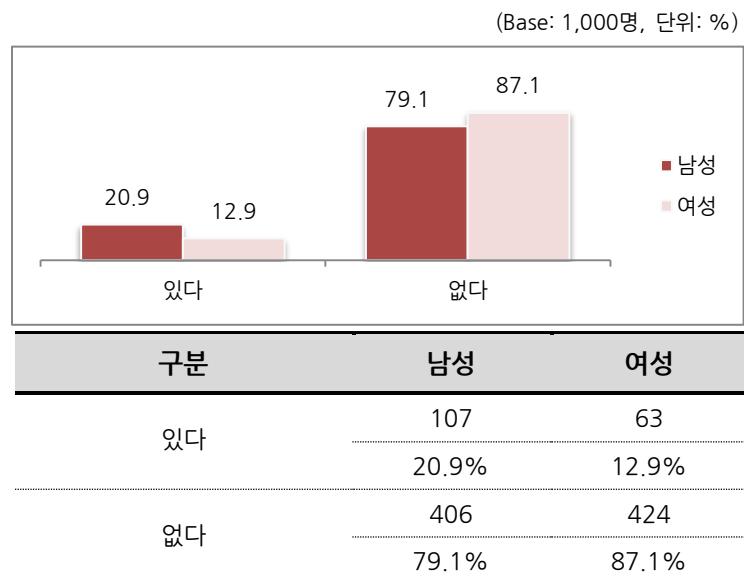
<그림 82>, <표 57> 종교유무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인지여부

다음으로, 보건소나 에이즈검진상담소와 같은 익명검사기관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아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다’는 17.0%, ‘없다’는 83.0%로 각각 나타났다. 즉,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응답자들은 검사를 받아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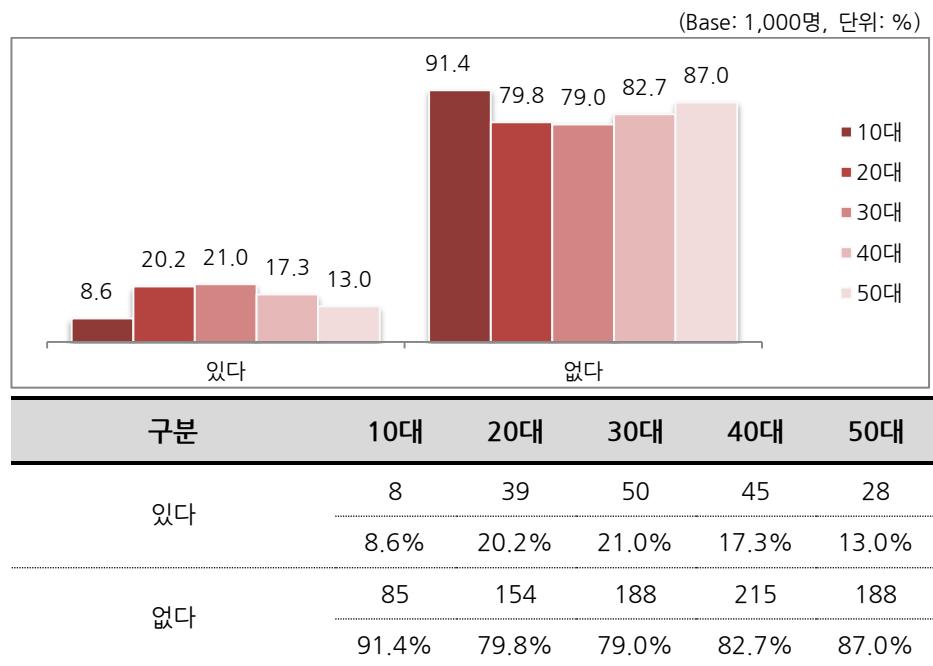
<그림 83> 에이즈 익명검사 의향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익명검사 의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남성 응답자의 경우 에이즈 익명검사 의향이 있는 사람이 20.9%, 의향이 없는 사람이 79.1%로 각각 나타났으며, 여성 응답자의 경우 에이즈 익명검사 의향이 있는 사람이 12.9%, 없는 사람이 87.1%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이즈 익명 검사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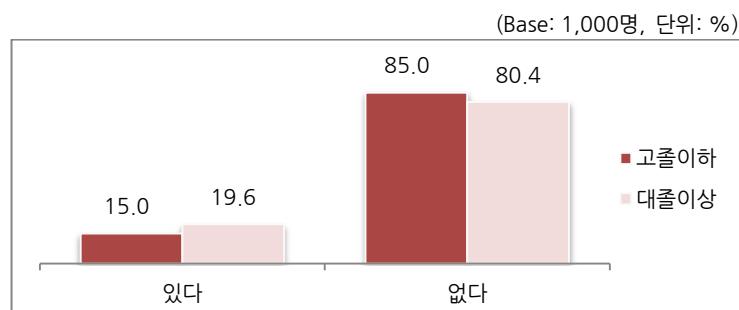
<그림 84>, <표 58> 성별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의향

다음으로, 연령대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의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30대가 21.0%로 가장 높은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20대가 20.2%, 40대가 17.3%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50대는 13.0%, 10대는 8.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대 별로는 20 ~ 30대의 에이즈 익명 검사 의향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5>, <표 59> 연령대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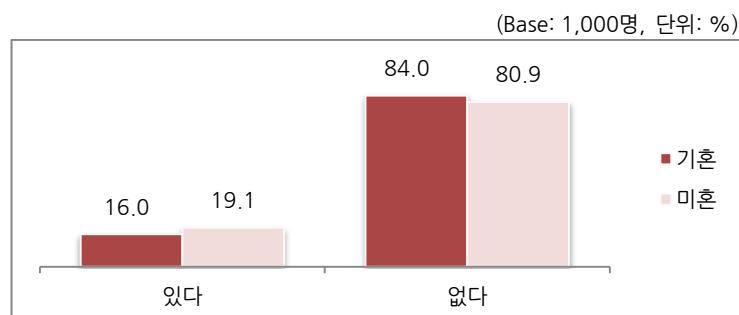
학력 수준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의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응답자들 중 15.0%가 익명검사를 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대졸 이상 응답자들 중 19.6%가 익명검사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졸 이하의 응답자들에 비해 대졸 이상 응답자들의 익명 검사 의향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고졸이하	대졸이상
있다	84 15.0%	86 19.6%
없다	477 85.0%	353 80.4%

〈그림 86〉, 〈표 60〉 학력수준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의향

혼인 여부에 따른 에이즈 익명 검사 의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혼 응답자들의 경우 16.0%가, 미혼 응답자들의 경우 19.1%가 각각 에이즈 익명 검사를 하겠다고 응답하여 혼인의 경험이 없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사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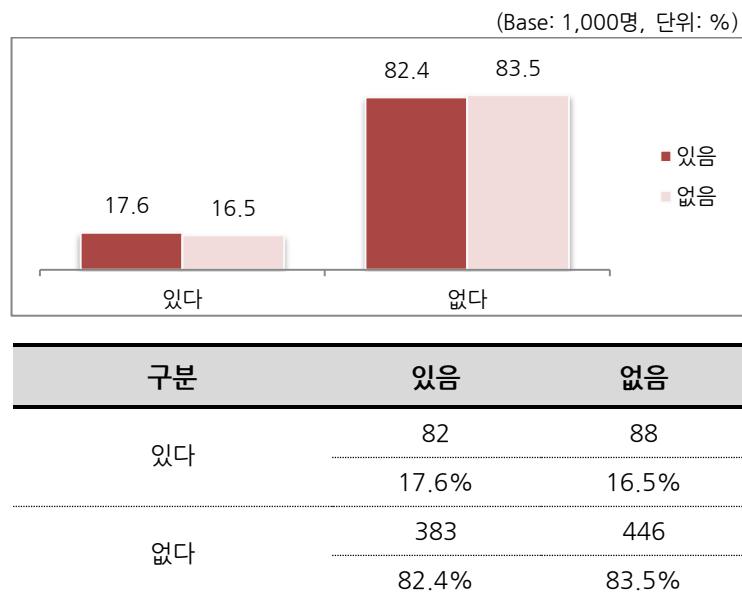


구분	기혼	미혼
있다	109 16.0%	61 19.1%
없다	571 84.0%	259 80.9%

〈그림 87〉, 〈표 61〉 혼인여부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의향

마지막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의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교를 가진 응답자들 중 17.6%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 중 16.5%가 각각 에이즈 익명 검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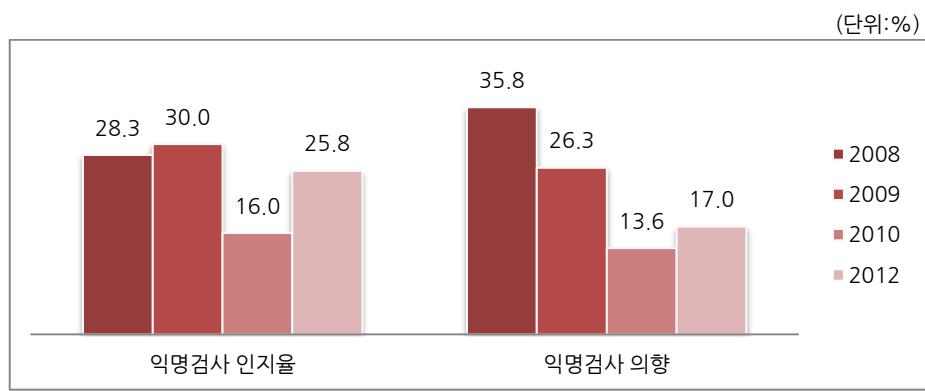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사 의향을 나타냈으나 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8〉, 〈표 62〉 종교유무에 따른 에이즈 익명검사 의향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에이즈 익명 검사 인지 여부와 검사 의향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에이즈 익명 검사 인지에 대한 여부는, 2008년 28.3%, 그리고 2009년에는 30.0%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16.0%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에는 25.8%로 2010년에 비해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2008,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에이즈 익명 검사 의향에 대한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8년 35.8%, 2009년 26.3%, 2010년 13.6%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17.0%로 익명 검사에 대한 의향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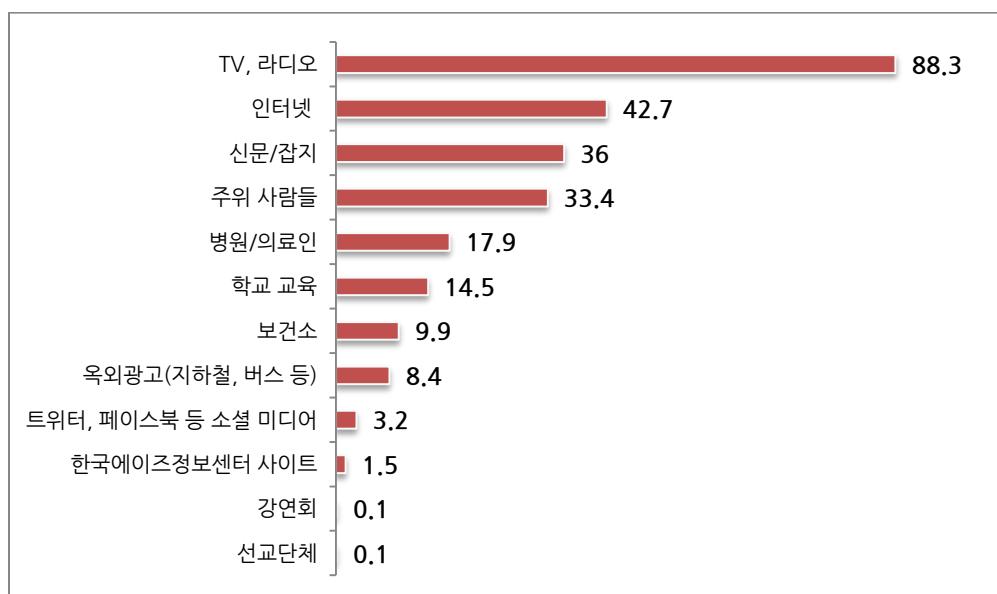
<그림 89> 에이즈 익명검사 인지 및 의향의 변화 추이(2008년~2012년)

7) 에이즈에 대한 정보 습득

(1) 에이즈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에이즈에 관련한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해 알아본 결과, TV 및 라디오를 통해 습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8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경로는 인터넷(42.7%), 신문/잡지(36%), 주변사람(33.4%), 병원/의료인(17.9%), 학교교육(14.5%), 보건소(9.9%), 지하철, 버스 등의 옥외광고(8.4%),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3.2%), 한국 에이즈 정보센터 사이트(1.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Base: 2,560명, 단위:%)



*중복응답 결과임

〈그림 90〉 에이즈 관련 정보 습득 경로

다음으로,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에이즈 관련 정보 습득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TV와 라디오를 통한 정보 습득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터넷, 신문/잡지를 통한 정보습득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에이즈 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한 정보습득의 경우는 남성이 2.6%로, 여성이 0.6%로 나타나 남성의 이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 반면, 주변인들 통한 정보습득의 경우 여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대별 에이즈 정보 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TV, 라디오를 통한 정보 습득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의 경우 20대가 6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10대가 53.8%, 30대가 52.5%로 각각 나타나 젊은 층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 30대(41.6%)와 40대(40.4%), 그리고 50대(39.4%)에서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나 20대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각각 57.0%, 30.6%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시기인 30대 이상의 응답자들의 경우 10대나 20대에 비해 병원/의료인을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표 6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 관련 정보 습득의 차이

(Base: 2,560명,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TV, 라디오	87.1	89.5	83.9	83.9	89.1	90.0	91.2
인터넷	47.2	38.0	53.8	61.1	52.5	31.9	23.6
신문/잡지	41.9	29.8	14.0	30.1	41.6	40.4	39.4
옥외광고 (지하철, 버스 등)	9.7	7.0	10.8	11.9	9.7	6.2	5.6
학교 교육	16.8	12.1	57.0	30.6	8.8	2.7	2.3
주위 사람들	31.4	35.5	28.0	31.6	34.0	36.2	33.3
병원/의료인	19.3	16.4	7.5	9.8	28.2	18.1	18.1
보건소	10.7	9.0	8.6	6.7	9.7	11.5	11.6
소셜 미디어	3.9	2.5	7.5	6.2	3.4	1.5	0.5
한국에이즈 정보센터 사이트	2.3	0.6	3.2	2.1	1.7	0.8	0.9
선교단체	0.0	0.2	0.0	0.0	0.0	0.0	0.5
강연회	0.2	0.0	0.0	0.2	0.0	0.0	0.0

(2) 에이즈 관련 정보의 신뢰도

에이즈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정보를 습득했던 매체에 관한 신뢰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 64>와 같다. 구체적으로, 선교단체 및 강연회(기타)를 통해 습득한 정보에 대한 신뢰가 4.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병원/의료인과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각각 4.11점, TV 및 라디오가 4.06점을, 한국 에이즈 정보센터 사이트가 4.00점으로 각각 신뢰할 만 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셜 미디어나 주변인들, 그리고 옥외광고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덜 신뢰가 간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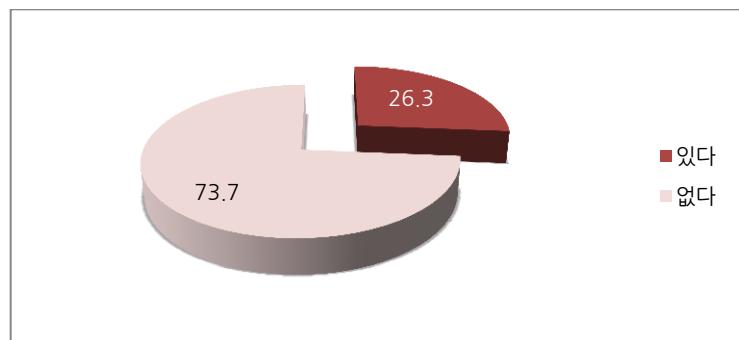
<표 64> 에이즈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

구분	N	Mean	Std.
TV, 라디오	883	4.06	0.589
인터넷	27	3.67	0.762
신문/잡지	360	3.97	0.713
옥외광고 (지하철, 버스 등)	84	3.56	0.910
학교 교육	145	4.00	0.866
주위 사람들	334	3.48	0.774
병원/의료인	179	4.11	0.806
보건소	99	4.11	0.936
소셜 미디어	32	3.16	1.110
한국 에이즈 정보센터 사이트	15	4.00	0.378
기타	2	4.50	0.707

(3)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교육경험 여부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교육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3%가 교육을 접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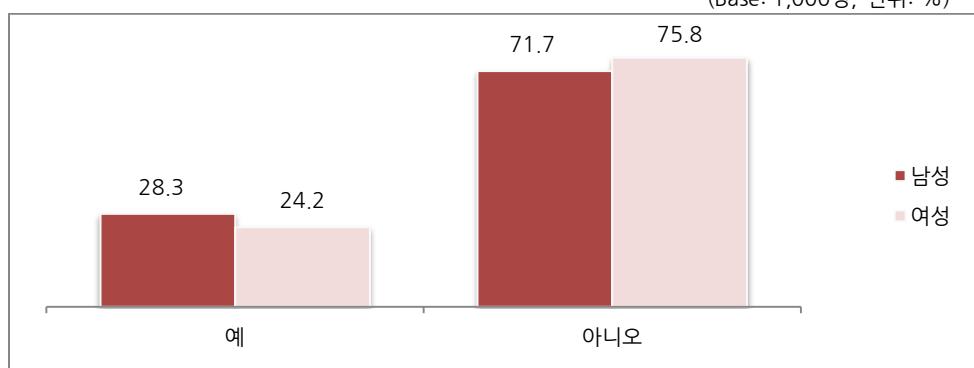
(Base:1,000명, 단위:%)



<그림 91>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교육경험 여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교육 경험 유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28.3%)이 여성(24.2%)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 교육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과 여성에 따른 교육 경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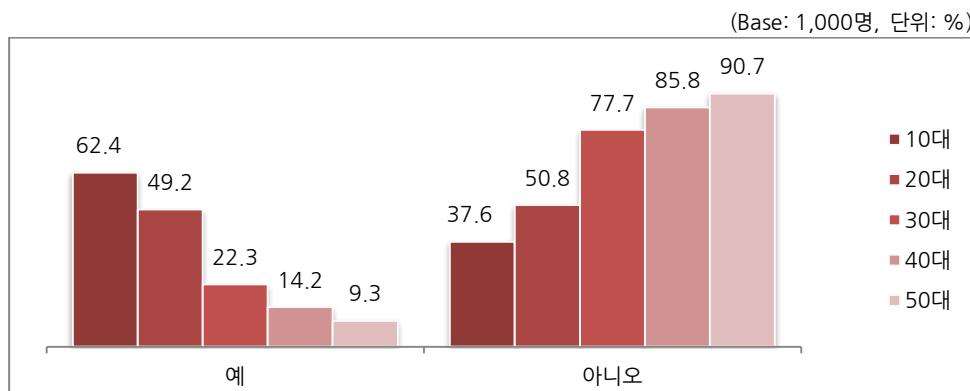
(Base: 1,000명,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예	145	118
	28.3%	24.2%
아니오	368	369
	71.7%	75.8%

<그림 92>, <표 65> 성별에 따른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교육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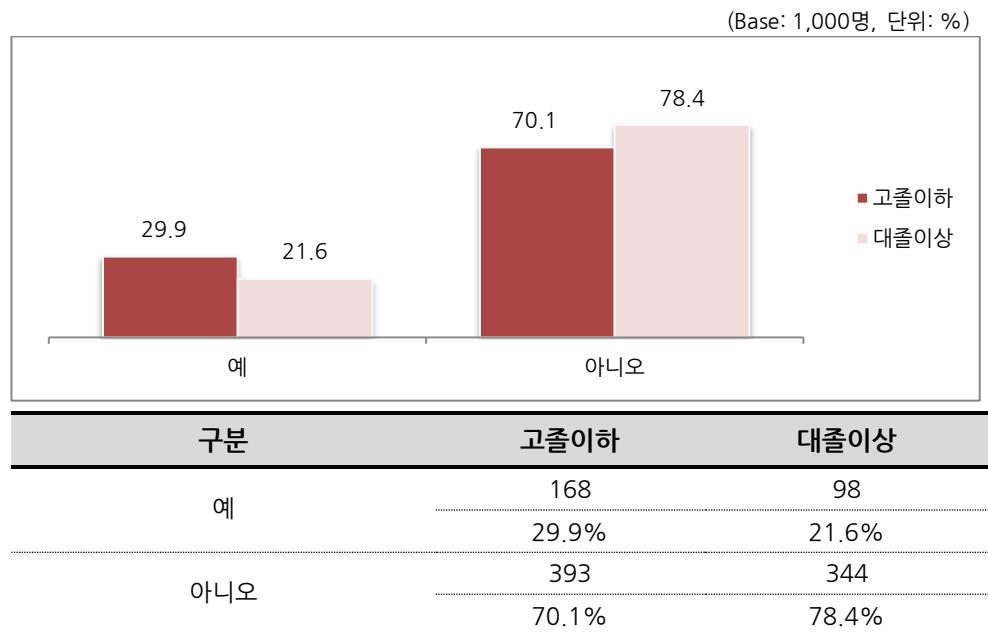
연령대의 경우, 예방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2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각각 50.8%, 77.7%, 85.8%, 90.7%로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대에서는 예방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62.4%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 관련 교육이 주로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예	58	95	53	37	20
	62.4%	49.2%	22.3%	14.2%	9.3%
아니오	35	98	185	223	196
	37.6%	50.8%	77.7%	85.8%	90.7%

<그림 93>, <표 66> 연령대에 따른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교육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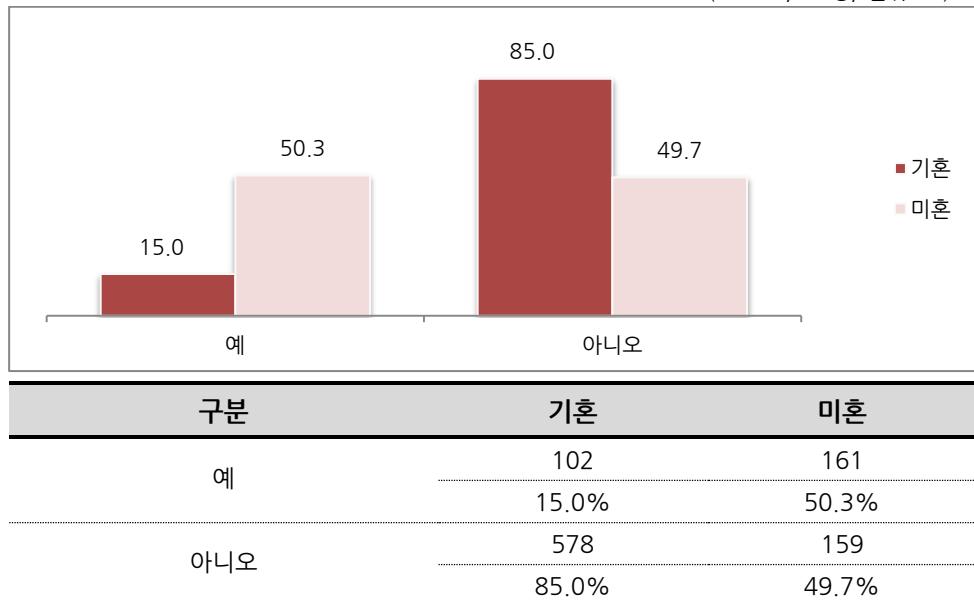
다음으로,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응답자 모두, 예방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고졸 이하가 29.9%로 대졸이상(21.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4> <표 67> 학력수준에 따른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교육경험

혼인여부에 따라서는, 기혼(15.0%) 응답자들에 비해 미혼(50.3%) 응답자들의 성 관련 교육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에 따른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미혼자들의 경우 대개 10대와 20대 즉,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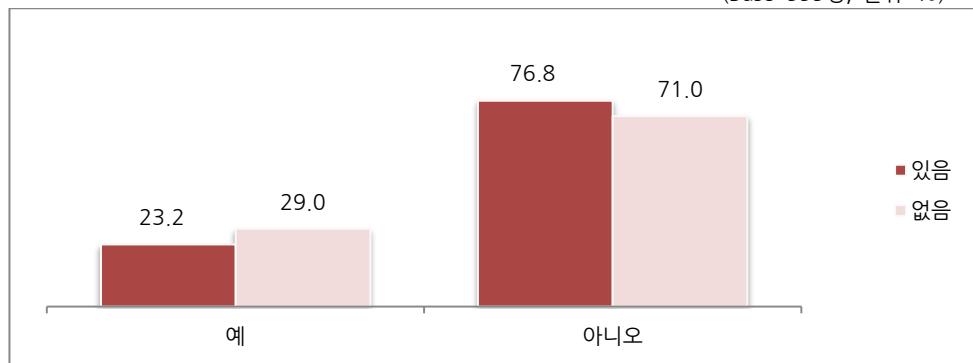
(Base: 1,000명, 단위: %)



<그림 95>, <표 68> 혼인여부에 따른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교육경험

마지막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교육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29.0%)이 종교를 가진 응답자들(23.2%)에 비해 다소 높은 성 관련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ase: 999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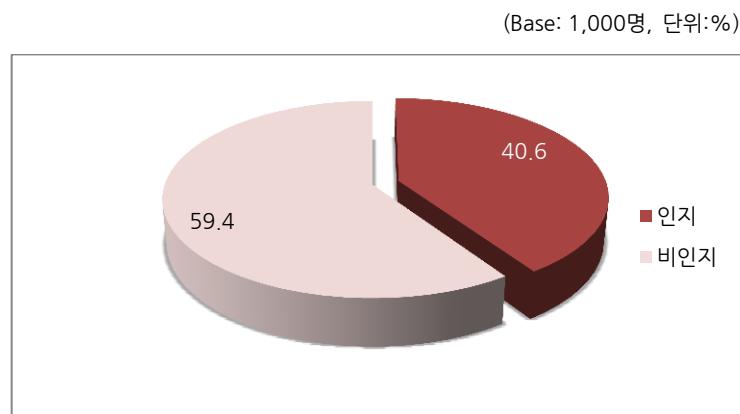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예	108	155
	23.2%	29.0%
아니오	357%	379
	76.8%	71.0%

<그림 96> <표 69> 종교유무에 따른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교육경험

(4)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 인지 및 효과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에 노출된 응답자는 전체 1000명 중 406명(40.6%)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를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594명(59.4%)로 각각 나타나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에 노출되지 않았던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7>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 인지여부

또한, 노출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가 개인의 에이즈 예방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에이즈 예방행동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61점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6.4%로 가장 많았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의 경우 6.9%로 각각 나타나 전체 63%가량의 응답자들이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가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편견 차별과 같은 행동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의 행동변화 효과

	사례수(명)	퍼센트(%)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4	1.0
별로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30	7.4
보통이다	115	28.3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29	56.4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8	6.9
전체	406	100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 공익광고가 성관계 시 콘돔사용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콘돔 사용에 대한 영향력을 3.63점 정도로 평가하여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5.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의 경우 9.9%로 나타나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가 콘돔 사용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약 65%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의 콘돔 사용 행동 효과

	사례수(명)	퍼센트(%)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10	2.5
별로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31	7.6
보통이다	99	24.4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26	55.7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40	9.9
전체	406	100

동일하게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익광고가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5점 만점에 3.65점으로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도움을 주었다'가 8.1%,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59.1%로 나타나 67%이상의 응답자들이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가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축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의 두려움 축소에 대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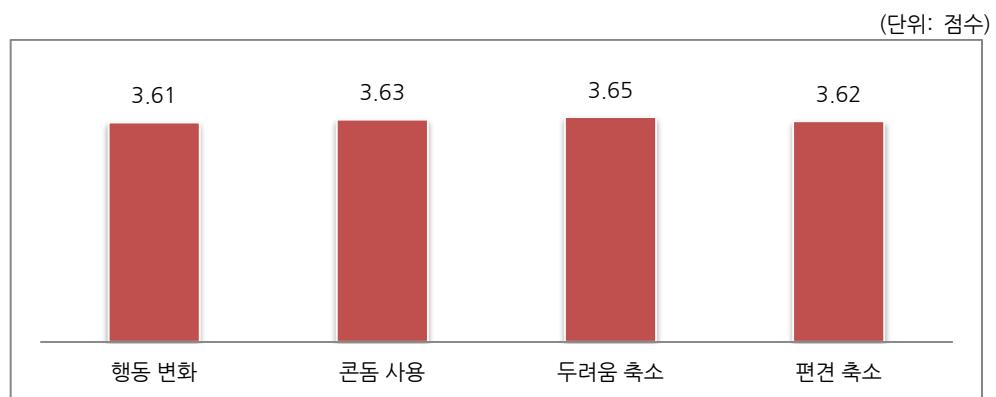
	사례수(명)	퍼센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1.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1	7.6
보통이다	97	23.9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240	59.1
매우 도움을 주었다	33	8.1
전체	406	100

다음으로,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것에 대한 도움 정도는 평균 3.62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가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도움을 주었다'의 경우 8.4%로 나타나 전체 65%가량의 응답자들이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1.2%에 그쳤다.

〈표 73〉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의 감염인 편견 축소에 대한 효과

	사례수(명)	퍼센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1.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9	9.6
보통이다	97	23.9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231	56.9
매우 도움을 주었다	34	8.4
전체	406	100

마지막으로,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네 가지 효과 인식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동 변화 효과와 콘돔 사용 행동 효과에 대해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각 3.61점, 3.63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염인에 대한 두려움 축소와 편견 축소에는 각각 3.65점, 3.62점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가 다소 효과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8〉 에이즈 공익광고 효과

2. 미디어 커버리지 내용분석 결과

1) 에이즈 관련 언론 보도 유형별 빈도

총 481개의 보도 기사가 50여 개 언론사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언론사를 유형별로 재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었으며, 유형별 빈도는 의학지>인터넷신문>경제지>통신사>종합 일간지>케이블 방송>공중파방송>지역신문>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4〉 내용분석 대상 매체

구분	빈도(건)	비율(%)
종합 일간지	67	13.9
공중파 방송	6	1.2
케이블 방송	7	1.5
통신사	76	15.8
의학지	120	24.9
지역지	6	1.2
경제지	85	17.7
인터넷 신문	108	22.5
기타	6	1.2
전체	481	100

분석결과를 통해 보면 에이즈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전달하는 매체로 의학지(120건, 24.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의 증가로 종합 일간지(67건, 13.9%)보다 인터넷 신문(108건, 22.5%)에서 더욱 많은 보도가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경제지(85건, 17.7%)의 비율이 종합일간지(67건, 13.9%)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에이즈와 관련된 보도 중 제약회사와 관련된 보도가 많아 주가와 관련되어 경제지에 실리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 준다. 기타 매체 유형에는 경당 소식지, 인권신문 등이 있었다.

에이즈 관련 보도가 게재된 언론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언론사는 메디컬투데이 > 뉴시스 > 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 헬스코리아뉴스 > 매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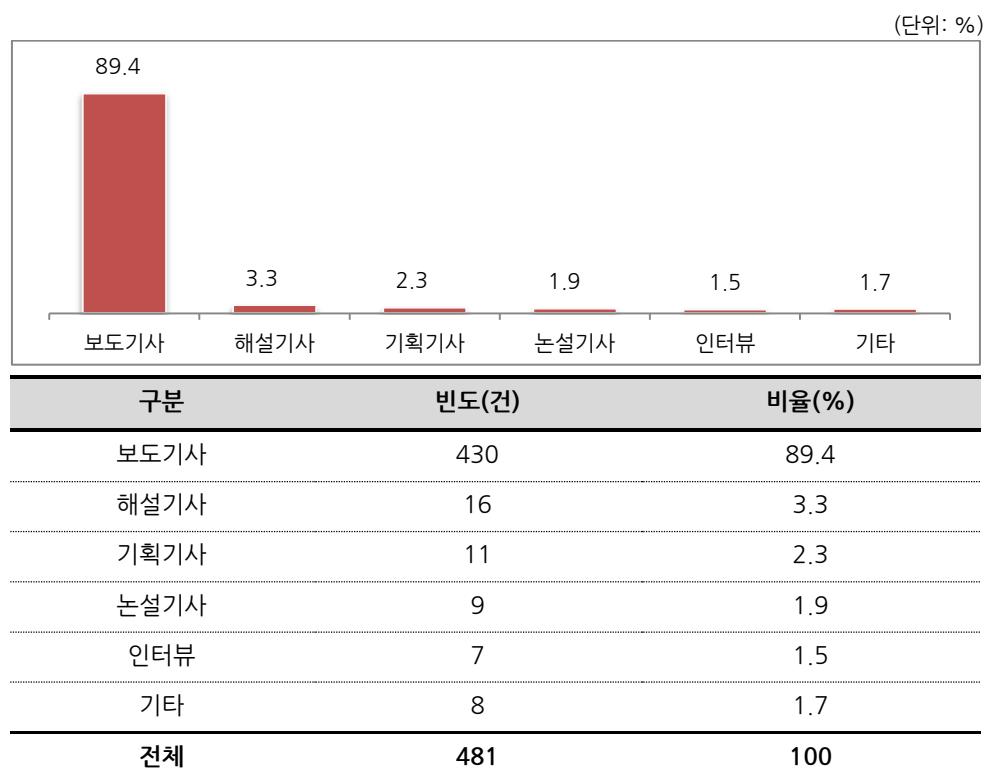
제 > 문화일보의 순으로 나타나, 의학지인 메디컬투데이, 헬스코리아뉴스, 경제지인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통신사인 뉴시스와 연합뉴스를 통한 보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5〉 에이즈 관련 보도 매체 별 보도 건수

구분	빈도(건)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KBS	2	0.4	세계일보	13	2.7
MBC	3	0.6	씨앤비뉴스	7	1.5
SBS	1	0.2	아시아경제	12	2.5
YTN	2	0.4	아시아투데이	10	2.1
경향신문	4	0.8	아주경제	9	1.9
국민일보	8	1.7	약업신문	6	1.2
노컷뉴스	6	1.2	연합뉴스	35	7.3
뉴스엔	3	0.6	의협신문	7	1.5
뉴시스	41	8.5	이데일리	2	0.4
데일리메디	11	2.3	이투데이	12	2.5
동아일보	7	1.5	조선일보	2	0.4
디지털타임스	4	0.8	중앙일보	2	0.4
매일경제	16	3.3	코리아헬스로그	6	1.2
매일신문	7	1.5	코메디닷컴	5	1.0
머니투데이	19	4.0	파이낸셜뉴스	6	1.2
메디컬투데이	48	10.0	한겨례	9	1.9
메디파나뉴스	8	1.7	한국경제	12	2.5
문화일보	15	3.1	한국일보	2	0.4
부산일보	2	0.4	헤럴드경제	2	0.4
브레이크뉴스	8	1.7	헤럴드 생뉴스	12	2.5
서울경제	6	1.2	헬스코리아뉴스	19	4.0
서울신문	3	0.6	기타	67	13.9
전체				481	100

2) 에이즈 관련 보도 기사의 유형

보도된 기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도 기사(스트레이트 기사)가 430건(89.4%)으로 가장 많았고, 해설기사가 16건(3%)으로 그 뒤를 따랐다(표5). 이렇듯 대개의 언론 보도가 사건을 단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보도의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해설기사나 기획기사 등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타 유형으로는 사진과 함께 한 두 줄의 문장으로 단편 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진 기사 등이 8건(1.7%)으로 나타났다. 즉, 에이즈 관련 기사는 기사의 유형이 대부분 보도 기사에 편중되어 보도 형태의 다양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9〉, 〈표 76〉 에이즈 관련 보도 기사의 유형

에이즈 관련 보도의 기사 유형별 매체의 형태를 살펴보면, 매체 유형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각 매체에서 스트레이트 기사 형태의 보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표 77). 그러나 가장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의학지에서는 해설기사가 단 1건에 그쳤던 반면, 종합 일간지에서는 6건으로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기획기사의 경우에는 의학지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인터뷰의 형태는 공중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종합 일간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사들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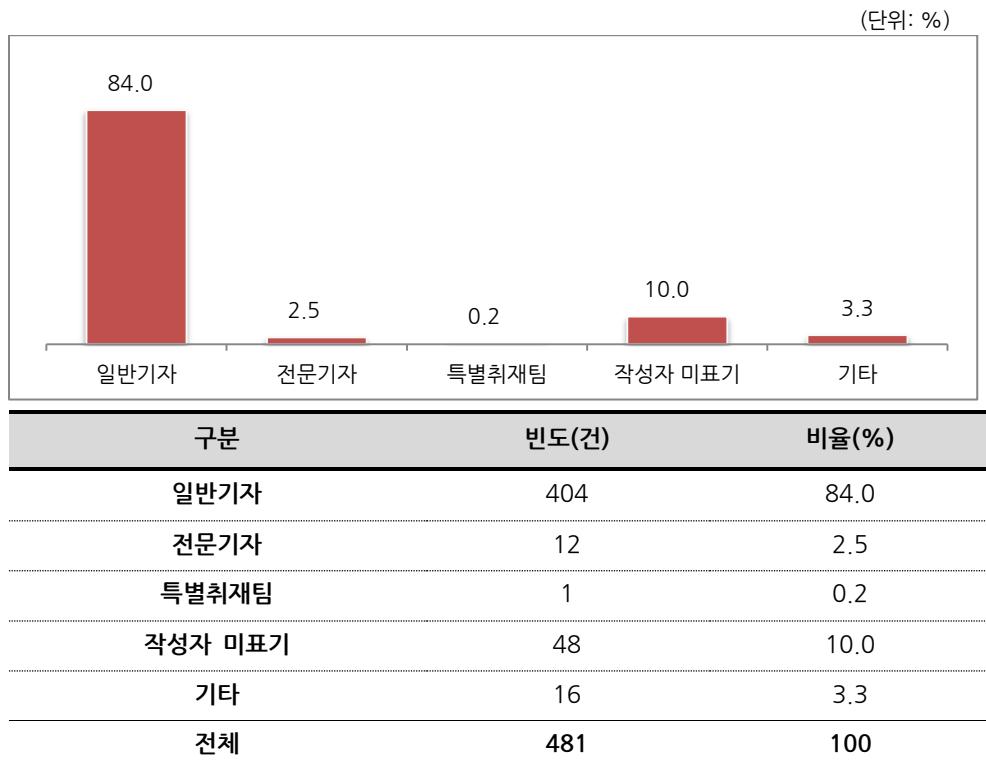
〈표 77〉 에이즈 관련 보도 기사의 유형

(단위: 건, %)

구분	보도기사	해설기사	기획기사	논설기사	인터뷰	기타	전체
종합 일간지	53(11.0)	6(1.2)	1(0.2)	3(0.6)	1(2)	3(0.6)	67(13.9)
경제지	82(17.0)	1(0.2)	1(0.2)	0(0.0)	0(0.0)	1(0.2)	85(17.7)
인터넷 신문	92(19.1)	8(1.7)	4(0.8)	0(0.0)	0(0.0)	4(0.8)	108(22.5)
공중파 방송	0(0.0)	0(0.0)	1(0.2)	0(0.0)	5(1.0)	0(0.0)	6(1.2)
케이블 방송	7(1.5)	0(0.0)	0(0.0)	0(0.0)	0(0.0)	0(0.0)	7(1.5)
통신사	73(15.2)	0(0.0)	0(0.0)	0(0.0)	1(0.2)	2(0.4)	76(15.8)
지역 신문	6(1.2)	0(0.0)	0(0.0)	0(0.0)	0(0.0)	0(0.0)	6(1.2)
의학 신문	111(23.1)	1(0.2)	4(0.8)	1(0.2)	0(0.0)	3(0.6)	120(24.9)
기타	6(1.2)	0(0.0)	0(0.0)	0(0.0)	0(0.0)	0(0.0)	6(1.2)
전체	430(89.4)	16(3.3)	11(2.3)	4(.8)	7(1.5)	13(2.7)	481(100)

3) 에이즈 관련 보도 기사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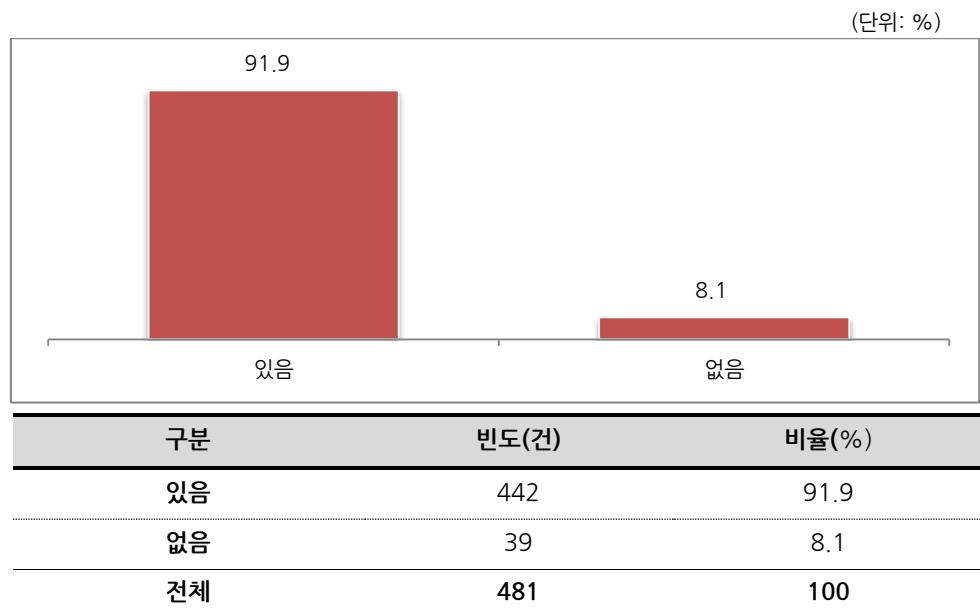
에이즈 관련 기사의 작성자를 내용 분석한 결과 일반기자가 8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문기자의 경우는 2.5%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기타 유형에는 인권 운동가, NGO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100>, <표 78> 에이즈 관련 보도 기사 작성자

4) 에이즈 관련 보도의 정보원

에이즈 관련 보도들은 어떤 정보원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는지 분석한 결과, 정보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39건, 8.1%)에 비해 존재하는 경우가 442건(91.9%)으로 대다수를 이루었다.



<그림 101>, <표 79> 에이즈 관련 보도 정보원 유무

보도에서 기반으로 하는 정보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기관(178건, 30.3%)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비영리단체(74건, 12.6%) 및 제약업계(61건, 10.4%) 순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기관의 발표에 의한 에이즈 관련 보도가 많음을 보여주며, 에이즈에 관한 정보의 전달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비영리 단체의 경우, 에이즈 보도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인권 단체, 에이즈 환자 모임 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제약 업계의 경우, 치료제, 치료법의 개발 및 출시 등의 이슈가 그 만큼 많이 보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80〉 에이즈 관련 보도 정보원

구분	빈도(건)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정부기관	178	30.3	보고서/조사	27	4.6
비영리단체	74	12.6	정치계/정치인	25	4.3
제약업계	61	10.4	일반기업/기업관계자	22	3.7
학계 및 연구기관	53	9.0	의료계	21	3.6
소비자/일반인	53	9.0	기타	21	3.6
학자/전문가	39	6.6	다른 미디어	14	2.4
전체				588	100

이상의 에이즈 관련 보도의 일반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먼저 에이즈 관련 보도가 게재된 언론의 유형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전달하는 매체가 의학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부분은 에이즈와 관련된 이슈 중 주가 등의 경제적 이슈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치료제 등의 이슈들로 인해 경제지에서도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지인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이 에이즈 관련 보도가 많이 게재된 언론사에 포함되며, 의학지인 메디컬투데이가 가장 많이 에이즈 관련 보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관련 기사는 매체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른 일반 사건 기사처럼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기사의 작성자 또한 전문기자라기보다는 대개 일반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단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주를 이루고, 전문기자가 아닌 일반기자에 의해 기사작성이 주도 된다는 점은 에이즈와 관련된 보도의 정보전달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보원을 살펴보면, 기사가 근거하는 정보원의 경우 대부분이 정부관련 기관으로, 정부 기관의 일방적인 발표가 주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5) 에이즈 관련 보도의 내용 분석

에이즈 관련 보도의 일반적인 특성에 이어 이러한 기사들이 에이즈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본문에 사용된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본문에서 다루는 에이즈 및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보도의 논조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1) 보도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

먼저 보도된 기사의 본문을 통해 에이즈 보도의 초점을 복수코딩으로 점검한 결과, 이벤트 및 캠페인(108건, 10.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예방(103건, 10.4%), 인식개선(96건, 9.7%), 치료제(88건, 8.9%)의 순이었다<표 81>. 이는 에이즈에 대한 대부분의 보도가 에이즈 예방 및 에이즈와 관련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며, 치료제 키워드 역시 에이즈 관련 보도에 있어서 제약회사의 보도 자료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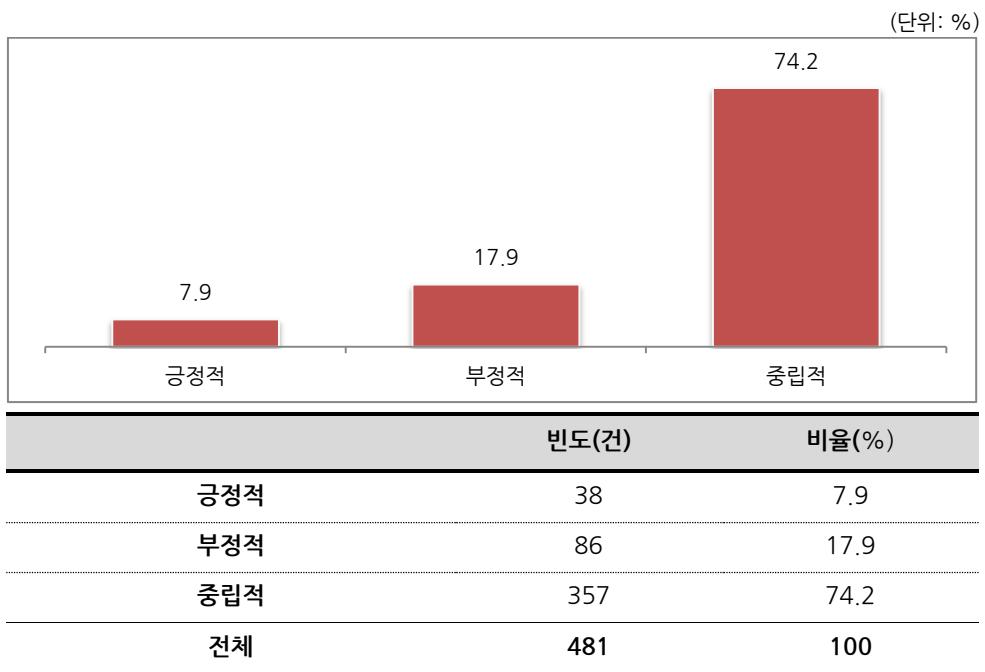
이러한 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의 순위를 살펴보면 감염(7.8%), 성관계(5.9), 범죄(5.0%)의 차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벤트 및 캠페인, 예방, 치료제를 비롯한 키워드들이 제약회사나 정부기관의 보도자료 성격을 갖는 기사들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기사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키워드는 감염, 성관계, 범죄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염, 범죄 등 의 키워드들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공중들이 해당 키워드가 사용된 보도기사들을 접했을 때, 에이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81〉 에이즈 관련 보도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

구분	빈도(건)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이벤트 및 캠페인	108	10.90	성매매	32	3.20
예방	103	10.40	전염,전파	29	2.90
인식개선	96	9.70	은닉	20	2.00
치료제	88	8.90	치료법	19	1.90
감염	77	7.80	콘돔(피임기구)	17	1.70
성관계	58	5.90	공포,불안,위험	16	1.60
범죄	49	5.00	마약 및 약물	16	1.60
인권	48	4.90	합병증	15	1.50
검진,검사	46	4.70	진료거부	9	0.90
차별	46	4.70	사망, 죽음	8	0.80
동성애	42	4.30	신변비관	7	0.70
편견, 낙인	33	3.30	주사바늘	5	0.50
전체				987	100.0

(2) 언론 보도의 논조

에이즈 관련 보도에서 나타나는 에이즈 및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논조는 중립적(357건, 74.2%)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86건, 17.9%), 긍정적(38건, 7.9%)의 순서였다. 기사 유형에서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중립적인 논조의 정보전달 기사가 에이즈 관련 보도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에이즈 관련 보도에서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 보다는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사를 접한 공중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신념 및 태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102>, <표 82> 에이즈 관련 보도의 논조

(3) 에이즈 관련 키워드별 논조

에이즈 관련 보도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와 보도에 나타난 에이즈 및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논조를 함께 살펴보면 이벤트 및 캠페인 키워드가 중립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101건(22.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도 예방(89건, 19.4%), 인식개선(77건, 16.8%), 치료제(80건, 17.5%)의 키워드가 중립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뒤를 이어서는 성관계(47건, 10.3%), 범죄(44건, 9.6%) 등의 키워드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밖에도 동성애(23건, 5.0%), 성매매(31건, 6.8%), 전염/전파(24건, 5.2%)등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인식개선(17건, 3.7%)으로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편견/낙인(20건, 4.4%), 차별(30건, 6.6%)등의 키워드가 중립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키워드가 보도 기사에서 사용되는 시점이 에이즈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 혹은 차별 등이 발생했다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편견이나 낙인, 차별을 줄이자고 촉구하는 이벤트 등의 정보를 중립적으

로 전달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표 83〉 에이즈 관련 보도의 주요 키워드별 논조

(단위: 건, %)

구분(건, %)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전체
이벤트 및 캠페인	4(0.9)	3(0.7)	101(22.1)	108(23.6)
예방	11(2.4)	3(0.7)	89(19.4)	103(22.5)
인식개선	17(3.7)	2(0.4)	77(16.8)	96(21.0)
치료제	4(0.9)	4(0.9)	80(17.5)	88(19.2)
감염	3(0.7)	32(7.0)	42(9.2)	77(16.8)
성관계	1(0.2)	47(10.3)	10(2.2)	58(12.7)
범죄	0(0.0)	44(9.6)	5(1.1)	49(10.7)
인권	6(1.3)	10(2.2)	32(7.0)	48(10.5)
검진, 검사	5(1.1)	2(0.4)	39(8.5)	46(10.0)
차별	8(1.7)	8(1.7)	30(6.6)	46(10.0)
동성애	4(0.9)	23(5.0)	15(3.3)	42(9.2)
편견, 낙인	9(2.0)	4(0.9)	20(4.4)	33(7.2)
성매매	0(0.0)	31(6.8)	1(0.2)	32(7.0)
전염, 전파	2(0.4)	24(5.2)	3(0.7)	29(6.3)
은닉	0(0.0)	20(4.4)	0(0.0)	20(4.4)
치료법	5(1.1)	0(0.0)	14(3.1)	19(4.1)
콘돔(피임기구)	2(0.4)	1(0.2)	14(3.1)	17(3.7)
공포, 불안, 위험	2(0.4)	5(1.1)	9(2.0)	16(3.5)
마약 및 약물	0(0.0)	14(3.1)	2(0.4)	16(3.5)
합병증	0(0.0)	7(1.5)	8(1.7)	15(3.3)
진료거부	0(0.0)	6(1.3)	3(0.7)	9(2.0)
사망, 죽음	0(0.0)	6(1.3)	2(0.4)	8(1.7)
신변 비관	0(0.0)	2(0.4)	5(1.1)	7(1.5)
주사바늘	0(0.0)	1(0.2)	4(0.9)	5(1.1)
전체	37(8.1)	85(18.6)	336(73.4)	458(100)

(4) 기사 작성자 별 기사 유형

에이즈 관련 보도에 나타난 기사 작성자 별 기사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기자가 작성한 보도기사의 경우가 375건(7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작성자가 표기되지 않은 보도기사가 46건(9.6%)이 뒤를 이었다.

이것은 에이즈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사형태는 각종 보도자료 등 보도기사의 형식이며, 이러한 보도기사는 대부분이 일반 기자에 의해 작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에서 보도되고 있는 에이즈 관련 기사의 대부분은 사실을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며 의학전문기자보다는 일반기자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4〉 에이즈 관련 보도의 기사 작성자 별 기사 유형

(단위: 건, %)

구분	일반기자	전문기자	특별취재팀	작성자 미표기	기타
보도기사	375	9	0	46	0
	78.0%	1.9%	0.0%	9.6%	0.0%
해설기사	13	2	0	1	0
	2.7%	0.4%	0.0%	0.2%	0.0%
기획기사	7	0	0	1	3
	1.5%	0.0%	0.0%	0.2%	0.6%
논설기사	0	1	0	0	3
	0.0%	0.2%	0.0%	0.0%	0.6%
인터뷰	6	0	1	0	0
	1.2%	0.0%	0.2%	0.0%	0.0%
기타	3	0	0	0	10
	0.6%	0.0%	0.0%	0.0%	2.1%

(5) 정보원 별 기사 논조

에이즈 관련 보도에 나타난 정보원 별 기사 논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중립적인 논조를 보이는 가운데 학계 및 연구기관(2.3%), 학자 또는 전문가(1.1%), 다른 미디어(0.7%)정도만 긍정적인 논조가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정부기관의 논조가 긍정적(1.6%)보다 부정적(12.9%)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청, 법원 등의 기관이 정부기관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에이즈와 관련된 사건, 범죄 등의 소식을 다루는 기사에서 정보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적 부정적인 논조가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비영리 단체(3.2%)나 소비자/일반인(5.2%)의 경우에도 사건, 사고, 범죄를 다룬 기사에서 관련자 및 관련 단체 인터뷰의 형태로 정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5〉 에이즈 관련 보도의 정보원 별 기사 논조

(단위: 건, %)

구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제약업계	2(0.5)	1(0.2)	58(13.1)
의료계	4(0.9)	4(0.9)	13(2.9)
학계 및 연구기관	10(2.3)	6(1.4)	37(8.4)
일반기업 / 기업 관계자	2(0.5)	4(0.9)	16(3.6)
정부기관	7(1.6)	57(12.9)	114(25.8)
정치계 / 정치인	1(0.2)	6(1.4)	18(4.1)
보고서 / 조사	6(1.4)	4(0.9)	17(3.8)
비영리단체	4(0.9)	14(3.2)	56(12.7)
학자 또는 전문가	5(1.1)	2(0.5)	32(7.2)
소비자 / 일반인	6(1.4)	23(5.2)	24(5.4)
다른 미디어	3(0.7)	1(0.2)	10(2.3)
기타	6(1.4)	5(1.1)	10(2.3)

결론 및 논의

■ 에이즈에 대한 연상 및 낙관적 편견 인식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연상 단어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 ‘후진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발병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등 에이즈라는 질병이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나 우리 주위에서 쉽게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을 측정한 질문에서 개인 스스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낮게 인식하는 이들이 85%이상으로 나타나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은 감염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의 낙관적 편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낙관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에이즈와 관련된 연상 단어들의 연결망을 살펴본 결과, 성관계, 혈액, 죽음, 무섭다, 불치병, 동성애자, 성병, 불결하다, 문란함 등의 단어가 중앙에 위치해 에이즈라는 질병이 ‘성 관계’라는 것과 강하게 연결되어 연상이 되며, 그러한 가운데 에이즈 감염인을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불결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연상 단어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에이즈를 성병이나 성 관계와 관련하여 연상하는 비율은 2010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반면, 단순 질병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08, 2009, 2010년에 비해 ‘불결함’, ‘수치심’, ‘부끄럽다’와 같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매춘’, ‘사창가’, ‘수혈’, ‘주사기’와 같이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예방’과 관련된 단어들이 비교적 높게 연상되었던 반면, 2012년에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점, 에이즈 감염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연상 단어들이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에이즈 예방 캠페인의 주제 변화에 따라 일반인들의 에이즈에 대한 연상 단어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근의 에이즈 예방 캠페인들을 살펴보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에이즈 감염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으며, 에이즈도 꾸준히 치료하면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에이즈’라는 질병이 ‘문란한 성 관계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걸리는 병’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에이즈 감염인과의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고만 하는 캠페인 메시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조사 결과에서 낙관적 편견이 높게 나타난 것 또한 ‘에이즈’라는 질병이 성 매매나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성 생활로 인해서만 감염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고 에이즈 감염 혹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에이즈라는 질병의 감염 위험이 존재하며, 에이즈라는 질병이 소수의 문란한 특정 집단에게서만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에이즈 감염인과의 가벼운 신체접촉으로는 직접적으로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 관계 시 콘돔 사용을 통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문항이 높은 정답률을 보인 점, 에이즈에 대한 연상 단어에서도 성 관계나 성병과 같은 단어들이 높은 비율로 연상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에이즈라는 질병이 주로 성 접촉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응답자들 또한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에이즈도 제대로 치료하면 2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의 경우 정답률이 60.5%에 그쳤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 또한 24.4%로 나타난 점, 에이즈에 대한 연상 단어에서 죽음, 사망, 불치병, 공포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연상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에이즈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총 11개의 에이즈 지식 문항을 모두 맞춘 이들은 1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6%의 응답자들이 9개 이상의 문항을 모두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을 연령대 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대 별로는 10대의 지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가 각각 가장 높은 지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

별 지식수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콘돔 사용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정인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이즈 예방에 있어 콘돔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기에 물리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의 경우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수혈을 통해서 감염되는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수의 응답자들이 수혈과 모기에 물리는 것을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다고도 평가해 볼 수 있겠다. 최근 실시된 ‘에이즈 바로 알기 캠페인’에서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들을 쉽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키스로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것인지, ‘모기에 물리는 것과 수혈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해 주는데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에이즈 관련 지식을 한 번에 전달하는 일회성의 캠페인 보다는 하나의 핵심적인 지식에 초점을 두어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의 장기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에이즈에 대한 낙인

에이즈에 대한 낙인 인식을 감염에 대한 두려움,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개인적 낙인, 사회적 낙인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 내에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인식한 반면, 개인 스스로가 에이즈 감염인을 차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감염인과의 접촉을 통한 감염에 대해서도 다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년도별 낙인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와 ‘같은 직장에 에이즈 감염인이 다닌다면 그가 사표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에이즈 감염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에 대해 더욱 거부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부터 실시된 에이즈 낙인 지표에 대한 검증 결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개인적 낙인, 사회적 낙인으로 구성된 에이즈 낙인의 요인 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지표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2010년의 에이즈 낙인 지표 점수와 2012년 조사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10년과 2012년의 낙인 점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진 반면,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사회적 낙인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이즈에 대한 낙인 인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0대의 낙인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의 낙인 인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들이 미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에이즈 낙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성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가장 높으며, 성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인 10대를 중심으로 하는 에이즈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10대와 더불어 기혼자들, 즉 10대의 부모 역할을 담당하게 될 30-4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가정 내 성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성 행태

응답자들의 성 행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만 15세~59세인 본 조사 응답자의 79.4%가 성 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94.8%는 최근 1년간 성 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첫 성 관계 경험의 평균 나이는 24.1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별 성 관계 경험여부를 살펴본 결과, 10대의 경우 4.3%가, 20대의 경우 46.1%가 성 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성 관계 경험의 빈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성 관계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성 관계 파트너와의 성 생활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정적인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90.9%로 나타났으며, 고정 성 상대자의 평균 수는 1.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 고정적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1.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고정 성 상대자의 평균 수는 1.4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 별로 성 상대자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10대의 25%가, 20대의 65.2%가 각각 고정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의 경우 21.3%의 응답자들이 비고정 성 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계 시 콘돔 사용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에

있어 39.2%의 응답자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최근의 성 관계 시 콘돔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4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성 관계 시 적어도 한 번 이상 콘돔을 사용했다는 비율은 74.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번 사용했다는 응답자들도 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가장 최근 성 관계 시 콘돔을 사용했다는 비율 또한 7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콘돔을 사용함에 있어 성 관계 파트너와 어떠한 관계에 처해 있는지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콘돔 사용 이유를 성 상대자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로 피임이 82.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콘돔 사용 이유는 피임이 33.3%, 성병이나 에이즈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가 28.8%, 피임과 질병예방 모두가 31.8%로 나타나 비고정적 성 상대자와의 성 관계 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위험을 더욱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조사의 응답자들 중 동성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는 지난 6개월간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성 매매는 20대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관계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성병 진단 경험이 있는 이들은 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이즈 검사 경험 및 익명검사 의향

본 조사의 응답자들 중 에이즈 검사를 받아 본 이들은 13.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16.6%가 검사 경험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10.7%가 검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30대의 수검률이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50대가 16.7%, 20대가 13.5%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에이즈 검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최근 1년 이내에 검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0년 조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이즈 검사 수검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서는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이즈 검사를 받은 장소로는 병원이 6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적십자 혈액원이 29.8%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원과 적십자 혈액원의 검사율이 높은 이유는 주로 건강검진

(52.9%)과 헌혈(33.6%)을 통해서 에이즈 검사가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익명 검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25.8%의 응답자 만이 익명검사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에이즈 익명검사를 해 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7%의 응답자들만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에이즈에 대한 연상 결과에서 '부끄럽다', '수치심', '죄의식', '비난'과 같은 단어들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여전히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검사를 통해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 조차도 꺼려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익명검사 의향의 경우 남성 보다 여성이 더욱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나 30대에 비해 50대가 더욱 검사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에이즈에 대한 정보 습득

에이즈에 대한 정보습득 및 공익광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8.3%가 TV나 라디오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인터넷(42.7%)과 신문/잡지(36.0%), 대인 커뮤니케이션(33.4%)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중매체의 정보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인터넷이나 신문/잡지, 그리고 한국 에이즈 정보 센터와 같은 경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TV나 라디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 습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TV나 라디오를 통한 정보 습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의 경우 10대부터 30대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정보전달에 있어 연령층에 따른 차별적인 매체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대의 경우 병원/의료인을 통한 에이즈 정보 습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0대와 20대는 학교 교육을 통한 정보 습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에이즈 관련 정보습득 매체 중에서 병원/의료인과 보건소 다음으로 TV나 라디오의 정보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들 중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교육 경험이 있는 이들은 26.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와 20대의 교육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부터 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인지율은 40.6%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익광고가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주었다고 응답한 이들은 6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콘돔 사용 촉진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65.6%로,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67.2%,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65.3%로 각각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가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이즈 관련 미디어 커버리지 내용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주요 일간지 혹은 지상파 TV에서의 보도 건수는 다소 저조한 가운데, 메디컬 투데이(10.0%)와 뉴시스(8.5%)의 보도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의학지와 통신사 경제지에서의 보도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이즈 관련 보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도기사가 89.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중파 방송의 경우 인터뷰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신문이나 의학 신문의 경우는 기획기사 또한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일간지의 경우 해설기사나 논설기사 또한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이즈 관련 보도 기사의 작성자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 기자가 8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기자는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획기사나 해설기사 보다는 스트레이트 형식의 보도기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에이즈 관련 기사에서 정보원의 활용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정보원을 인용한 경우가 91.9%로 나타났으며 정보원의 유형으로는 정부기관이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비영리 단체가 12.6%, 제약업계가 10.4%로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추론해 볼 때 에이즈 관련 기사들이 주로 각 기관에서 특정 목적으로 발행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에이즈 관련 보도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로는 에이즈의 날과 같은 이벤트나 에이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한 것들이 10.9%로 나타난 반면, 에이즈 예방이 10.4%로, 인식개선이 9.7%, 치료제가 8.9%로, 감염이 7.8%로 각각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동성애, 편견·낙인, 사망·

죽음, 신변비관, 공포·불안·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 또한 기사 내에서 일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도 내용의 논조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논조는 7.9%에 그치는 반면, 중립적인 논조가 74.2%로, 부정적 논조가 17.9%로 각각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에이즈 관련 키워드들의 논조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가장 높은 이벤트 및 캠페인의 경우 중립적 논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논조 또한 존재하고 있었으며, 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키워드에서 역시 중립적 논조가 높은 반면, 긍정적 논조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부정적 논조 또한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루어 볼 때, 에이즈 캠페인이나, 예방에 대한 단어들이 보도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개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문제는 향후 에이즈 관련 보도를 실시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